2 호 2월 25일

평양 근로자사 발행 1956

조선 근로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 관 잡 지

제2호 (123)

1956년 2월 25일

내 용

전국 건축가 및 건설자 회의에서 하신 김 일성 원수의 연설

一、

동지들!

수일간에 결쳐 우리가 진행한 전국 건축가 및 건설자 회의는 거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회의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건설 사업을 더욱 새롭고 새 방법으로 혁신하자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본 회의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려는 것도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에 와서 건설 사업을 선진적이고도 새로운 방법으로 혁신할 필요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필요성은

첫째로 우리의 건축과 건설의 량은 현재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인민 경제의 발전에 따라 계속적으로 증대될 것이며 또 우리가 지금 건축 건설하고 있는 모든 것이 과거에 비하여 질적으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전후 三년간에 전쟁에 의하여 파괴된 인민 경제를 복구 건설하는 사업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우리는 三년 동안에 거대한 사업을 하여 놓았습니다。

그 업적은 사실상 형용할 수 없으리만큼 큰 것입니다。 이 거대한 업적들은 용이하게 달성된 것은 물론 아닙니

다. 이것은 우리의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과 당 및 국가 지도 일꾼들과 전체 인민들이 전후에 제기되는 온갖 곤난과 애로를 용감히 타개 극복하면서 모든 재능과 열성을 유감 없이 발휘한 데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오늘에 와서 더욱 대규모적이며 현대적인 건설을 새로운 방법으로 혁신할 수 있는 기초로 됩니다.

그러나 이 성과는 우리가 요구하는 것과 또 우리가 앞으로 할 일에 비하여 보면 첫 걸음에 불과합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수천년 동안 내려 오면서 우리 조상들이 건설하고 건축해 놓은 것들이 지난 三년간의 전쟁에서 적들의 야만적인 파괴로 인하여 잿더미로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단시일내에 一〇년 내지 二〇년내에 완전히 보다 많고 아름답고 훌륭한 것으로 건설하자는 이러한 과업에 비한다면 우리의 사업 성과는 극히 초보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건설하고 복구하였다는 것을 본다면 황해 제철소, 김 책 제철소, 성진 제강소 등 중요한 공장들의 평로와 용광로들이 복구되여 선철과 강철을 생산하고 있으며 제一一호 기계 공장, 북중, 락원 기계 공장들을 비롯한 수십개의 기계 공장들이 복구 건설되여 조업을 개시하고 있으며 흥남 비료 공장도 일부 복구되여 一〇 여만톤의 화학 비료를 생산할 수 있게 되였으며 평양 방직 공장, 구성 방직 공장 등 수 많은 경공업 공장들이 복구 신설되여 인민들의 생활 필수품들을 생산하고 있으며 평양시를 비롯한 중요 도시들에서 근로자들의 주택, 문화 교육 시설들이 적지 않게 건설되였으며 철도도 복구되여 인민 경제에 따르는 수송 사업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남 관개 공사를 비롯하여 각 지방에서 농촌 경리 발전을 위한 관개 공사들이 적지 않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이 복구 건설하여 놓은 적지 않은 공장, 기업소들은 그의 일부가 복구 건설된 것이며 완전하게 복구 건설되였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작하여 놓은 공장들을 완전히 복구 건설하며 또는 지금 예견하고 있는 대상들에 대한 건설 사업을 완성하자면 앞으로 거대한 사업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례를 들면 금속 부문에 있어서 김 책 제철소같은 공장은 용광로는 복구되였으나 현재 부산물 직장, 콕쓰로 등 복구할 것이 남아 있으며 성진 제강소에 있어서도 금년도 계획에 일부 예견되였지만 회전로를 복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건설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선철과 강재를 더욱 많이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황해 제철소도 지금에 있어서는 불과 몇 개의 압연 직장하고 평로가 돌아 가고 있을 뿐이고 용광로는 완전히 복구되지 못하였습니다.

강선 제강소 역시 계속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기 공업 부문에서도 지금 수풍 발전소가 일부 복구되였으나 아직 대보수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타 장진강, 부전강 발전소들도 일부 복구되고 전면적인 복구는 준비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화학 공업에서도 흥남 비료 공장과 본궁 화학 공장, 염료 공장, 제약 공장 등의 완전한 복구를 위하여서는 큰 사업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기계 공업에서도 실정은 동일합니다.

북중 기계 공장이나 락원 기계 공장도 더 확장하여야 하며 三호 기계 공장도, 평천리 종합 공장도 건설하여야 하겠습니다.

덕천 자동차 수리 공장도 조립 공장까지 앞으로 완전히 건설하여야 하겠는가? 물론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이 할 일은 중공업 부문에 있어서만 하여도 거대합니다. 또한 경공업 부문에 있어서도 인민들의 생활 필수품을 더욱 증대할 요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염색 공장도 건설하여야 하겠고 면방직 공장들과 견직 공장들도 계속 확장하여야 하겠고 기타 새로 건설할 일용품 공장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도시 건설의 형편을 보면 평양시나 함흥시 건설이 시작되고 있는 정도이고 기타 중요 도시들의 복구는 준비 단계에 처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주택, 구락부, 극장, 병원, 탁아소, 목욕탕, 공동 식당 등 적지 않게 건설은 하였으나 이것은 우리 근로자들의 수효에 비하면 아직도 대단히 적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지난 기간에 하여 놓은 사업은 크지만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할 일에 비하여 보면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즉 먼 거리 경주에 나선 경쟁자와 같이 경주의 첫 출발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무러한 자만할 권리도 없으며 조금도 교만할 근거도 없습니다.

우리는 초보적 성과에 도취하지 말고 이제부터 더 많은 것을 건설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써는 이와 같은 거대한 건설을 만족하게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새로운 방법으로 사업을 혁신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 동지들이 며칠 동안 토론한 것도 바로 여기에 그의 의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건설에 대한 질적 수준을 앞으로 더욱 높이자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파괴된 공장들에 대한 복구 공사를 하였을 따름이고 신설한 새로운 공장은 아직도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공장들의 건설들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또한 주택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까지는 대부분이 림시적 및 반영구식 주택을 건설하였으나 이제부터는 도시내에 三—四층의 현대식 주택들을 건설하여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건설의 질을 변화시켜야 할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가 사회주의의 기초를 건설하는 조건하에서 모든 시설들이 사회주의 건설자들인 근로자들의 요구에 알맞고 그들이 잘 살 수 있는 것으로 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것으로부터 출발하여 우리는 반드시 새로운 방법으로 건설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충분한 근거를 가지게 됩니다.

새로운 방법으로 건설하여야 할 두 번째의 필요성은 로력 문제에 의하여 제기됩니다. 우리들에게는 로력 절약에 대한 새로운 조직적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나라 력사에서 오늘처럼 로력 절약에 대한 문제가 귀중하게 제기된 적은 일찌기 없었습니다. 우리 선조 때에는 그의 제도가 락후한 봉건 사회이였기 때문에 큰 공장, 기업소들의 건설이 있을 수 없었고 따라서 로력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제기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우리 나라를 통치할 때에도 역시 그러하였습니다. 왜냐 하면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민족적 공업들이 발전될 수 없었고 그들의 식민지적 통치로 말미암아 도시와 농촌에 수많은 실업자들이 방황하게 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일제는 조선에서 자기의 식민지 공업 건설에 로력의 부족을 느끼지 않았으며 기계화하지 않고도 눅은 값으로 얼마든지 로동력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는 조선에서 현대적 생산 시설이 요구되지 않았으며 아주 야만적인 착취 방법으로 우리 조선 사람들을 노예와 같이 부려 먹었습니다.

또한 이때 일본 사람들은 생산 시설을 현대적 기계화를 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계화할 능력도 가지고 있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八·一五 해방후 평화적 건설의 五년간에는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파괴한 공장들을 복구하는 정도이고 새로이 많은 공장들을 건설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에는 전쟁에 의한 공장과 문화 시설 및 주택의 파괴가 적은 조건하에서 오늘과 같이 많은 건설들이 요구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로력 부족 문제도 크게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더우기 이 시기에는 우리가 일제의 락후한 식민지적 공업을 넘겨 받은 조건에서 건설에서 기계화할 능력도 없었습니다. 한 마디로 말한다면 평화적 건설 시기에 있어서는 오늘과 같은 로력의 부족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 때의 건설 템포로서는 로력이 충분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三년간의 가혹한 전쟁을 겪은 오늘에 와서 우리는 전쟁에서 적지 않은 수의 로력자를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 정전일 따름이고 아직 완전한 평화가 달성되지 못하고 있는 조건하에서 특히 공화국 남 반부에서는 미제와 그의 졸도 리 승만 역도들이 전쟁 도발에 발광하고 있는 것만큼 계속 필요한 수의 청 장년들을 국방에 배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전쟁에 의하여 파괴된 방대한 인민 경제를 급속히 복구 건설하려니까 불피코 건설 로력의 부족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로력 문제가 오늘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심각히 인식하여야 됩니다. 특히 금년에 와서 로력 문제는 더욱 엄중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전후 얼마 동안은 주로 파괴된 공장을 복구 건설하는 데 로력을 집중하였다면 오늘에 와서는 복구 건설 뿐만 아니라 이미 많은 공장들이 일부 혹은 완전히 복구되여 대량적 생산에 들어 가고 있는 조건에서 로력의 수요는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얼마 전까지 로력을 포치하는 중심 방향은 복구 건설이였다면 오늘에 와서는 생산과 건설이 병진하는 조건에서 복구 건설에 뿐만 아니라 생산에도 막대한 로력을 배치하여야 하게 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인민 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계속 증대되는 건설의 량은 많은 로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로력이 나올 원천이 극히 제한되여 있습니다. 발전하는 산업에 로력을 공급하여야 할 농촌 형편을 봅시다. 오늘 국가에 요구되는 식량을 충족하기 위하여서는 농촌에서 산업에 로력을 진출시키기는 고사하고 농업 자체만으로도 로력이 대단히 부족되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과 정부는 농업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키고 있으며 농촌 경리를 사회주의적으로 개변시키기

위한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면서 농촌에다 작년부터 제대 군인 및 기타 적지 않은 로력들을 포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 공업과 농업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중요한 대책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오늘 농촌의 로력 문제가 다 해결되는가 하면 그렇지도 못합니다.

그것은 상당한 시간이 요구됩니다. 이것은 농촌에서 사회주의적 협동화가 더욱 확장되고 로력 사용의 합리적 조직이 실행되며 농업 기계화가 초보적이나마, 다시 말하면 소기계화 정도라도 광범히 도입되는 조건하에서만이 완전히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력의 원천이 있는가 하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민 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우리 당과 정부 앞에 가장 중요하게 나서고 있는 것은 로력 문제이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로력의 합리적 조직과 기계화로써 로력을 절약하며 특히 건설 부문의 로력을 절약하여 증대되는 생산 기관에 돌리며 확대되는 건설에 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생산과 건설의 속도를 촉진할 수 없으며 인민 경제의 발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건설에서의 기계화는 현대적 건설을 보장하며 부족되는 로력을 충족시키기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힘든 로동을 쉽고 문화적으로 개선하는 데도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우리는 힘든 인력 로동에 계속 매여 달려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빨리 벗어 나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타개할 수 있는가?

물론 우리들은 타개할 수 있으며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이 문제의 중요성에 대하여서는 이미 당과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본 회의에서 박 의완 부수상이 보고하였으며 여러 동지들이 자기 토론에서 그의 집행을 위한 많은 의견들을 제기하였습니다.

二、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이미 一九五四년 三월 二六일에 개최되였던 건설자 대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기하였던 문제를 다시 상기시키려고 합니다. 그 때에 우리는 건설 템포와 건설의 질을 높이는 데 기본 방향으로 되는 설계의 표준화와 규격화, 건재 생산의 공업화, 건설의 기계화 등 쏘련의 선진적인 건축 경험을 도입할 것을 호소하면서 『쏘련을 향하여 배우자!』라는 과업을 제기하였습니다.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제六차 전원 회의 결정에도 건설에서 기계화를 중요한 과업으로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동안 이와 같은 선진적 방법을 충분하게 배우지 못하였고 실행하지도 못하였습니다.

물론 그 때에는 배우자고 하였으니까 배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배우지도 않고 하여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없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오늘에 와서는 배우자는 단순한 구호 대신에 적극적으로 배우며 적극적으로 실천하자는 문제를 제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쏘련의 선진적 건축 경험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로력을 절약하고 로력을 합리화시키는 길이며 증대되는 건설을 능히 보장할 수 있고 건설 템포를 더 촉진시키며 인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가? 물론 할 수 있습니다. 벌써 설계의 표준화, 건재 생산의 공업화, 건설의 기계화를, 비록 완전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부 초보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토론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표준 설계에 의하여 건물들을 건축하니 편리하다고 하였고 다층 건물 층층 다리도, 트라스 붓장도 표준 설계에 의하여 쎄멘트로 만들어 사용하며 문짝같은 것도 동일한 규격에 의하여 다량 만들어 리용하니 편리하고 분산된 목공장도 집중하니 좋고 타일 붙이는 것도 조립식으로 하여 보니 좋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우리가 설계의 표준화, 건재 생산의 공업화, 건설의 기계화를 능히 할 수 있다는 근거로 됩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에 와서 선진적 건축 방법을 능히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는 우리에게 경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들이 보장되고 있는 데 있습니다.

一九五三년도나 一九五四년도에는 우리들이 아무리 선진적 건축 방법으로 사업하려고 하여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에는 벽돌도, 쎄멘트도, 철근도 매우 부족하였고 기계도 대단히 부족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일정한 기계 공장도 있고 벽돌도, 철근도, 쎄멘트도 생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쏘련과 중국을 비롯하여 기타 많은 형제적 국가들로부터 원조품을 받고 있으며 그들의 기술적 원조에 의하여 건설되는 많은 공장들과 도시 건설 등을 통하여 선진적 건축 방법을 우리는 직접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선진적 건축 방법인 설계의 표준화와 규격화, 건재 생산의 공업화, 건설의 기계화 등을 원만히

하자면 어떻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一、설계의 표준화와 규격화에 대하여

설계의 표준화와 규격화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은 우리 나라와 같이 설계 일군들이 부족되며 건설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 적은 조건하에서 설계의 표준화와 규격화가 더우기나 필요합니다.

설계를 표준화하고 규격화하면 시공하기도 쉽고 로력도 절약되고 건재도 공업화할 수 있습니다. 례를 들면 이전에는 매개 집마다 목수가 따라 다니면서 문틀을 재고 그에 알맞게 문을 짜 달았다면 오늘 설계를 표준화하고 규격화하는 조건하에서는 동일한 규격의 문들을 다량적으로 만들어다가 달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은 건축물의 질을 높이고 건설 속도를 촉진시키며 적은 기능자로 많은 사업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설계의 표준화와 규격화는 개별적인 공장、특별한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많은 건축들、그 중에서도 특히 주택、공공 건물、구락부、학교、진료소、병원、극장、공장의 동일한 부대 시설들의 건설에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오늘 쏘련에서도 실행하고 있고 다른 민주주의 나라에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방대한 건설을 하는 조건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설계 일군들이 부족한 조건에서 어떻게 우리들이 매 건축물마다 일일이 설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건설에서 설계의 표준화와 규격화를 법칙으로 인정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없이는 우리 나라 건설의 템포를 빨리할 수 없고 건설의 질을 제고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건설의 공업화를 위하여 우선 표준 설계부터 시작하여야 하겠습니다。

설계를 표준화하고 규격화하는 조건하에서만이 반드시 건재 생산을 공업화할 수 있고 공업화된 건재를 시공하는 데도 기계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만이 우리에게 대량적으로 요구되는 건설을 보장할 수 있고 특히 건축물의 원가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설 원가를 저하시키는 조건에서만이 더 많은 건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설계는 반드시 진보적인 사회주의적 내용을 가져야 합니다。

설계에서 선진적인 진보적 건축학이 요구하는 것은 민족적 형식에다 사회주의적 내용을 부여하는 그것입니다。

건축학에서 사회주의적 내용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 마디로 말한다면 인민들에게 관심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건축물들이 근로 인민들의 요구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많은 설계 일군들은 설계에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를 표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오늘 공화국 북 반부에서 사회주의 기초를 건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가 건설하고 있는 주택이라든지 모든 공공 건물들은 모두가 사회주의 건설자들이 사용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회주의적 내용이 부여되지 않은 건축물들을 어떻게 근로자들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아직까지도 우리 일부 건설 일군들은 건설에서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를 입으로만 떠들지 사실상 건축 예술에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에 립각하여 설계를 하는가 하면 그렇지 못합니다。

많은 건물들을 가 보면 겨울에는 뻬치카가 잘 피지 않고 채광이 좋지 못하거나 통풍이 잘 되지 않아 근로자들의 생활에 적지 않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 일부 설계 일군들의 설계에 사회주의적 내용이 없으며 로동 계급적 계급성이 부족한 데로부터 발로된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일부 설계 일군들이 낡은 부르죠아 사상 관점에 사로잡혀 가지고 로동자들에게는 되는 대로 하여 주어도 좋다는 비계급적 태도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과 철저한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엄중한 것은 건축에서 자본주의적 형식주의가 남아 있는 그것입니다。 쓸모양은 하나도 없고 겉다듬만 잘 하여 놓은 이와 같은 건축물들은 속담에 있는 바와 같이 『빛 좋은 개살구』와 같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자본주의적 건축 형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과도 강하게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회주의적 건설자이지 자본주의적 건설자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보기도 좋고, 쓰기도 좋고, 내용도 좋은 사회주의적 건축물이 요구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건설자들은 모두 다 사회주의 사상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자답게 근로 인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건설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주택 설계에 있어서는 지금과 같이 조잡하게 하지 말고 근로 인민들의 생활에 편리하게 쓸모 있고 조선 사람의 풍속 감정에 알맞게 하며 채광도 좋고 통풍도 잘 되고 난방도 잘 되고 모든 것이 편리하게 되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근로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고 또 위생 조건이 좋은 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어떤 일군들은 이러한 건물이 우리 근로자들에게는 너무나 과한 것같이 생각하는 옳지 못한 현상들까지도 있는 모양입니다.

공공 건물에 있어서도 역시 그러합니다.

우리가 건설하는 많은 공공 건물들을 가 보면 그의 시설이 매우 불비합니다.

우리가 건설하는 공공 건물들은 근로자들의 편리에 만족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최저한의 요구이고 더 적극적인 요구는 매개 공공 건물들이 근로자들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할 수 있는 교양적 의의를 가지는 그러한 건물들로 되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부 공공 건물들은 자동차 창고와도 같이 만들어진 것이 있으며 또한 어떠한 것은 현관이나 크게 달고 쓸모양은 전혀 없이 건설된 것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극장이나 구락부 하나 짓는 것을 대단치 않는 늑거리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된 건물은 근로자들의 편의를 보장할 수 없으며 더우기는 그들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할 교양적 의의를 가질 수 없는 것은 명백합니다.

또한 건설에서 중요한 문제는 공동 식당, 세탁소, 탁아소 등 공공 건물들을 옳게 또는 많이 건설함으로써 녀성들을 사회주의 건설에 인입하는 것입니다.

특히는 매개 사람들이 사회주의 건설자답게 살며 이러한 사상으로 개조되게 하며 누구나 다 사회주의 건설에 복무할 수 있게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다음으로 공장 건설에 있어서도 아직까지 잘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장들은 근로자들의 학교이며 그에서 일생, 더 나가서는 대대로 내려 가면서 창조적 로동으로 보낼 위대한 생활처입니다. 그러나 우리 건설자들은 이에 대하여 관심이 아직 부족합니다. 공장이 로동자들의 생활처로 되자면 채광이 잘 들고 통풍이 좋고 위생 시설이 구비되고 안전하게 되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일부 공장은 이와 같은 조건들이 구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설계에서 랑비와 투쟁하는 문제입니다.

자본주의적인 건축 예술에 있어서는 쓸 데 없는 간판 놀음으로 수다한 자재와 재정을 랑비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방법으로 건설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설계는 형식주의를 반대하면서 경제적으로 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건설의 질을 높일 수 있고 근로 인민들을 잘 살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 건설 계획도 광범한 근로 인민들의 편리를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二、건재 생산의 공업화에 대하여

건재 생산의 공업화는 건설에서 중요한 문제로 제기됩니다. 설계의 표준화를 하려면 건재 생산도 공업화하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조건에서 건재 생산의 공업화는 큰 것보다도 간단한 것으로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다른 것은 그만두고라도 문짝, 문틀부터 시작합시다. 또한 층대, 봇장, 층막, 트라스같은 것도 콩크리트로써 그 생산을 공업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건재 생산의 공업화입니다. 건재 생산의 공업화에 대하여서와 건재 공장에 기계를 설치할 데 대한 문제에 대하여 많은 동무들이 토론하였습니다. 물론 좋은 토론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단꺼번에 큰 기계의 설치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우선 분산된 공장 시설들을 집중하며 수공업적 방법을 점차 공업적 방법으로 개변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건재 생산을 공업화하여야만 건재를 건설장들에 많이 공급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질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도 우리는 직접 시험하여 보았습니다. 평양에 있는 몇 개 사업소들에서 간단하게 소규모적으로 실시하여 보았는 데 성과들은 다 좋습니다.

우리는 철근 콩크리트 공장을 많이 건설하여야 하겠습니다.

사실에 있어서 이러한 철근 콩크리트 공장도 신기한 것은 물론 아닙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것들을 다 할 수 있으며 또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형편에서는 큰 것보다도 적은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설 기계 전람회에 내 놓은 교통성 산하 서평양 철도 공장에서 만든 콩크리트를 이기는 직장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우리들은 콩크리트 공장 건설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소규모적 방법으로써라도 집중적으로 건재를 생산하여 건설 사업에 리용한다면 대단한 로력을 절약할 수 있으며 건설 템포를 빠르게 하며 건설의 질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쏘련에서처럼 건설을 모두 조립식 철근 콩크리트로 하지는 못한다 하여도 그 일부만이라도 공업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건재 생산의 공업화를 위한 현대적 설비가 없다면 우선 소규모적 방법으로라도 그를 집중적으로 생산하는 것은 분산되여 제가끔 생산하는 것보다 나은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철근 콩크리트 공장을 앞으로 많이 만들어야 할 것은 사실입니다.

함흥에 건설되는 五만톤의 생산 능력을 가진 철근 콩크리트 공장과 평양에 건설되는 四만 五천톤의 능력을 가진 철근 콩크리트 공장은 금년부터 그 건설에 착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만을 기다리지 말고 우선 지금 교통성이나 혹은 건설성 산하 트레스트에서 하는 방법이라도 많이 리용하여 콩크리트 직장을 도처에 설치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목제 가구 제작에 있어서도 목수들을 분산시키지 말고 집중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여러 동무들과 담화한 결과에 의하면 자갈 채취에 있어서도 공업화를 할 수 있으며 자갈을 추고 고르는

것도 공업화할 수 있고 그 운반도 기계화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지금같이 자갈, 모래를 제가끔 채취할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트레스트를 조직하여 생산시킨다면 많은 로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초보적인 방법까지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업에서 이와 같은 무창발적인 현상을 퇴치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건재 생산에서 중요한 것은 앞으로 건축 재료로 쎄멘트를 광범하게 리용하는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들에게는 쎄멘트가 그리 풍부하지 못하지만 앞으로는 이것이 풍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목재나 철재보다 쎄멘트가 더욱 풍부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나라에 석회산이 도처에 있고 쎄멘트 공장을 더 많이 건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건설에서 쎄멘트로 목재를 대용하고 철재를 대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쎄멘트로 침목도 대용하고 전주도 대용하고 갱목도 대용하고 철교 가다도 대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쏘련과 같이 목재나 철근이 풍부한 나라에서도 금속과 목재를 극력 절약하고 철근 콩크리트로 대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목재도 금속도 풍부하지 못한 조건에서 이것을 왜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건재 생산 공장에서는 철근 콩크리트 제품들을 대량적으로 생산하는 방향으로 대담하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건재는 건설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우리는 오늘 건재를 충분히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건설을 충분히 할 수 없고 일부 건설장들에서는 건재 부족으로 건설을 중단하고 있는 현상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목재, 철재, 벽돌들이 부족됩니다. 그러므로 건재의 대량적 생산을 위하여 건재 공업을 더욱 기계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재 공업을 보면 아직 락후합니다. 우리들은 과거 건재 공업에 주의를 적게 돌리였고 투자도 적게 하였습니다. 일부 동무들은 건재를 생산하는 것은 대단히 쉬운 일로 알며 벽돌을 생산하는 것은 『로』를 만들고 흙을 빚어 넣으면 거저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기술이 요구되며 예술이 요구됩니다.

우리는 작년도에 이 결함을 알고 이에 관심을 돌리게 되였으며 금년도부터는 이 부문에 투자도 증가하게 되였

습니다.

또한 건재 공업에 있어서 건재 운반을 기계화하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벽돌 운반에 대한 실례를 들어 봅시다.

이것은 여러번 이야기하는 문제인 데 계속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남 요업 공장에서 평양의 건설장까지 벽돌이 운반되는 과정을 실례로 들 수 있습니다.

만약 벽돌 운반용 철 광주리나 만들고 부두에다가 기중기나 설치한다면 「로」에서 나온 벽돌을 철 광주리에 담아 밀차에 싣고 부두까지 나가서 그것을 기중기로 배에 싣고 평양에 올라온 다음에도 배에서 그대로 기중기에 달아 올려 자동차에 실어가지고 운반한다면 아주 적은 로력으로 간단하게 벽돌을 건설장에까지 운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형편은 『로』에서 나온 벽돌을 등짐으로 운반하여 자동차에 싣고 그것을 부두에 부리우고 또 그것을 등짐으로 다시 운반하여 배에 싣고 평양에 와서 다시 등짐으로 부리우고 그것을 또 다시 자동차에 적재하여 건설장에 나르고 건설장에서는 다시 벽돌공에게 등짐으로 지워 나릅니다.

이와 같이 벽돌을 여러번 부리우고 싣고 하는 데서 수다한 벽돌들이 파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백년전 우리 조상들이 하던 락후한 작업 방법입니다. 어찌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우리들이 오늘 이러한 방법으로 작업할 수 있겠습니까.

벽돌 운반을 기계화하는 데 필요한 삐오넬 기중기는 우리 나라에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 중앙 위원회는 벌써 이 문제를 제기한지 오랩니다. 우선 강남 요업 공장에서라도 실천하라고 하였습니다. 벽돌 운반용 철 광주리를 만들라고 했더니 시험 제작품이라고 한 개 만들어 가지고 내각 청사 마당에 끌고 왔다 갔다 하더니 최근에는 소식조차 없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건재 생산에 무관심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건설과 생산에서 로력을 랑비할 뿐만 아니라 건재 운반에서도 막대한 로력이 랑비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재 공업 부문 일꾼들은 건재 운반의 기계화를 중요 과업으로 실천하여야 할 것입니다. 룡성 기계 공장 지배인은 어제 자기 토론에서 자기들에게 벽돌, 쎄멘트를 먼저 주어야 기계를 줄 수 있다고 하였지만 나의 생각같애서는 기계 공장들이 먼저 좋은 기계들을 생산하여 건재 공업에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야 급속한 기간내에 많은 건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건재 공업에 더욱 중점을 두어야 하며 건재 생산의 공업화를 위하여 더 힘써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설에서 지방 자재를 광범히 동원 리용하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 동지들의 토론에 의하면 지방 자재를 잘 리용하지 않으며 자재를 번번히 역수송하는 등 옳지 못한 현상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우리의 건설 규모로 보아 지방 자재를 광범히 동원 리용하는 것은 극히 중요합니다. 어떤 동무들은 멊어 놓고 벽돌 집만 짓자고 합니다. 이것은 사상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어떤 동무들은 토벽돌로 지은 집은 림시 주택이라고 하고 벽돌로 지은 집이라야 영구 주택이라고 합니다. 술어의 해설이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리해하건대는 영구 주택이라는 것은 그의 수명이 오래 가는 것이고 림시 주택은 그의 수명이 짧은 것을 의미하는 것같습니다. 그런데 토벽돌 집도 벽돌 집과 못지지 않게 오래 가게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구식 주택은 벽돌로 지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농촌이나 광산에다도 벽돌 집을 지을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자재를 리용하지 않은 또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는 어제 토론한 동무가 좋은 실례를 들었는 데 그의 말에 의하면 룡강에서 건물 기초 공사를 위하여 벽돌을 실어 들이고 그 대신에 거기에서 캐 낸 좋은 돌들은 실어내간다 합니다. 건물 기초를 쌓는 데 벽돌이 더 좋은 리유는 어데 있습니까? 벽돌보다 돌이 나쁘다는 그 리론적 근거는 어데에 있습니까?

이러한 근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건물 기초에는 면 데서 실어 들이는 벽돌보다는 그 자리에서 캐 낸 석재가 더욱 좋을 것입니다. 이것은 책상 머리에 앉아서 국가 사업을 희롱삼아 하는 관료주의자들 외에는 이렇게 할 사람은 없습니다.

지난 해 나는 九九호 기계 공장에 갔는 데 그 공장 주변에는 도시에서는 구하려고 하여도 구하기 어려운 좋은 화강석들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이러한 화강석은 석재가 귀한 나라에서는 귀중한 건설을 위하여 몇 만리 떨어진 면 곳에까지 가서 가져 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장에서는 공장을 건설하느라고 파 내온 많은 석재를 전부 취여 뿌리고 평양에서 벽돌을 실어다 주택을 건설할 것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공장 지배인에게 벽돌을 쓰는 것과 돌을 쓰는 것이 어느 것이 더 유리하고 원가가 적게 드는가고 물었습니다.

지배인은 벽돌을 쓰는 것이 공장측으로 보면 리익이고 국가적으로 보면 돌을 쓰는 것이 리익이 될 것같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공장은 국가에서 떨어진 기관입니까? 우리 공장들은 다 국가에 속한 기업체입니다. 그렇다

면 공장 지배인은 어떠한 경제 타산을 할 때에도 공장과 국가를 분리시켜서 할 것이 아니라 항상 국가와 련관시켜서 생각하여야 하며 국가적 립장에서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벽돌을 쓰는 것이 공장에서 리익이라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돌 집을 짓기보다는 일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벽돌은 돈 주고 사 오는 것이고 돌은 거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니까 그 때에야 돌을 쓰는 것이 리익이라고 솔직히 대답합니다。 이와 같이 이들에게는 지방 자재를 리용할 관심이 없습니다。

곡산과 같은 산골 광산같은 곳에서까지도 벽돌 집만 지으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하면 주택 원가가 대단히 높아질 것입니다。

왜 이런 곳에는 돌이나 토벽돌 집을 지을 수 없게는가?

강계 일대를 보더라도 평양에서 벽돌을 운반하여다가 벽돌 집만 지으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국가적 타산이 없이 지방 자재를 리용하지 않고 거저 벽돌만 요구합니다。

여러분! 지방에서 토벽돌을 생산하는 것이 무엇이 나쁘며 건물의 기초를 돌로 하고 토벽돌로 집을 짓는다면 벽돌 집보다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은 지방 자재의 광범한 리용을 중대한 과업으로 인정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광범한 대중적 건설 운동을 전개할 수 없으며 또 이렇지 않고서는 건설 사업을 단시일내에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토벽돌、돌 등의 지방 자재를 리용하여 군 소재지들의 공공 건물、학교、보건、문화 시설들을 건설하는 운동을 광범히 전개하여야 하며 또한 이러한 방법들을 인민들에게 교양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금년도에 국가 자재로 건설하는 건설 조립액 이외에 광범한 대중 운동에 의한 약 六억원에 해당하는 건설 공사를 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공사들은 지방 자재、즉 토벽돌이나 석재들을 리용하여 건설할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야만 군 소재지도 건설될 수 있고 농촌들과 로동자 구들이 빨리 일어 설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각 결정에는 개인 농민들 뿐만 아니라 로동자、사무원들에게까지도 국가 대부를 주고 자재를 자체로 생산하거나 또한 일부는 자재까지도 국가에서 주고 주택을 건설할 것을 허락할 뿐만 아니라 장려합니다。

또 이렇게 하여야 능히 많은 집을 지을 수 있고 우리의 건설을 촉진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三、건설의 기계화에 대하여

이것도 오늘에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누구든지 기계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다 좋다고 할 것이며 나쁘다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계화를 할 데 대한 관심은 부족합니다。

우리는 오늘 대기계화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부분적인 것、소규모적인 것으로부터 시작합시다。 등짐으로 운반하는 것을 밀차로 고치는 것도 일종의 기계화입니다。 왜냐 하면 밀차는 등짐보다는 선진적이며 능률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반적으로 기계화할 수 없으면 부분적으로라도 기계화하여야 하며 락후한 것으로부터 선진적인 것에로、수동적 방법으로부터 소발동기에로、다음에는 자동식 방법에 이르기까지 이행하는 방법으로 건설과 생산에서 기계화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야만 로력을 절약하며 로동의 문화성을 제고하고 생산 능률을 제고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기계를 합리적으로 리용하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통계를 보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계는 적지 않습니다。 전전에 비하면 우리는 지금 적지 않은 기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후 쏘련과 기타 형제적 국가들로부터 많은 건설 기계들을 받았습니다。 우선 이것을 옳게 분배하고 쓸 사람이 쓰도록 옳게 조직하고 쉬우지 말고 기계의 가동률을 제고하여야 합니다。

보고에 의하면 대부분의 건설 기계들이 한 교대 작업을 한다고 하는 데 이것조차 제 시간을 충분히 가동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건설 기계가 부족되는 조건에서 왜 三교대나 二교대 작업을 하지 못하겠습니까?

이것은 이 부문 일군들의 사상 문제입니다。 때문에 현유 기계를 합리적으로 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가지고 있는 기계들을 최대한으로 리용할 뿐만 아니라 수리소를 옳게 정비하고 부속품을 제때에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부속품도 주지 않고 기계도 제때에 수리하여 주지 않기 때문에 작업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기계에 대한 필요한 검열 제도도 없습니다。 쓰다가 고장만 생기면 수주일씩 돌보지도 않고 덮어 둡니다。

이것은 국가와 인민에 대한 큰 죄악입니다。

때문에 기계를 애호하며 부속을 제때에 제작하여 주며 기계의 수리소도 만들고 제때에 수리 점검 사업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소건설 기계들을 다량적으로 제작하는 문제입니다。 경험에 의하면 선반기나 절삭기가 있는 공장에서는 다 소 건설 기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일부 일꾼들은 이런 작은 기계는 만들려고는 하지 않고 잘 만들 수도 없는 큰 기계만을 만들려는 좋지 못한 경향이 있습니다。

례를 들면 관개 관리국에서 큰 뽐프를 생산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관개 관리국장에게 뽐프 생산은 그만 두고 관개 공사에 필요한 밀차나 많이 만들면 얼마나 좋겠는가고 충고하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큰 뽐프는 기능 수준도 높고 전문화된 기계 공장에서 만들고 있으며 또 여기서 만든 것이 질적으로 더욱 좋기 때문입니다。 큰 뽐프를 만드는데 전문화된 공장에서 一〇공수로 하나 만든다면 관개 관리국같은 데서는 一〇〇공수로도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개 건설 기관들은 기계를 생산한다 하여 아무데나 함부로 달려들 것이 아니라 자기 능력에 알맞고 자기들에게 필요한 극히 간단한 기계들로부터 대량 생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은 건설 공사를 기계화할 수 있는 간단한 밀차 생산으로부터 시작하여 권양기、혼합기、삐오넬 기중기 등 가능한 모든 것을 생산합시다。

따라서 기계 공업국과 제一국 기업소들에 건설 기계 계획 과제를 려 주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 계획 위원회는 이것을 조직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 우리는 건설 사업에서 기계화를 확장하여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쁜 데 이만하고 그만두자고 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는 사회주의를 건설하지 말자는 소극 분자입니다。 우리는 이런 자들과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바쁘더라도 하여야 할 사업은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인민들의 생활 수준을 높일 수 없으며 우리의 도시 면모를 개변할 수 없으며 사회주의

적 기초를 축성할 수 없고 따라서 사회주의 국가로 개변시킬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곤난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곤난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三、

이외에도 로력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며 온갖 로력 랑비와 적극적으로 투쟁하여야 합니다。 로력을 합리적으로 조직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조직 형태에 존재하는 결함들을 제거하여야 합니다。

지금 일부 건설 부문 일꾼들은 『트레스트병』에 걸리고 있습니다。 아마 청진 사람들이 이 병에 걸린 것같은 데거기에 해당한 약을 한 봉지 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트레스트병』을 고쳐 줍시다。 우리는 분산된 트레스트를 통합하며 또 쓸 데 없이 분산된 자갈 채석장도 합리적으로 통합할 것입니다。

각 기관들이 제가끔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사업소들도 합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건설 사업에서 기관 본위주의로 나아가는 경향과도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기업소들을 합리적으로 통합함으로써 로력의 랑비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 부문 간부들을 고착 육성하며 로동자、기술자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제고하며 로동자들의 류동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조월 공사 제도를 반드시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건물 건설에서 조월 공사 제도가 필요합니다。

조월 공사 제도는 로동자들을 고착시키며 그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서도 필요합니다。 특히 로동자들이 다각적 기능을 가지게끔 하고 또 그들의 부양 가족들까지 생산에 적극적으로 인입할 수 있는 대책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농업 협동 조합같은 데서도 부대 로력을 광범히 리용하는데 건설 직장이라고 리용하지 못할 리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건설 부문에 있어서도 공수 도급제를 광범히 실시하여 부대 로력들을 광범히 리용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온갖 대책으로 건설 부문에서만 하여도 금년도에 년 평균 二만 내지 二만 五천의 로력을 절약하여

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각 부문별로 조사한 결과 큰 기계화도 없이 현존 로력 조직을 합리적으로 하는 것으로만 하여도 二만명은 결정적으로 절약할 수 있고 만일 소기계화를 일부 실시한다면 二만 五천명의 로력은 아무 문제도 없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로력 절약을 장려하기 위한 자극을 주기 위하여 절약한 정원에 해당한 로임은 로동자들의 상금으로 제정할 것입니다.

만일 一〇〇명으로 하게 된 공사를 八〇명으로 하였다면 二〇명분의 로임에 해당한 금액을 八〇명에게 상금으로 주도록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로동자 자신들에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아주 유익합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더 언급할 것은 첫째로 자재를 절약하는 문제입니다.

당은 이에 대하여 여러번 호소하였습니다.

발전되는 건설 규모에 비하여 자재의 수효는 부족합니다. 때문에 자재에 대한 강한 통제와 절약 운동을 광범히 전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못 하나, 파벽돌 하나 할 것없이 모두 다 리용하는 원칙을 수립하여야 하겠습니다. 많은 공장들, 즉 목재소, 제철소, 제강소, 기계 공장들에서는 잔여물들을 리용하기 위한 부속 직장을 건설하고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들, 즉 나무 쪼박, 톱밥, 쇠 쪼박같은 것도 랑비하지 말고 건설에 다 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둘째로 건설 부문에서의 독립 채산제에 대하여 언급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특히 강조할 것은 직장 내부의 독립 채산제는 로동자들의 리해 관계와 결부되고 그들의 생산적 열성을 자극하는 방향으로 강화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계약 제도도 강화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와 같은 사업에는 불원만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설 기관의 독립 채산제가 옳게 되지 못하므로 건설의 위탁 기관과 건설 주간의 명확한 책임 한계들도 없고 기업소의 재정 활동에서도 적지 않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독립 채산제와 계약 제도를 강화하는 일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세째로 건설 기관 기업소 일군들에게 로동 계급 사상을 제고할 데 대하여 몇 마디 지적하려고 합니다. 이상에

서 지적한 모든 문제를 옳게 수행하자면 건설 기관 기업소 전체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과 지도 일군들이 당중앙 위원회 四월 전원 회의에서 지적된 바 계급적 사상으로 무장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 건설자들인 우리 건설 일군들이 사회주의 사상으로 무장되지 않고서 어떻게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있겠습니까.

동무들은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사회주의 건설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동무들은 사회주의적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를 건설한다고 하면서 자본주의나 락후한 봉건 사상을 가지고 출발한다고 하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주의자이며 사회주의 건설자인 것만큼 응당 사회주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합니다. 현재 여기에서 주요한 방해물은 락후한 봉건적 보수주의 사상인바 이를 반대하여 우리는 투쟁하여야 합니다. 지금 보수주의 사상은 도처에서 발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진하며 진보하는 것을 가로 막고 있으며 새롭게 발전하는 일꾼들을 뒤로 끌어 당깁니다. 이것을 청산하여 버리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입으로는 사회주의를 부르짖고 행동은 락후한 봉건적 혹은 자본주의 사상으로 사업하거나 일제 시대의 종노릇하던 태도를 가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국가의 주인이요, 사회주의 건설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자본주의적 형식주의, 사업에서의 관료주의 등 일체 불순한 경향과 투쟁하여야 합니다. 특히 인민에게 반대되는, 즉 근로 인민을 위하지 않고 근로 인민에게 해독을 주는 반동적인 사상과 투쟁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는 끝으로 본 회의를 통하여 사회주의 기초 건설을 위한 방대한 건설 사업의 승리적 보장을 위한 투쟁에 있어서 전체 건설자들,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이 오늘 새로운 방법으로 건설 사업을 혁신할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의 실천을 위하여 총동원할 것을 호소합니다.

나는 동무들이 이것을 충분히 실행하리라는 것을 굳게 확신합니다.

쏘련 공산당 제二〇차 대회

쏘련 공산당 제二〇차 대회는 쏘련 공산당 및 쏘련에서의 공산주의 건설의 력사에서와 그리고 국제 공산주의 운동 및 로동 운동, 진보적 인류의 자유와 평화를 위한 운동의 력사에서 특별한 의의를 가진다.

쏘련 공산당 제一九차 대회 이후 오늘에 이르는 약 三년 반이라는 기간은 쏘련 공산당이 수행한 사업의 량으로 보나 쏘련의 국내 및 국외에서 일어난 사변들의 의의로 보나 쏘련 공산당의 력사에 있어서와 또 쏘련 인민의 력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의 하나로 된다.

이 기간은 쏘련 인민 경제의 부단한 장성, 쏘베트 사회 및 국가 제도의 가일층의 공고화, 인민의 물질적 복리의 가일층의 향상, 쏘베트 문화의 전면적인 발전으로써 특징지어지며 또 세계 사회주의 력량이 어떠한 힘으로도 저지시킬 수 없는 강력한 력량으로 장성 공고화되면서 있는 것으로써 특징지어진다.

대전후 오늘 처음으로 국제 긴장 상태에는 일정한 완화가 달성되였으며 구라파와 아세아의 一五억 주민들을 포괄하는 광대한 『평화 지대』가 형성되였으며 쏘련을 선두로 하는 사회주의 진영과 전 세계 평화 력량은 불패의 력량으로 장성 공고화되였으며 쏘련의 위력과 위신은 미증유로 제고되였다.

쏘련 공산당 제二〇차 대회는 지나간 제一九차 대회 이후 쏘련의 대외 및 국내 정세에 대한 심오한 맑스—레닌주의적 분석을 주었고 당 사업과 당의 령도하에 쏘련 인민이 달성한 성과들에 대한 철저한 총화를 주었으며 당과 쏘베트 인민 앞에 새로운 거대한 과업들을 제시하였으며 쏘련 인민과 전 세계 진보적 인류의 앞으로의 투쟁과 승리에 대한 새로운 전망을 비여 주었다. 이로써 대회는 쏘베트 인민의 력사에서와 평화, 민주주의 및 사회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전 세계 선진적 인류의 력사에 새로운 빛나는 페지를 열어 놓았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형제적 공산당, 로동당들과 진보적 인류들, 전 세계 피압박 피착취 인민들은 쏘련 공산당 제二〇차 대회에 열렬한 축하와 환영을 보냈으며 대회에서 새로운 기대와 전망을 얻었다.

쏘련 공산당이 령도하는 쏘베트 군대에 의하여 해방되였고 쏘련 인민의 시종일관한 형제적 원조하에 새 조국을 창건하고 수호하였으며 오늘 전후 인민 경제 복구 건설과 북 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기초 건설의 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조선 인민에게 있어서, 더우기 오늘 자기의 향도적, 지도적 력량인 조선 로동당의 력사적 제三차 전 당 대회를 앞둔 조선 인민에게 있어서 쏘련 공산당 제二〇차 대회는 더욱 의의 깊은 사건으로 된다.

대회에서의 흐루쑈브 동지의 보고는 당 중앙 위원회 사업과 모든 당 사업들의 기본 방향을 반영하였으며 당 지도 사업에서의 레닌적 작풍의 전형, 새 것에 대한 민감성, 탐구적인 창조적 정신과 창발성, 결합에 대한 비타협성을 반영하였다.

대회의 보고를 청취하며 의정의 제 문제를 토의하고 결정들을 채택하며 지도 기관들을 선거함에 있어서 대회는 동일한 사상을 가진 공산주의자들의 전투적 동맹으로서의 당의 통일, 중앙 위원회의 주위에의 전 당의 결속, 중앙 위원회의 지도에 대한 전 당의 무한한 신뢰를 유감없이 시위하였다. 중앙 위원회 사업에 관한 총결 보고에 대한 토론에서 대회 대표들은 전체 당원들과 쏘련 근로자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당 중앙의 정책의 영명성과 정확성, 그의 실제 활동의 성과들에 대하여 감동적으로 지적하였다. 만장 일치로 채택된 결정에서 대회는 중앙 위원회의 정치 로선과 실제 사업을 승인하였다.

흐루쑈브 동지는 자기 보고에서 현 국제 정세와 지난 기간에 있은 세계사적 변동들에 대한 심오한 맑스—레닌주의적 평가를 주었으며 쏘련 공산당과 형제적 공산당, 로동당들 및 국제 로동 운동에 의하여 촉진된 새로운 경험들을 총화하고 모든 나라 인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가장 절실한 국제적 문제들에 대하여 확답을 주었다.

사회주의, 민주주의의 진영과 반민주주의, 제국주의의 진영의 형성, 두 체계의 공존, 자본주의 체계의 부단한 약화와 사회주의 체계의 부단한 장성——이것은 제二차 세계 대전 이후 시기의 기본 특징으로 된다. 제一九차 당 대회 이후 제二〇차 대회에 이르는 기간에 쏘련과 중화 인민 공화국을 선두로 하는 사회주의 진영과 전 세계 평화 진영은 더욱 현저한 장성을 뵈였으며 반면에 제국주의의 전쟁 진영은 가일층 약화되였다. 사회주의, 민주주의의 진영과 평화 애호 력량과 민족 해방 운동 력량의 부단한 강화는 인류의 운명을 위하여 결정적 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쏘련과 중화 인민 공화국을 수위로 한 사회주의 진영은 국제적 사변들의 행정에 대하여 더욱 증대되는 영향을 주게 되였다.

대외 정책 분야에서 쏘련이 시종 일관하게 실시하고 있는 레닌적 평화 정책과 관련하여 국제 생활에는 최근 년간에 거대한 긍정적 사변들이 일어났다. 이 분야에서 쏘련 공산당과 쏘베트 정부는 세계의 운명을 좌우하는 모든 문제들을 실천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적극적이며 지도적인 력량으로 되였다.

평화를 위한 쏘련의 이니샤티브의 성공은 전체 평화 애호 국가들의 지지와 공동 행동으로 말미암아 크게 촉진되였다。 미국의 지배층을 선두로 하는 제국주의 호전 분자들의 발광적인 전쟁 정책에도 불구하고 최근 년간에 조선과 인도지나 등에서 전쟁은 종식되였고 『힘의 립장에 선』 정책은 도처에서 수치스러운 패배를 당하였다。

쏘련과 중화 인민 공화국의 주동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에 의하여 최근 기간에 상이한 국가 제도와 사회 제도를 가진 나라들 간에 친선과 협조와 실무적 련계가 확대 강화되고 있다。

달성된 국제 긴장 상태의 완화는 공고하고 항구한 평화에로 전변되여야 할 것인바 대회는 그것의 해결이 공고하고 항구한 평화를 위하여 기초를 이루어 놓을 수 있는 세계의 중요한 문제들로서 구라파 집단 안전의 보장、아세아 집단 안전의 보장 및 군비 축소를 지적하였다。

대회는 이 문제들의 해결을 위하여、공고하고 항구한 평화를 위하여 계속 성의 있는 노력을 기울일데 대한 쏘련의 용의를 다시 한번 천명하였으며 렬강간의 립장을 일층 접근시키며 미국과 그리고 영국、불란서 등과의 견고한 우호 관계를 수립하기 위하여、협상의 방법을 국제 문제 해결의 유일한 방도로 되게 하기 위하여、이미 설정된 쏘련과 동방 제국과의 친선 협조 관계를 앞으로 더욱 확대 강화하기 위하여、국가들 간의 실무적、문화적 련계를 확장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할데 대한 쏘련의 용의를 명백히 하였다。

대회는 현 국제 관계 바전에 대한 몇가지 원칙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맑스―레닌주의적 해명을 주었는바 두 체계간의 평화적 공존의 문제、우리 시대에 전쟁이 방지될 수 있는 가능성에 관한 문제、이러 저러한 나라들이 사회주의에로 이행하는 형태들에 관한 문제、그리고 사회 민주당들과의 관계에 관한 문제 등은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현 시기에 있어서 두 체계의 평화적 공존은 엄연한 사실로 되였으며 평화적 공존의 원칙은 더욱 더 광범한 국제적 인정을 받고 있는 바 그것은 현 정세하에서 다른 출로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새로운 전쟁이 불가피적인가、아닌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대회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즉 자본주의가 세계에 남아 있는 한 자본주의 독점체의 리익을 대표하는 반동 세력은 앞으로도 전쟁을 도발하려고 발악할 것이다。그러나 전쟁은 숙명적으로 불가피한 것은 아니다。오늘날 제국주의자들의 전쟁 도발을 방지하며 만약에 그들이 전쟁을 시작하려고 시도한다면 침략자들에게 섬멸적인 반격을 가하여 그들의 모험주의적 계획을 파탄시킬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가진 사회적 및 정치적 력량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대회는 국제 정세에 일어난 근본적인 변화와 관련하여 국가들과 민족들이 사회주의에로 이행함에 있어서 각이

한 형태를 취할 수 있다는 레닌적 원칙을 현 정세하에서 더 한층 구체화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즉 사회주의에로 이행하는 형태들은 더욱 더 각이한 것으로 될 수 있을 것인 바 이에 있어서 그러한 형태들의 실현이 모든 경우에 반드시 공민 전쟁과 련결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주의에로 이행하기 위하여 의회적 방법도 리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대회는、일련의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로동 계급은 자기의 주위에 근로 농민、인테리 기타 전체 애국적 력량들을 집결시키여 의회에서 확고한 다수를 쟁취하고 의회를 인민의 의사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전변시킴으로써 근본적인 사회적 변혁의 실현을 보장하는 조건들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명하였다。

쏘련 공산당의 조직 지도하에 쏘련 인민은 지나간 기간에 쏘련 공산당 제一九차 대회가 제기한 력사적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실천하였다。공업 분야에서 제五차 五개년 계획은 四년 四개월로 완수되였다。五개년 계획 기간에 쏘련의 공업 생산은 八五%、그중 생산 수단의 생산은 九一%、소비품 생산은 七六% 증가하였다。거기에서 생산 증대의 템포는 지난 五개년간에 미국에 비하여는 년 평균 三배 이상、영국에 비해서는 三・八배였다。

공업의 발전과 아울러、또 그에 기초하여 인민 경제의 다른 부분들에서도 거대한 성과가 이루어졌는 바 특히 쏘련 공산당 一九五四년 一월 전원 회의 결정에 의한 처녀지 및 황무지 개간 사업은 二년 동안에 최초의 一、三○○만 헥터의 예정을 三、○○○만 헥터까지 초과 완수하였는 바 여기에서만 하여도 년 二○억 뿌드의 곡물을 증수할 수 있게 되였다。이는 쏘련의 다른 지역들에서의 축산업의 가일층의 발전과 공예 작물 생산의 급속한 증대를 보장할 수 있는 조건을 지어주었다。산업과 농업의 발전에 따라 국방력 강화와 문화 건설 분야에서도 거대한 성과가 달성되였으며 인민의 물질적、문화적 생활 수준의 미증유의 향상이 실현되였다。이 모든 성과들은 쏘련 공산당의 정확한 정책과 부단한 조직 사업들의 결과에 이루어진 것이다。

총화 기간에 쏘련 공산당은 량적으로 더욱 장성되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 대렬내에 숨어 있던 인민의 원쑤들을 철저히 숙청하고 집체적 지도의 레닌적 원칙을 확고히 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철석같이 통일 단결되였다。

레닌적 당 생활 원칙의 확고화는 당 단체들의 정치적 열성을 현저히 제고하였으며 근로자들과의 당 단체들의 련계를 강화하였으며 대중에 대한 당 단체들의 영향을 증대시켰으며 당의 가일층의 공고화를 가져왔다。

대회의 보고와 一九五六――一九六○년 쏘련 인민 경제 제六차 五개년 계획에 관한 대회의 지시는 당과 쏘련 인민 앞에 세계사적 의의를 가지는 새로운 과업들과 이의 실천을 위한 방도들을 제시하였다。

『쏘련 인민 경제 발전 제六차 五개년 계획의 주요 과업은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과 부단한 기술적 진보 및

로동 생산성의 제고에 기초하여 모든 인민 경제 부문들의 가일층의 위력한 장성을 보장하며 농업 생산의 급격한 앙양을 실현하며 그에 기초하여 쏘베트 인민의 물질적 복리와 문화 수준을 현저히 제고하는 데 있다』。

새 五개년 계획 기간에 공업 총생산액은 대략 六五%、생산 수단의 생산은 대략 七〇%、인민 소비품 생산은 대략 六〇% 장성될 것이다。五개년 계획 기간에 전력 생산은 거의 二배로 장성할 것이다。

대회는 앞으로 一〇년내에 씨비리를 쏘련에서의 석탄 채굴과 전력 생산의 최대 기지로、대량의 연료와 동력을 소비하는 기본 공업 중심지로、모든 종류의 기계、기계 장치、공구들을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대기계 제작 공업 중심지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계획에 예견된 중공업의 가일층의 우선적 발전과 전기화의 극히 높은 템포는 쏘련 공산당이 그의 위대한 창건자인 레닌의 지시를 시종 일관 확고하게 리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레닌의 교시에 충실히 의거하면서 쏘련 공산당은 중공업과 전기화의 우선적 발전에 결정적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

그것은 오직 이렇게 하는 조건하에서만 인민 경제와 인민의 복리의 전면적이고 부단한 앙양과 국방력의 강화를 보장할 수 있으며 평화적인 경제적 경쟁의 길에서 쏘련의 기본적 경제 과업인 주민 一인당 제품 생산량에 있어서 가장 발전한 자본주의 나라를 따라 잡고 넘어서는 과업을 최단 기간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 五개년 계획에서는 이 로선에 따라 인민 경제의 각 분야에서 기술을 강력히 발전시키며 새 기술을 광범히 도입하는 데 커다란 주의가 돌려지고 있는 바 이 분야에 있어서 제六차 五개년 계획은 새로운 시기를 이룩할 것이다。

인민의 복리와 세계에서의 평화 사업에 무한히 충실한 쏘련 공산당과 쏘련 정부는 원자력의 평화적 리용에 거대한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一九五六——一九六〇년간에 二〇〇만 내지 二五〇만 키로왓트의 총출력을 가진 원자력 발전소들을 건설할 것이 지적되여 있다。원자력의 평화적 리용을 위한 다른 사업들도 전개될 것이다。

새 五개년 계획에는 중공업의 발전에 의거하면서 농업과 축산업을 더욱 앙양시키기 위한 중요한 과업들이 규정되여 있다。一九六〇년에는 화곡 총생산고를 一억 八천만톤(一一〇억 뿌드)에 달하게 할 것이며 육류、채소、공예 작물 등의 생산을 현저한 규모로 증대시킬 것이다。현재 쏘련은 가능한 짧은 기간내에 개별적 작업들의 기계화로부터 전체 농업 생산의 종합적 기계화에로 이행할 과업에 직면하고 있다。

제六차 五개년 계획 기간에는 전체 로동자、사무원에 대하여서는 七시간 로동제로、그리고 一六세로부터 一八세까지의 청 소년들에 대하여서는 六시간 로동일 제도로 이행할 데 관한 결정이 채택되였으며 전체 로동자、사무원들을 위하여 토요일과 휴일 전날의 六시간 로동 제도가 실시될 것이다。

쏘베트 나라는 지금 급속히 전진하고 있다。쏘베트 나라는 그의 최종 목표인 공산주의 사회에로 나아가는 광활한 전망을 이미 바라 볼 수 있는 그러한 절정、그러한 고지에까지 도달하였다。

제六차 五개년 계획——이것은 공산주의 건설의 위대한 사업의 전투적 강령으로 된다。새 五개년 계획의 실현은 쏘련의 경제적 위력과 그의 불패의 국방력을 가일층 강화할 것이며 인민의 복리와 쏘베트 문화의 새로운 현저한 장성을 가져올 것이다。

쏘련의 새 五개년 계획의 거대한 국제적 의의는 그것이 쏘련의 경제력과 국방력의 더 한층 위력한 장성에 대한 과학적인 전망을 반영하는 동시에 그것이 또한 쏘련의 레닌적 평화 정책의 물질적 기초를 반영하는 거기에 있다。제六차 五개년 계획은 전체 진보적 인류의 운명을 위하여 위대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쏘련과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과의 경제적 련계를 가일층 긴밀히 할 것이며 평화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위한 사업에 새로운 위대한 기여로 될 것이다。

한편 쏘련 공산당 제二〇차 대회와 새 五개년 계획은 세계의 자본주의 나라 반동 지배층들에게 거대한 관심사로 되여 그들에게 위구와 불안을 야기시키고 있다。미국、영국、불란서 기타 많은 자본주의 나라 반동 신문들도 쏘련의 새 五개년 계획에 대하여 널리 론평하면서 쏘련의 사회주의적 경제의 급격한 장성과 거대한 발전 전망에 대한 자기들의 불안을 숨기지 않고 있다。

『뉴욕 타임스』지까지도 쏘련의 새 五개년 계획을 평화적、창조적 로동에서의 『엄중한 경제적 도전』이라고 보면서 『쏘련 사람들은 의심할 바 없이 가까운 五개년 동안에 거대한 성과를 달성할 것이며 그리하여 경제적 관계에 있어서 그들은 우리를 따라 잡기 시작할 것이다』라고 썼다。

자본주의 나라 일부 반동 계층들은 원자력을 평화적 목적에 리용하는 분야에서의 과업에 대하여 명백한 불만을 표시하였다。

그러나 바로 원자력의 평화적 리용에 관한 쏘련의 새로운 계획은 특히 평화와 자유를 지향하는 세계의 진보적 인류、특히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과 식민주의를 반대하여 맹렬히 진출하고 있는 아세아 제국 인민들에게 거대한 고무로、희망으로 되고 있다。

오늘 전 세계의 근로 인민들은 쏘련의 위력에 고무되면서 자국의 공산당、로동당들의 령도하에 평화와 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매진할 결의에 충만되여 있다。

조선 인민은 위대한 쏘련 공산당과 쏘련 정부와 쏘련 인민의 시종 일관한 형제적 원조하에 조국의 통일 독립 완수와 자기들의 행복한 생활 창조를 위하여 투쟁하고 있다.

맑스—레닌주의 당인 조선 로동당에 의하여 지도되고 교양되는 우리 당원들과 전체 조선 인민에게 있어서 쏘련 공산당과 쏘련 인민의 투쟁 경험은 모두가 우리들의 사업에서 지침으로 되며 그들의 성과는 곧 우리들의 성과로서 우리의 사업과 투쟁을 고무 격려하여 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투쟁과 성과는 형제적 쏘련 공산당과 쏘련 인민의 투쟁 및 성과와 분리될 수 없다.

전체 우리 당원들과 전체 조선 인민은 형제적 쏘련 공산당과 쏘련 인민이 공산주의 건설 도상에서 쟁취한 성과와 새로이 제기한 과업과 그의 빛나는 전망에 의하여 무한히 고무되면서 평화적 조국 통일과 북 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기초 건설의 과업 완수를 위하여, 위대한 쏘련을 선두로한 사회주의 진영의 가일층의 단결과 륭성 발전을 위하여, 세계 평화의 공고화를 위하여 맑스—레닌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모든 분야의 사업에서 최대의 열성을 발휘하고 있으며 승리의 신념을 확고히 하고 있다.

맑스—레닌주의의 불패의 전위대이며 인류 해방의 등대인 영광스러운 쏘련 공산당과 그에 의하여 지도되는 쏘련 인민에게 영원, 불멸의 영광이 있으라!

쏘련 공산당과 쏘련 인민의 모범을 따라 우리의 사업에서의 새로운 승리를 위하여 앞으로!

三개년 인민 경제 계획의 완수 및 초과 완수를 위하여

一九五六년, 금년은 三개년 인민 경제 계획의 마지막 해이다! 전쟁에 의하여 파괴된 인민 경제를 급속히 복구 발전시키며 인민 경제 각 분야에 걸쳐 전전 수준에 도달할 것을 예견한 三개년 계획은 바야흐로 그 실천의 마지막 해에 들어 섰다.

계획의 기한전 완수 및 초과 완수를 위한 결의 드높이 우리 나라 근로자들은 당과 정부와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동지의 정확한 지도하에 지난 二년 동안에만도 많은 일을 하여 놓았으며 또 훌륭한 성과들을 달성하였다. 우리 나라의 면모는 날마다 달라져 가고 있다. 우리 인민 경제는 금후 발전을 위한 온갖 필수 조건을 구비하면서 있으며 三개년 계획 과제들을 능히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갖추게 되였다. 우리의 산업은 높은 생산성을 가진 기술로써 장비되여 가고 있으며 우리 농업의 물질 기술적 토대는 더욱 강화되여 가고 있다.

온갖 침체성, 보수적인 것에 대하여 비타협적이며 전취된 것을 더욱 새로운 성과들을 달성하기 위한 지주로 간주하고 있는 우리 당은 이미 달성한 성과에 자만하지 않으며 광범한 근로자들을 더욱 커다란 성과들을 달성하기 위한 투쟁에로 궐기시키고 있다. 당은 오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자기 사업의 성과에 도취하지 말며 항상 비판적 정신을 견지할 것을 요구한다.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우리 나라 근로자들의 창조적 적극성과 정치적 열성은 비상히 앙양되고 있다. 근로자들의 창조적 적극성은 오늘 우리 당 제三차 전 당 대회를 앞두고 더욱 앙양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공장, 광산, 농촌, 어촌 등 방방곡곡에서는 우리 당 제三차 전 당 대회를 더욱 높은 정치적 열의와 로력적 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증산 경쟁 운동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으며 三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인 금년도의 인민 경제 계획을 완수 및 초과 완수하기 위한 치렬한 투쟁으로 들끓고 있다. 근로자들의 이러한 정치적 열성과 창조적 적극성의 앙양이야말로 三개년 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 조건의 하나이다.

三개년 계획 실천의 완성의 해로 되는 금년은 특히 우리 나라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三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인 금년도 인민 경제 계획의 성과적 수행은 국가 공업화의 기초를 축성하는 제一차 五개년 계획 실천에 착수할 수 있는 현실적 조건들을 조성하여 주며 전체 근로자들의 물질 문화 생활을 보다 안정 향상시켜 줄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사회 제도의 생활적 기초인 로 농 동맹、인민의 정치―정신적 통일 단결을 가일층 강화할 것이며 조국 통일의 튼튼한 담보인 혁명적 민주 기지를 정치、경제、군사적으로 더욱 강화할 것이다。 바로 여기에 一九五六년 인민 경제 계획의 거대한 정치 경제적 의의가 있다。

공화국 내각 결정으로 채택된 一九五六년도 계획에는 인민 경제의 주도적 부문들에서 三개년 계획을 초과 완수함으로써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기초 건설을 촉진하며 농촌 경리의 가일층의 발전과 인민 생활의 급속한 개선 향상을 위한 물질적 조건들을 조성할 것이 예견되여 있는바 一九五六년의 공업 총생산고는、一九五六년 예정 실적은 물론 전쟁전 一九四九년 수준을 훨씬 릉가할 것을 예견하고 있다。

공업 부문 계획은 인민 경제를 전반적으로 발전시킴에 있어서 선차적 의의를 가지는 금속、기계、전재 및 화학 공업 부문과 채굴 공업 등의 기본 공업 시설들의 복구 건설 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인민 생활 향상을 위한 인민 소비품 및 식료품 공업의 발전과 농촌 경리의 급속한 복구 발전에 필요한 설비、부속품 및 생산 수단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농촌 경리 부문에 있어서는 우리 당 一二월 전원 회의에서 제시된 농촌 경리의 금후 발전을 위한 기본 과업으로부터 출발하여 알곡 생산을 급속히 증가시키는 데 중점을 두면서 동시에 경공업 원료의 생산과 가축 두수를 증가시킬 것을 규정하고 있다。 계획에는 농촌 경리의 급속한 발전을 위하여 관개 시설과 하천 공사들을 확장할 것과 농기계 임경소、농기구、화학 비료 등의 보장을 위한 막대한 투자를 예견하고 있으며 국영 농 목장、농업 협동 조합들의 발전 및 농기계 생산을 확대할 데 대한 심심한 고려가 반영되여 있다。

또한 계획에는 인민의 물질적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들에게 대한 공업 상품과 식료품 공급 수준을 향상시키며 국영 및 협동 단체 상업망을 개선 확대하며 교육、문화、보건 시설들을 개선 확대하는 데 커다란 배려를 돌리고 있다。

현실적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타산한 토대 우에서 작성된 一九五六년도 계획은 一九五五년 계획 작성에서 발로되였던 좌우경적 편향들에 대한 심오한 분석과 一九五六년 계획을 정확히 작성할 데 대한 김 일성 동지의 교시에 립각하여 작성된 것이며 그 중심 방향이 무엇보다도 먼저 인민 경제의 확대 재생산을 촉진시키며 국가 공업화의 기초를 축성하는 제一차 五개년 계획에 착수할 수 있는 현실적 조건들을 조성하는 데 돌려지고 있다。 그러

므로 금년도 인민 경제 계획을 완수 및 초과 완수하는 문제는 우리 혁명의 승리적 전진、우리 인민 경제의 장족적 발전을 보장하여 줄 뿐만 아니라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을 더욱 안정 향상시키는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이 계획의 실현은 실로 우리 당과 정부의、그리고 또 우리들 매개 근로자들 앞에 제기되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업중의 하나이다。 이 력사적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들이 자기의 힘과 로력、정력과 재능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이미 달성한 성과에 도취하지 말아야 한다。

지난 해에도 우리들은 당과 정부와 김 일성 동지의 정확한 지도하에 쏘련과 중화 인민 공화국을 비롯한 형제적 제 국가 인민들의 막대한 물질―기술적 원조를 받으면서 자기의 창조적 로력과 헌신성을 발휘한 결과 경제 건설 사업에서 거대한 성과들을 쟁취하였다。

一九五五년도의 국영 및 협동 단체 공업 총생산 계획은 一〇五%로 초과 실행되였으며 일련의 국가 기업소들이 지난 해에 벌써 三개년 계획을 완수 및 초과 완수하였다。 一九五五년도 국영 및 협동 단체 공업 총생산액은 一九四九년 수준에 비하여 一五六%、一九五三년에 비하여 二六七·一%로 장성되였다。

농업 분야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성과들을 달성하였다。 농촌 경리의 급속한 복구 발전을 위한 당과 정부의 시책과 광범한 근로 농민들의 창조적 로력 투쟁에 의하여 一九五五년도 농작물 총수확고는 一九五四년에 비하여 훨씬 제고되였으며 수만 정보에 달하는 관개 몽리 면적을 비롯하여 농경지의 보호 복구 확장、농기계 임경소의 증설 강화 등 농업 생산의 급속한 발전을 위한 물질―기술적 토대들을 구축하여 놓았다。

특히 농촌 경리의 사회주의적 개조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농업 협동화 운동이 급속히 발전하였는바 一九五四년의 영농 기간에 一、〇九八개의 협동 조합이 조직 운영되였다면 一九五五년에는 一九五四년에 비하여 실로 一〇배 이상으로 급격히 장성하여 一一、五四三개가 조직 운영되였으며 여기에는 전체 농가 호수의 四五·一%、전체 경지 면적의 四四·八%가 망라되고 있다。

당과 정부의 부단한 배려에 의하여 인민의 물질 문화 생활 수준도 가일층 향상되였다。 일련의 국가적 시책에 의하여 一九五五년의 국민 소득은 一九五四년에 비하여 二〇%가 더 증가되였으며 로동자、사무원들의 월 평균 화폐 임금은 一一%가 증가되였다。 로동자、사무원들의 실질 임금은 一九五四년에 비하여 二五%가 더 증가되였으며 근로자들은 지난 一년 동안에만도 국영 및 협동 단체 상업망을 통하여 一八억원에 달하는 리득을 얻었다。

지난 해 우리가 달성한 성과들은 실로 거대하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할 일에 비하여 보면 시작에 불과한 것이며 따라서 우리는 자만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오늘 우리에게 三개년 계획을 능히 수행할 수 있는

주 객관적 조건들이 현존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 그것은 가능성이지 현실성은 아니며 또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모든 일이 잘 진행되고 있으며 이제는 긴장을 늦출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없다。

현실은 전진한다。인민 경제의 부단한 장성과 그의 증대되는 요구는 우리의 로력과 재능을 더 발휘할 것을 요구한다。전진하는 현실을 더욱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일을 해야 하며 사업을 더욱 개선해야 하며 창의 창발성을 더욱 발휘하여야 한다。창발성은 보통、거둔 성과에 대한 불만족이 존재하는 곳、또 사람들이 앞을 내다 보고 자기의 지난 날의 성과에 도취하지 않는 곳에서만 성과적으로 발현될 수 있다。

문제는 안일성과 보수성을 배격하며 온갖 난관과 애로들을 극복하는 완강한 투쟁을 전개하는 데 있으며 정확하고 능란하게 경제 건설에 대한 조직 지도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다。문제는 우리 매개 근로자들이 자기의 로력과 창의 창발성을 더욱 발휘하여 생산 혁신을 위한 새로운 발기들과 창의 고안들을 더 많이 제기하여 그를 생산에 도입하며 현존 작업 방법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며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체의 기술 기능 수준을 더욱 높이며 대중적 증산 경쟁 운동을 광범히 조직 전개하는 데 있다。이와 함께 우리의 매개 지도 일꾼들이 당과 정부의 정책에 튼튼히 립각하여 앙양된 대중의 창조적 열성을 계획 실행에로 옳게 조직 동원하며 낡은 것을 반대하는 새로운 것의 투쟁을 조직 지도하며 경제 건설에 대한 지도를 훌륭히 보장하기 위한 자체의 지도 수준 제고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며 사업에서 오직 인민、당、국가의 리익에만 튼튼히 립각하며 그리고 또 이러한 최고의 리익에 부합되도록 관리 사업을 조직 진행하는 데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인민 대중의 창조적 적극성의 가일층의 앙양과 지도 일꾼들의 당적、국가적 견지에서의 정확한 지도의 결합——이것은 실로 우리의 경제 계획의 완수 또는 초과 완수를 보장하는 기본 고리의 하나이다。

오늘 근로자들의 정치적 열성과 창조적 적극성은 더욱 더 제고되고 있다。그들은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기의 기술 기능 수준을 부단히 제고하고 있으며 대중적 증산 경쟁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그들은 제반 생산 설비의 생산 능력을 증대시키는 각종 장치들을 도입하고 있으며 현존 작업 방법들을 부단히 개선하며 선진적 작업 방법들을 생산에 도입하고 있다。지난 一년간에만 하여도 근로자들의 수백건에 달하는 우수한 창의 고안들과 합리화 제의가 생산에 도입되였다。이러한 제의들 중에는 많은 것이 거대한 경제적 효과를 나타냈으며 또 생산 능력에 관한 낡은 개념과 낡은 기술적 수준을 깨뜨려 버리고 로동 생산 능률을 현저히 장성시켰다。

근로자들의 창조적 적극성이 앙양된 현 조건하에서는、우리의 매개 지도 일꾼들、특히 경제 지도 일꾼들이 근로자들의 창조적 적극성을 옳게 조직 동원하며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하려 하는 일체 귀중한 제의들을 적극

지지하며 근로자들 속에서 기술 기능 향상에 대한 의욕을 고무하고 그들의 창발성을 발전시킬 것을 요구하며 정확한 경제 지식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 방법으로써 생산을 조직 관리하며 현실적인 경제적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분석 료해한 기초 우에서 사업을 지도할 것을 요구한다。

오늘 전체 근로자들은 항상 지도 일꾼들에게 그들이 다만 사업을 잘 알 뿐만 아니라 훌륭한 경험들을 일반화할 줄 알며 또 이에 기초하여 사건의 행정을 예견할 줄 알 것을 기대한다。

과업은 우리의 경제 지도 일꾼들이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대한 지식으로 자기를 튼튼히 무장하며 사회주의적 기업 관리 운영의 제 원칙과 경제 법칙들을 똑똑히 인식하며 앙양된 근로자들의 로력적 열성과 창의 창발성을 계획 완수에로 조직 동원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작업 조건을 충분히 보장하여 주며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하기 위한 그들의 일체 창조적 발기에 대하여 지지 방조하며 대중적 증산 경쟁 운동에 대한 지도를 가일층 개선 강화하는 데 있다。

근로자들의 합리화 운동과 증산 경쟁 운동의 그 거대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지도 사업에는 형식주의와 관료주의가 철저히 퇴치되지 못하였다。적지 않은 경우에 우리의 일부 일꾼들은 혁신자들의 이런 또는 저런 창의에 대하여 수다히 떠들고 있지만 그러한 창의에 대한 사업상 지원이 아직도 부족하다。혁신자들은 진정한 원조와 자기들의 창의를 도입할 데 대한 진지하고도 세심한 사업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근로자들의 이 정당한 요구는 바로 경제 지도 일꾼、당 및 직맹 단체들이 그것을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무엇보다도 여기에서 경제 지도 일꾼들은 자기가 경제 사업의 조직자이며 기술적 진보를 위하여 투쟁하며 근로자들이 보다 생산 능률을 높이도록 궐기시킬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오늘 우리의 조건하에서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함에 있어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옳바른 로력 조직이다。오직 옳바른 로력 조직과 작업 조건을 원만히 보장하여 주는 데서만 경쟁 참가자들은 자기의 혁신적 능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으며 생산고를 부단히 높일 수 있다。그러나 아직도 일련의 기업소들에서 지속되고 있는 예견성이 부족한 사업 지도에 의하여 경쟁 참가자들의 발기와 열성이 저애를 받고 있는 일이 드물지 않다。이와 같은 그릇된 사업 작풍의 결과는 생산 능력의 불충분한 리용、시간외 작업의 대량적 적용、불합격품의 증대 등의 현상을 산생케 하며 나아가서는 관계 기업소들의 사업에 지장을 초래케 한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과업은 경제 지도 일꾼들이 근로자들의 로력적 열성과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로력 조직에서의 파동성을 극복하여야 하며 예견성있는 생산 조직과 준비 사업을 철저히 갖추는 데 보다 큰 창발성을 발휘하여야 할 것이

며 로력을 합리적으로 조직 리용하기 위한 온갖 조건들을 구비하는 데 신중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

경제 지도 일군들은 경험이 확증하는 바와 같이 자기의 모든 경제 활동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당 단체와 열성자들、그리고 전체 종업원들에 의거하여야 하며 사업에서 관료주의적 작풍의 사소한 경향과도 투쟁하여야 할 것이며 자기의 안일을 위해서、혹은 협소한 기관 본위적 리익을 위하여 국가적으로 긴요한 사업을、그것이 커다란 노력을 요구한다고 해서 회피해서는 안되며 매개 부문의 경제 지도 일군들이 서로 련계를 강화하며 서로 협조하며 존경하는 기풍을 확립하여야 할 것이며 성과를 허위 과장하며 생산 실적을 과장하는 등의 각종 유해로운 경향들을 극복하여야 할 것이다。우리는 어떤 상부에 잘 보이기 위해서나 혹은 그의 비위에 맞추기 위해서 생산 실적을 과장하여 인민 경제 발전에까지 혼란을 초래케 하는 그런 자들과는 철저히 투쟁하여야 한다。

경제 지도 일군들은 자기를 다만 기계、자재、연료 등을 관리할 책임이 있고 사람들과의 사업은 당 단체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되며 근로자들과의 사업을 강화하고 그들의 문화—생활상 요구에 대해서도 심중한 주의를 돌려야 하며 사소한 생활상의 문제에 대해서까지도 배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사업은 근로자들의 창조적 적극성을 앙양시킴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三개년 계획의 완수 및 초과 완수를 위하여 오늘 우리 앞에 제기되여 있는 당면하고 중요한 경제적 과업들은 모든 사업에 있어서 항상 신중한 계획성과 예견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내부 원천들과 생산 예비들을 적극 동원 리용하는 것이며 로력을 합리적으로 조직 리용하며 부양 가족들의 로력을 광범히 또 합리적으로 인입하며 로력이 많이 드는 작업들、특히 건설 부문의 작업 행정 등을 기계화하며 로력을 절약하여 간접 부문 로력을 축소하고 직접 생산 부문에 로력을 집중하는 등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하기 위한 온갖 예비들과 요인들을 동원하는 것이며 설비의 리용률을 최대한으로 제고하며 모든 면에서 원료、자재、자금 및 량곡 등을 절약하는 것 등이다。

이 과업들의 수행은 근로자들의 창조적 적극성과 경제 지도 일군들의 지도 수준 제고뿐만 아니라 각급 당 단체들의 역할을 더욱 제고할 것을 요구하며 생산에 대한 당적 지도와 통제를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당 단체들은 자기 사업에서 보다 더 많은 창발성을 발휘하여 근로자들의 창조적 정력이 낳는 온갖 귀중한 것들을 지지 발전시키며 우리의 창조적 사업을 저해하는 온갖 락후하고 로쇠한 것과의 투쟁을 진행할 데 대한 책임이 있다。 당 단체들은 경제 지도 일군들의 자립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그들의 사업을 대행하지 말아야 하며 그들을 당적 원칙성의 정신으로 교양하며 옳은 지도 방법을 습득하도록 그들을 방조하여야 한다。 각급 당 단체들은 당 중앙 위원회 四월 전원 회의 결정 정신에 기초하여 반탐오、반랑비 투쟁을 계속 강화하여야 하며 자재 소비 기준을 준수하며 원자재 출입고 규률을 확립하며 실수률을 제고하며 산재된 폐설물들을 회수 리용하도록 엄격한 제도와 질서를 확립 강화함으로써 자재와 자금을 애호 절약하여 생산 및 건설 원가를 현저히 저하시키고 국가적 축적을 증대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각급 당 단체들은 일부 경제 간부들 속에서 나타나는 관료주의、기관 본위주의、공명주의、선진적인 경험과 새 기술을 보급시키려 하지 않는 경향、낮은 계획량과 낡아빠진 작업 정량을 고수하려는 일체 보수적이며 침체적 경향들과 일부 근로자들 속에서 발로되고 있는 로동에 대한 고용자적 태도、로동을 기피하려는 경향、로동 규률을 약화시키는 현상 등등 생산 발전을 저해하는 일체 낡은 사상 잔재의 표현들을 극복하는 강력한 사상 투쟁을 조직 전개하여야 하며 그들 속에 프로레타리아 계급 의식、프로레타리아적 군중 관점 및 작풍들을 확립하기 위한 계급적 교양 사업을 가일층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사회주의 건설자인 것만큼 응당 사회주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되여야 한다。입으로는 사회주의를 부르나 행동이 일제 시대의 종노릇하던 행동과 같아서는 안될 것은 명백하며 따라서 하루 속히 사회주의 사상으로 무장되여야 할 것이다。

각급 당 단체들과 매개 당원들은 三개년 계획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선봉적으로 투쟁하여야 할 것이다。 공장에서 일하는 당원들은 다만 책임량 완수에만 그쳐서는 안되며 생산 혁신자들 가운데서 또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새로운 예비 원천들을 탐색하며 생산 과제를 훌륭히 달성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첫째가는 사람으로 되여야 하며 지도상의 결함과 융화하지 말며 생산 혁신을 위한 새로운 문제들을 대담하게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농촌에서 일하는 당원들은 보다 훌륭한 수확을 달성하며 재래의 락후한 영농 방법들을 물리치고 과학과 다수확 경험들을 일반화하는 핵심적 인물로 되여야 하며 선진적 영농 방법 도입의 선구자로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이 생산에서 창조적으로 일하며 항상 전체 근로자들의 모범으로 된다면 광범한 근로자들에게 더욱 큰 영향을 줄 것이며 그들의 창조적 적극성을 더욱 제고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매개 당원들은 항상 생산에서의 창조적、핵심적 력량으로 되여야 하며 광범한 증산 경쟁 운동의 고무 추동자로 되여야 하며 광범한 근로자들의 선두에 서야 한다。 바로 우리 당원이 아니고 그 누가 대중의 창발성과 적극성을 발양시키는 중심 인물로 되겠는가?

각급 당 단체들과 경제 기관들에서는 금년도 계획의 정치 경제적 의의를 전체 근로자들에게 깊이 해석 침투시키며 그의 성과적 수행을 위하여 대중과의 사업 방법을 개선하며 광범한 증산 경쟁 운동을 조직 전개하여 그들의 애국주의적 헌신성과 창발성을 발휘시켜 三개년 계획을 완수 및 초과 완수하여야 할 것이다。

당의 공고화를 위한 투쟁에서 당원들의 당성 단련

박 금 철

一、

전체 조선 인민은 해방후 一〇년간의 실지 투쟁을 통하여 자기들이 쟁취한 모든 승리의 조직자는 조선로동당이며 그는 진정한 조선 인민의 지도적 및 향도적 력량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 당이 탄생한 첫날부터 우리 당 중앙 위원회 위원장이신 김 일성 동지의 정확한 령도 밑에 시종일관하여 조선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투쟁하였으며 또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당은 우리 나라 통일 독립의 물질적 담보인 혁명적 민주 기지를 창설 강화하고 미 제국주의자들을 위수로 한 一六개국 무력 간섭자들을 격퇴하고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수호하였으며 전후에 있어서는 미제 야수들의 무차별적 폭격에 의하여 페허로 되였던 도시와 마을들을 급속히 복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촌 경리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혁명적 과업을 성과적으로 조직 지도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조선 인민은 행복한 자기들의 미래를 전적으로 우리 당에 위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당은 자기 앞에 제기된 조국 통일의 위업을 아직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미 제국주의자들은 공화국 남 반부를 계속 강점하고 그 곳을 새 전쟁 도발을 위한 군사 기지로 전변시키고 있으며 남 반부의 동포, 형제, 자매들을 기아와 도탄에 빠뜨리고 있다.

이로부터 우리 당은 미제 침략 세력을 물리치며 그와 야합한 리 승만 매국 역도들을 타도하고 조국의 통일 독립을 쟁취함으로써 놈들의 착취와 압박하에 신음하는 남 반부 인민들을 해방시킬 것을 당면한 과업으로

로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당의 투쟁 목적은 조국 통일의 위업을 달성하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를 장차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며 나아가서는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데 있다. 이것은 우리 나라 발전의 필연적 법칙이며 조선 인민의 일치한 념원이다.

물론 이것은 용이한 것은 아니다. 지나온 모든 사회 혁명의 력사가 실증하는 바와 같이 이는 장구하고도 간고한 투쟁이 요구된다.

사회 혁명은 낡고 부패한 사회를 매장하고 새롭고 선진적인 사회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인 것만큼 몇몇 선진 분자들의 투쟁만으로써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이는 오직 사회 발전을 억제하고 있는 온갖 반동 세력을 반대하여 전체 인민 대중이 궐기하는 때에만 승리할 수 있다.

오늘 미 제국주의자들과 리 승만 도당들이 남 반부에서 계속 둥지를 틀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협하고 있는 것도 아직 전체 조선 인민이 한결같이 단결되지 못한 데 있는 것이다. 로동 계급을 선두로 한 농민 및 기타 전체 조선 인민이 한 사람같이 단결하여 원쑤들을 반대하여 나선다면 능히 평화적으로 조국을 통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가로 놓인 어떠한 난관도 두려워할 것이 없으며 돌파하지 못할 요새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공화국 북 반부의 혁명적 민주 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강화하며 남 북 조선 전체 인민들을 우리 당 주위에 튼튼히 결속시키는 것은 우리 혁명 승리의 기본 고리인 것이다.

우리 당 앞에 제기되고 있는 이 영예로운 과업을 달성하자면 무엇보다 우리 당 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김 일성 동지가 지적한 바와 같이 『당의 통일과 단결은 우리 당의 위력의 원천이다』.

선진적 형제 당들의 투쟁 경험이 실증하여 주고 있는 바와 같이 혁명적 참모부인 당은 만일 자기 대렬내에서 온갖 불순 이색 분자들을 폭로 청산하고 통일과 단결을 보존하지 않는다면 혁명을 승리에로 조직 인도할 수 없으며 새 사회의 건설자로서의 자기 역할을 다할 수 없는 것이다.

더우기 우리 당은 지난 시기에 당을 약화시키려는 각종 시도들을 폭로 분쇄한 것을 귀중한 경험으로 삼아 자기의 대렬을 더욱 강화함으로써만 앞으로 어떠한 혁명적 대사변이 닥쳐와도 이를 능히 성공적으로 맞이할 수 있다.

당을 강화한다는 것은 온갖 불순한 사상의 침입으로부터 당을 수호하고 맑스—레닌주의 사상으로 전 당이 일관되며 당내에 잠입한 각종 형태의 계급적 이색 분자들을 숙청하고 전 당이 의지와 행동상 일치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를 위한 투쟁은 매개 당원들로 하여금 당내에 잠입한 온갖 부르죠아적 사상과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며 강철같은 당 조직 규률을 확립하기 위한 고상한 당성을 요구하게 된다.

우리 당은 김 일성 동지의 지도 밑에 창건 첫날부터 당원들을 맑스—레닌주의로 무장시키며 실지 투쟁을 통하여 당성 단련을 계속 전개하여 왔다。

특히 전쟁의 가렬한 불길 속에서 소집되였던 당 중앙 위원회 三차、四차、五차 전원 회의들과 최근에 소집되였던 四월 및 一二월 전원 회의들은 매개 당원들의 당성 단련을 강화하며 당 대렬을 가일층 공고 발전시킴에 있어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 회의들이였다。

이러한 투쟁을 통하여 우리 당은 자기 대렬내에 잠입하였던 박 헌영을 두목으로 하는 간첩 도당들과 허가이、박 일우 및 기타 종파 분자들과 계급적 이색 분자들을 폭로 청산하고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 위원회의 주위에 전 당을 강철같이 단결시켰으며 매개 당원들의 당성은 비상히 제고되였다。

오늘 우리 당은 어떠한 종파 분자나 간첩 암해 분자들의 파괴 활동에 의하여 분렬되지는 않을 것이며 또한 놈들의 범죄적 활동이 제아무리 교묘하다 하더라도 기어코 폭로 숙청되고야 말 것이다。

二、

우리 당은 자기 대렬의 공고화를 위한 一〇년간의 투쟁을 통하여 당내에 잠입한 불순한 요소들을 기본적으로 청산하였으며 당원들의 당성 단련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아직 적지 않은 면에서 당성이 결여된 현상이 남아 있다。

물론 오늘 우리 당내에는 종파는 없으며 또 있을 수도 없다。 그러나 과거 무원칙한 파벌 투쟁을 하던 잔재들은 완전히 청산되지 않았다。 이들은 지나온 경험이 뵈여 주는 바와 같이 평화로운 시기에는 잘 나타나지 않다가도 당이 어려운 시기에는 머리를 들며 준동하는 것이다。

로씨야에서 위대한 一〇월 혁명이 승리한 이후 그의 영향하에 조선에도 점차 맑스—레닌주의가 전파되기 시작하였으며 一九二五년에는 조선 공산당이 조직되였다。 조선 공산당의 창건은 반일 민족 해방 투쟁의 급속한 발전을 촉진시키는 데 있어서 적지 않은 역할을 놀았다。

그러나 조선 공산당은 유일한 프로레타리아적 사상과 행동의 일치를 보존하지 못하고 당내에서 엠·엘파、화요파、북풍회、서울파、상해파 및 기타 각종 파벌들 간의 투쟁이 계속되였다。 이 파벌들은 그 어느 하나도 맑스—레닌주의적 원칙에서 당의 통일과 조선 혁명 발전을 위한 전략 전술상에 있어서의 의견 차이로 인하여 투쟁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최초로부터 무원칙하게 당내에서 령도권을 차지하려는 탐위주의적 욕망을 달성하자는 것 뿐이였다。

이와 같은 무원칙한 파벌 투쟁으로 인하여 조선 공산당은 조직된 력량으로서의 자기의 존재를 계속 보존할 수 없었으며 드디여 一九二八년에 해산되고 말았던

것이다。

오늘 우리 당내에는 이러한 파벌 투쟁에 참가하였거나 또는 그 중요 간부로 있었던 자들도 있다。 물론 그 중 많은 동무들은 과거 자기의 종파적 행동에 대하여 비판하고 옳은 당적 원칙에서 사업하고 있으나 아직 일부 동무들은 과거 자기의 종파적 행동으로 인하여 우리 나라 혁명에 끼친 막대한 해독을 뉘우치지 못하고 오늘에 와서도 계속 과거 자기의 종파적 그릇에 대한 환상을 버리지 못하고 기회만 있으면 자기의 본질을 나타내려고 한다。

해방후 혁명 투쟁에 있어서 중요하게 제기된 문제는 로동 계급을 선두로 한 근로 대중의 대렬을 강화하는 문제이였다。 그러나 과거 엠·엘파의 화신인 창안파、대회파들은 파벌 투쟁을 계속함으로써 남 반부에서 로동 계급 대렬을 분렬시키고 미 제국주의자들이 우리의 혁명 력량을 탄압하는 데 좋은 기회를 주었다。

또한 과거 화요파를 중심으로 한 박 헌영 일파들도 파벌 투쟁을 계속함으로써 로동 계급 대렬을 분렬 파괴시켰을 뿐만 아니라 미 제국주의자들의 고용 간첩으로서 충실히 복무하였으며 이것도 부족하여 무원칙한 과거의 파쟁군들을 모아 가지고 북 반부에까지 들어와 북 반부에 잔존하던 종파 분자들은 규합하면서 우리 당을 분렬시키려고 시도하였다。

물론 박 헌영 도당들의 반당적 파괴 행위는 당 중앙 위원회 五차 전원 회의를 계기로 하여 폭로 청산되였다。

그러나 아직 일부 동무들은 이 악당들의 영향과 엠·엘파 및 기타 파벌적 잔재들을 완전히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자들 중에는 우리 당이 각처에서 뫼여 온 사람들로써 조직된 관계로 당원들과 간부들을 실지 투쟁에서 계통적으로 검열하지 못한 약점을 리용하여 그를 자기의 종파적 활동의 지반으로 삼으려 하는 자들도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모두 과거 종파주의 잔재인 것이다。 이들은 물론 당을 공공연하게 반대하여 나서지는 않으며 또 우리 당이 당 중앙 위원회와 김 일성 동지의 주위에 강철같이 단결된 조건하에서 나설 수도 없는 것이다。

이러한 자들은 당 로선과 당 중앙을 겉으로는 받들며 말로써는 다 옳다고 지지 찬동하면서도 뒤에 돌아가서는 당을 비난하며 불평이 있는 자들을 찾아 다니면서 자기의 인심을 보이려고 하며 일보다 『벼슬』하는 데만 관심이 많은 것이다。

이러한 종파 분자들은 당과 혁명의 리익보다 종파의 리익을 더 높이 제우며 모든 문제를 『당과 혁명의 리익을 위하여』라는 원칙 대신에 『파의 리익을 위하여』란 『원칙』에서 취급한다。 이들이 때로는 당의 원칙에 서는 것처럼 하나 그것도 당을 위하여 그런 것이 아니라 파의 리익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자들은 자기의 파를 지지하는 자라면 누구이거나를 불관하고 옹호하며 군중들의 신망 여하、능력과 당성 여하를 불문하고 자기와

친하거나 과거 자기의 영향하에 있던 자라면 무조건 당 및 국가 요직에 등용하려고만 애쓰며 그와 반면에 당의 원칙을 고수하는 견실한 당원들에 대하여서는 박해、중상하기 좋아하며 사업에서 뿐만 아니라 개인 생활에서까지 결함만 찾아 내려고 노력하며 지어는 문구 하나 말 한 마디라도 그를 공격하는 무기로 리용한다。그래도 결함을 잡지 못하게 될 때에는 어떠한 방법으로써든지 흉계를 꾸며 내며 지어는 부르죠아지의 대변인들과 결탁하는 것도 꺼리지 않으면서 당을 계급적 원쑤의 손안으로 끌어 넣으려 한다。

또한 이 자들은 당을 반대하기 위하여서는 자기 파의 지지자들을 항상 『동원 상태』에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데로부터 당이 어떤 결정을 채택하면 그를 즉시 『친근한 동무』들에게 제멋대로 전파시킨다。

이러한 결과 당의 중요한 비밀은 가두의 소유물로 되며 나중에는 적들의 수중에로 들어가 계급적 원쑤들이 우리 당을 파괴하는 데 귀중한 자료로 리용되게 한다。

그러므로 쓰딸린은 종파의 해독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종파의 해독은 그것이 당의 의지의 일치를 약하게 하며 당의 철같은 규률을 문란케 하며 당 내부 생활의 전부가 계급적 적의 눈 앞에 로출되고 그리고 당 단체는 부르죠아지의 수중에 있는 장난감으로 전변되는 그러한 특종의 종파적 통제를 당내에 조성함에 있다』。

종파의 해독성은 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들이 그냥 자라면 김 일성 동지가 지적한 바와 같이 나중에는 적의 정탐배로 전락된다는 것은 박 헌영 도당들의 실례를 보아 능히 알 수 있다。

물론 우리 당이 과거 종파 행동을 한 사람이라 하여 다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이 자기 종파 행동을 그만두고 당의 원칙에 서려고 노력하는 자는 환영한다。그러나 계속 종파 행동을 그만두지 않는다면 우리 당 대렬내에는 있을 자리가 없으며 그들의 말로는 결국 정치적 종장으로 밖에 변할 길이 없는 것이다。

종파 분자들이 종파 행동을 중지한다는 것은 그를 선언하는 데 그치거나 파벌 행위를 중지하는 것만으로써는 부족하다。그것은 온갖 종파 행동을 적극 반대하며 우선 자기가 속하였던 파벌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외에도 우리 당내에는 가족주의적 경향이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다。가족주의는 동창 관계、친구 관계、한 고향、한 지방에서 일하다 왔다고 하여 서로 춰 주고 서로 끌어 당기면서 결함이 있어도 호상 비판하지 않고 융화 묵과하며 당내에 무원칙한 단결과 화목을 조성하려는 데서 표현되고 있다。

이러한 가족주의는 중앙 기관들에서 일하는 일부 동지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 당 단체들 내에도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다。일부 당、정권 기관 및 경제 기관들에서 자기 사업을 충실히 집행하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의 하나는 그 기관 일꾼들 호상간에 원칙적 투

쟁이 없고 결함을 호상 융화 묵과하는 데 있다。

이러한 동무들은 엄중한 결함이 있어도 그를 시정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외부에 알려질 것을 두려워하며 내부적으로도 비판하지 않고 그저 두리뭉실하게 지나면서 『화목』하게만 살려고 한다。

이와 같이 무원칙한 화목과 단결은 우리 당과 혁명에 백해 무익할 따름이다。

가족주의는 그의 사상적 본질에 있어서나 당에 주는 해독성에 있어서 종파주의와 거의 동일한 것이다。그가 종파주의와 다른 점은 당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 개별적 분자들이 서로 싸고 돌며 동지들 간에 무비판적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당내 사상 투쟁을 마비시키는 것이다。이것은 일종 자유주의적 표현이기도 하다。

그와 반면에 당 정책을 외곡하며 서로 싸고 돌면서 일정한 정치적 야망을 추구하는 것은 대소를 막론하고 종파 행동이다。

가족주의도 그의 사상적 근원은 종파주의와 같이 소부르죠아적 개인 본위주의 사상에 있기 때문에 그를 그냥 남겨 둔다면 결국 종파주의와 동일한 말로를 걷게 된다는 것은 명백하다。

우리 당은 물론 매개 당원들 간의、또는 상부와 하부 간의 단결과 동지적 화목을 무엇보다 요구하고 있으며 또 그를 위한 투쟁은 매개 당원들의 고상한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이는 가족주의적인 화목과 단결과는 하등의 공통성도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 당은 김 일성 동지가 교시한 바와 같이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투쟁하며 또 그를 위하여 혁명 사업을 지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당이 요구하는 통일과 단결은 조국과 인민、당과 혁명의 리익을 고수하는 원칙하에서의 단결이며 통일이다。이를 떠난 단결과 화목은 그 어떠한 형태이든지 불구하고 우리 당의 원칙과는 상용할 수 없는 반당적、반인민적 그루빠적 행동이다。

또한 우리 당내에는 자유주의적 경향도 적지 않다。자유주의는 당 조직과 당 규률을 존중히 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말공부만 좋아하며 자기의 의견을 당 조직에는 제기하지 않고 뒤에 앉아서는 횡설수설하며 사업에 대하여서는 무책임하고 아무 계획도 없이 어물어물 세월이나 보내려 하며 자기의 잘못을 검토 시정하려고도 하지 않고 남의 잘못도 비판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신변만 주의하고 무원칙하게 좋게만 지내려 하는 데서 흔히 표현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적지 않은 당원들의 당 생활에서 일상적으로 발로되고 있다。특히 당내 사상 투쟁이 강화되자 일부 당원들 가운데서 보신、은신、방관적 경향들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일부 동무들은 박 헌영、리 승엽 도당들과 기타 종파 분자들의 반당적 죄행이 공공연하게 폭로된 다음에 있어서도 당내 불순한 사상적 경향들에 대하여 무관심하며 그를 반대하여 투쟁하려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동무들은 자기에게는 낡은 사상이 전혀 없으며 당에 대하여 충실히 일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상 투쟁이 필요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당내에는 적지 않은 면에서 낡은 사상 잔재가 남아 있으며 만일 이것이 그냥 자란다면 종파、간첩으로도 전락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반대하는 투쟁은 당원의 제일차적 의무이며 또 당에 충실할수록 사상 투쟁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다른 일부 동무들은 남이 잘못하는 것을 보고도 나 자신이나 잘 하면 되지 공연히 싫은 소리를 하여 미움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며 또한 후일에 복쑤를 당하거나 자기의 지위가 떨어질가바 두려워서 말하지 못하는 경향도 있으며 또 일부 동무들은 자기와 친한 동무라고 해서、자기의 상부라고 해서 결함을 보고도 용화 묵과하는 현상도 있다。

일부 동무들은 자기의 잘못을 알면서도 솔직하게 말하기 두려워 하며 다른 동무들이 이를 당과 상부에 보고할가바 두려워 하는 나머지 자기의 과오를 아는 동무들에 대하여 아첨 유인하며 때로는 위협하는 일도 드물지 않다。 그와 반면에 일부 동무들은 자기가 일단 당에서 비판 받았다 하여서 위축되여 응당 투쟁할 것도 하지 못하는 현상이 있다。

또한 일부 동무들은 남의 잘못을 알면서도 비판하지 않고 있다가 후에 그것이 폭로되면 자기는 전혀 몰랐던 것같이 행동하거나 반대로 누구보다도 당성이 제일 강한 사람으로 자처해 나서면서 폭로된 동무를 견결히 비판함으로써 자기의 요령주의를 은폐하며 당 회의에서는 비판하나 뒤에 돌아 가서는 비판한 동무에게 루추한 변명을 하면서 인심을 잃지 않으려고만 애쓰며 남의 눈치만 보면서 어떻게 하여서든지 자기를 잘 보이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경향들은 모두 개인의 리익을 혁명의 리익보다 높이 세우는 소부르죠아적 개인 본위주의 사상으로부터 출발되는 것이며 당의 강철같은 규률을 해이케 하며 당의 통일과 단결을 파괴케 하는 일종의 부식제이다。

또 일부 당원들에게는 무원칙한 개인 숭배주의 사상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동무들은 당 로선과 당 정책에 대한 정확성 여부와 당 조직에 의거하여 당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개인에 대한 신뢰로써 그를 대신하면서 어떤 세도 있는 사람에게 아첨하여 붙기만 하면 자기 직위와 공명은 보전되며 그 세도 있는 사람들에게 붙어서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당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개인을 내세우며 모든 일에 삐치기를 좋아하며 그 세도 있는 사람을 등에 지고 행세하기 좋아하는 것이다。

물론 맑스-레닌주의는 력사 발전에 있어서 개인의 역할을 무시하거나 과소 평가하는 것은 아니며 또 할 수도 없다。 그러나 아무리 탁월한 영웅이라도 인민 대중의 활동과 련결됨이 없이 이와 고립되여 자기의 역

할을 놀 수는 없는 것이다。 오직 선진적 인민 대중과의 련결을 맺고 그들에 의거하며 그들에게서 배우며 그들 속에 계급적 의식성을 주입하며 그들에게 계급 투쟁의 정확한 방도를 가르쳐 주며 그들의 투쟁을 조직할 줄 아는 한에서만、다시 말하면 사회 발전 법칙을 리해하고 그에 의거하여 사회를 어떻게 개조할 것인가를 아는 한에서만 개인은 력사 발전에서 거대한 역할을 놀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민의 탁월한 지도자는 무엇보다 력사 발전의 합법칙성을 남보다 더 잘 파악하고 남보다 더 멀리 내다 봄으로써 정확한 투쟁 구호를 내 결며 광범한 대중을 단결시키며 그들을 승리에로 조직 동원하는 역할을 노는 것이다。

맑스、엥겔스、레닌、쓰딸린이 전 세계 무산 계급의 지도자로 된 것은 바로 이러한 때문이며 오늘 전체 조선 인민이 김 일성 동지를 무한히 존경하며 사랑하고 있는 것도 그가 항상 우리를 승리에로 정확히 인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도자들의 령도는 당 로선과 정책으로써 당 조직을 통하여 실현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로선과 당 조직을 떠나 무원칙한 개인적 관계나 일종의 환상으로써 개인을 숭배한다는 것은 반맑스주의 사상이며 아첨 분자들의 특성이다。 이러한 경향들은 개인 영웅주의자들이 리용할 수 있는 좋은 지반으로 될 뿐이다。 바로 이런 것들을 리용하여 오 기섭 동지는 당 창건 초기 당 로선을 반대하면서 지방 할거주의적 종파 행동을 감행하였다。 그러나 오 기섭 동지는 자기의 과오를 인식하고 시정하는 길에 들어 서고 있다。

또한 소부르죠아적 개인 영웅주의가 농후한 허 가이도 역시 무원칙한 개인 숭배주의자들을 토대로 하여 당의 로선을 마치 자기의 창발인 것처럼 묘사하였으며 아첨 분자들은 그를 『당 박사』라고까지 하면서 그의 주위에 규합되였던 것이다。

당원은 항상 당 조직과 당이 제시하는 정확한 로선에 튼튼히 의거할 것이며 무원칙한 개인 숭배주의자로 전락되여서는 아니된다。

당성이 결여된 또 한 가지 표현은 관료주의적 작풍을 시정하지 못한 데서도 찾아 볼 수 있다。

四월·전원 회의 이후 당 및 국가 기관 일군들 속에서 관료주의적 작풍이 적지 않게 시정됨으로써 당과 대중과의 긴밀한 련계를 보장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전진이 있었으나 아직도 일부 당원들과 간부들은 우리 당의 혁명적 군중 관점을 소유함이 미약한 데로부터 일상 사람들을 대하는 면에 있어서나 사업을 조직 지도하는 면에서 관료주의적 작풍을 답습하고 있다。

김 일성 동지가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료주의는 「봉건 왕권 제도하에 있어서나 자본주의 제도하에서 절대 다수의 피압박 인민 대중을 억압하기 위한 지배 계급들의 반인민적 통치 방법」으로서 상부에 있는 동무들 중에는 자기가 앉은 자리는 마치 팔자에 타고난 자리처

럼 생각하면서 자기 사업에 대하여 연구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사업하며 하부 실정은 고려하지 않고 내려 먹이기를 좋아하며 학습은 하지 않고 틀만 차리는 데서 흔히 표현되고 있으며 하부 일군들 중에는 공명、출세주의、아첨、맹종 맹동하는 데서 찾아 볼 수 있다。

이것은 당 로선의 집행을 혼란시키며 우리 당의 위력의 원천인 당과 대중과의 긴밀한 련계를 약화시키는 우리 당이 가장 고통을 느끼고 있는 종처의 하나이며 계속 완강한 투쟁이 없이는 극복하기 곤난한 모순의 하나이다。

끝으로 우리 당내에는 국가 재산을 탐오、랑비하며 부화 방탕한 현상들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탐오、랑비를 반대하는 우리 당의 계속적인 투쟁으로 인하여、특히 당 중앙 위원회 四월 전원 회의 이후 국가 재산에 대한 애호 절약 정신이 당원들 속에서 비상히 제고됨으로써 탐오、랑비、횡령、절취 사건들이 현저히 축소되였으며 적지 않게 개진되였다。

그러나 일부 동무들은 국가와 공공 재산을 애호할 줄 모르고 국가 재산의 막대한 손실을 보면서도 아파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으며 지어는 그를 횡령、절취하는 것도 꺼리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동무들은 부화 방탕하면서 사회적 질서와 도덕을 문란시키며 당과 대중과의 련계를 약화시키고 있다。

이는 모두 반인민적 통치 계급의 사상적 잔재의 표현이며 조국과 인민 앞에서 용납할 수 없는 범죄적 행동인 것이며 그 해독성에 있어서 간첩、암해 분자와 큰 차이가 없음을 알아야 한다。

이 외에도 우리 당내에는 당성이 결여된 현상이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으나 그 주요한 몇가지를 렬거하면 이상과 같다。

이것은 모두 소부르죠아적 개인 본위주의 사상과 일제로부터 물려 받은 퇴폐한 사상적 유물들인 것이다。

이것이 우리 당내에 존재하게 되는 그의 주요한 근원의 하나는 일반적으로는 제국주의 진영의 포위와 특히는 공화국 남 반부를 미 제국주의자들이 강점하고 있으며 그의 조종 밑에 리 승만 괴뢰 정부가 존재하는 데로부터 오는 부르죠아적 사상의 압력이다。

공화국 북 반부의 민주 기지의 확대 강화는 미 제국주의자들과 리 승만 매국 도당들에게 치명적인 위협으로 된다。따라서 놈들은 우리 혁명의 물질적 담보인 공화국 북 반부의 민주 기지를 말살하기 위하여『북진통일』의 음모를 계속 진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온갖 기만과 은폐의 방법으로 썩어져 가는 놈들의 사상적 독소를 북 반부에 침투시키며 아직 북 반부에 남아 있는 반동적 요소들을 리용하여 각종 방법으로 파괴、암해 공작을 기도하고 있다。

특히 놈들은 우리 당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외부로부터의 압력과 함께 내부로부터도 와해시켜 보려고 갖은 발악을 다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박 헌영、리 승엽 도당들에게 큰

기대를 걸고 이 악당들을 우리 당 내부에 잠입시켰으나 우리 당의 강력한 투쟁에 의하여 놈들의 망상은 수포로 돌아 갔다。

우리 당이 이 악당들을 폭로 숙청한 것은 물론 큰 승리이다。그러나 이것으로써 놈들이 더는 우리 당을 내부로부터 공격하지 않으리라고 누가 단언할 수 있겠는가?

놈들은 우리 당 대렬내의 불평 분자、동요 분자 및 기타 사상적으로 건전치 못한 분자들을 리용하여 당내에다 자기 세력을 부식하며 우리 당 내부에 간첩 분자들을 계속 잠입시키려고 광분하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서 매개 당원들이 고도의 혁명적 경각성과 당의 원칙을 튼튼히 고수하지 못한다면 어느 때•어느 곳에서 놈들의 함정에 빠질는지 알 수 없는 것이다。

낡은 사상 잔재가 우리 당내에 존재하게 되는 또 하나의 근원은 우리 나라 경제 발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우리 당 대렬의 질적 구성이 낮은 데도 있다。

우리 나라는 八•一五전 락후한 식민지 농업 국가로 있었던 관계로 우리 나라 인구의 절대 다수는 농민들이며 로동 계급도 그가 계급으로 출현한 력사가 짧은 청소한 계급이고 인테리들 중에는 일제하에서 교양 받은 사람들이 적지 않다。물론 해방후 一〇년간의 실지 투쟁과 우리 당의 맑스—레닌주의적 교양을 통하여 그들은 정권의 주인임을 옳게 인식하고 당과 혁명에 충실성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 중 일부 동무들은 아직도 사상적 면에서 낡은 잔재들을 청산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면에 있어서도 소생산과 련결을 완전히 끊지 못하고 있다。이러한 일련의 사실들로 인하여 당내에서 각종 기회주의적 사상과 낡은 생활 풍습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당 내에 모순을 자아내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매개 당원들은 당성 단련을 가강히 전개함으로써 일부 락후하고 견실치 못한 당원들로 하여금 낡고 부패한 사상들을 당내에 끌어 들이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이러한 투쟁이 없이는 우리 당의 건전성을 보존할 수 없으며 그의 전투력을 증진시킬 수 없는 것이다。

三、

우리 당은 창건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 꾸준한 계급적 교양 사업과 실지 투쟁을 통하여、특히 三년간의 간고한 조국 해방 전쟁의 불길 속에서 매개 당원들의 당성 단련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이것으로써 당성 단련이 만족하다고 볼 수 없다。왜냐 하면 당성 단련을 위한 투쟁은 사상 투쟁이며 사람들의 사상 의식은 사회의 물질적 조건의 발전보다 뒤떨어지며 그의 개조는 일조일석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더우기 우리 당은 조국 해방 전쟁 과정에서 우수한 당원들을 다수 상실하고 오늘 현재 다수 당원들은 신

입 당원들이며 특히 四차 전원 회의 이후에 입당한 당원들이 많다。 이러한 당원들 중 일부 동무들은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 사상 의식이 미약하며 당과 혁명의 발전 법칙에 대한 충분한 인식도 부족하다。

이것은 일부 신입 당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전에 입당한 동무들 중에도 부분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만일 이러한 현상들을 극복하지 않는다면 부르죠아 사상의 침입을 막아 낼 수 없으며 당내에 잠입한 불순 이색 분자들과의 투쟁을 성과있게 진행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리용당할 우려도 적지 않다。

이러한 실정에서 만약 매개 당원들이 당성 단련을 등한히 한다면 이는 조국과 인민 앞에 이상 없는 범죄로 될 것이다。

김 일성 동지는 당성을 강화한다는 것은 ——『매개의 로동당원이 당에 대하여 무한히 충실하며 당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혁명의 리익과 당의 리익을 자기의 제일 생명으로 알고 개인의 리익을 희생하고 어느 때、어느 곳、어떤 조건을 물론하고 당의 리익과 당의 원칙을 지키고 일체 부정확하고 옳지 못한 사상들과 견결히 투쟁하며 당 조직 생활과 당 규률을 강하게 지키며 당과 인민과의 련계를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시였다。

이것은 근로 대중을 착취하는 토대 우에 수립된 낡은 사회 제도를 매장하고 착취가 없고 호상 우의적이며 부유한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프로레타리아 리익의 표현이며 그를 위하여 투쟁하는 당원들의 고상한 혁명적 품성인 것이다。

우리 당이 매개 당원들에게 이러한 혁명적 품성을 요구하게 되는 것은 우리 당이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의 위대성으로부터 출발되는 것이다。

우리 당이 종국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산주의 건설은 인류 력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업이며 영광스러운 사업이다。 그러나 이것은 일조일석에 이루어질 수 없는『백년 대계지사』이며 그의 실현은 온갖 계급적 원쑤들을 각 방면으로 타승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이를 위하여서는 매개 당원에게 어떠한 곤난과 희생도 두려워하지 않는 헌신성、혁명에 대한 충실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만일 매개 당원들이 당과 혁명에 대하여 무한한 충실성을 발휘하지 않는다면 미제 침략 세력을 우리 조국의 강토로부터 구축하지 못할 것이며 그의 사상적 잔재들을 청산하며 그의 영향하에 있던 많은 인민들을 교양할 수 없는 것이다。

매개 당원들이 당에 대하여 무한히 충실하다는 것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열광적으로 지지하며 그의 실현을 위하여 물과 불을 헤아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투쟁하며 당과 혁명의 리익을 위하여서는 어떠한 곤난과 애로에도 굴하지 않으며 일상 생활에서의 일거 일동은 모두 당과 혁명을 위한 것으로 되여야 하며 당을 위하여서는

온갖 개인적 리익을 희생하고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 바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그의 두뇌 속에는 어떠한 개인적인 욕망과 목적도 없고 오직 당과 혁명을 위한 것으로만 충만되여 있는 것을 의미한다。

당과 혁명의 리익을 위하여 개인의 리익을 무조건적으로 희생하자면 당과 혁명의 리익을 자기의 제일 생명으로 알아야 할 것이며 이것이 한 개 신념으로 되여야 한다。 이러한 신념은 우리 당원에게 있어서 최고 원칙이며 이는 순결한 프로레타리아 의식의 표현이며 공산주의 도덕의 최고 표현인 것이다。

당원은 당의 리익을 떠나서는 어떠한 개인의 리익과 목적도 추구할 수 없다。 개인의 목적과 리익은 모두 당의 부분적 리익과 목적으로 되여야 한다。

우리 당이 매개 당원들로 하여금 맑스—레닌주의를 습득하며 자기의 정치 실무 수준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라고 강조하는 것도 개인의 명예나 지위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달성케 하려는 것이며 매개 당원들의 사업에서의 성과는 당의 부분적 리익으로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원이 자기의 공명과 출세를 위하여 학습을 하고 공작을 진행한다면 당의 리익과는 배반되는 것이며 이러한 동무들은 당 정책을 투기적으로 집행하거나 나아가서는 당과 혁명의 리익을 의식적으로 배반하게까지 될 수도 있다。

만일 당원들이 자기의 사상 의식 속에 당의 리익은 모든 것을 초월하며 그를 위하여서는 생명까지도 희생하는 것을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영광으로 생각하는 이 원칙이 한 개 신념으로 되여 있다면 그는 혁명 투쟁에서 두려워할 것이 없으며 성실하고 솔직할 것이며 사리 사욕으로 인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을 외곡하거나 태공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는 자기의 리익으로 인하여 동지들과 인민들을 해롭게 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을 성의있고 평등하게 대할 것이며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전가시키지도 않을 것이다。

그는 누구보다 사업에 대한 욕망은 많고 개인 향락에 대한 생각은 없을 것이며 곤난과 애로를 극복하기 위한 투쟁에 누구보다 앞장 설 것이며 부귀와 빈천 앞에 동요하지 않고 혁명적 절개를 고수할 것이며 상부와 권력 앞에 맹목적으로 굴종하지도 않을 것이며 하부와 인민 앞에서 호령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는 개인적인 목적과 리익이란 없기 때문에 남을 무원칙하게 공대하며 아첨할 필요도 없고 남이 무원칙하게 자기를 떠받들고 공대하는 것도 멸시하며 남의 감독이 없어도 항상 근신하며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주책에 유인되지 않을 것이며 자기를 나타내려고도 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당의 리익을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한다면 동지들을 사랑하며 그에 대한 방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며 당과 혁명의 리익을 좀먹는 불순한 요소들에 대하

여서는 누구보다 증오하며 어느 때、어느 곳、어떠한 조건을 막론하고 그를 반대하여 추호도 타협함이 없이 견결히 투쟁할 것이며 당과 혁명의 원칙을 철옹성같이 고수할 것이다。

그는 자기의 위신과 체면으로 인하여 자기의 과오를 숨기지 않고 대담하고 솔직하게 말할 것이며 자기에 대한 남의 비판을 조금도 두려워 하지 않으며 자기도 남의 과오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비판할 것이다。

만일 당원들이 부정확하고 옳지 못한 사상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지 않는다면 그 사상은 점차 당 대렬을 침식하여 당의 전투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당의 리익을 자기의 제일 생명으로 간주하는 확고 불변한 신념을 가지며 불순한 요소들과 견결히 투쟁하는 것은 당성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다음으로 당성의 주요한 요소의 하나는 민주주의적 중앙 집권제의 당 조직 규률을 엄격히 준수하는 것이다。

우리 당은 당과 혁명에 충실한 선봉 분자들의 자각적 부대일 뿐만 아니라 지도자거나 보통 당원이거나 할 것 없이 전 당이 의무적으로 되는 통일적 규률로써 결속된 조직체인 것이다。

만일 당원들이 당의 통일적인 규률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당원들의 행동을 통일할 수 없고 일치한 의지도 가질 수 없으며 당은 사람들의 단순한 집합체로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은 가렬한 계급 투쟁에서 완전히 무장 해제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당과 혁명에 충성을 다하자면 당 규률을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수호하며 언제 어데서나를 막론하고 매사에 있어서 당 로선과 당 조직에 의거하여 행동하여야 한다。

당을 공고히 하며 혁명을 전진시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인민 대중과의 련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대중과의 긴밀한 련계는 우리 당 위력의 원천으로 되는 것이다。 우리 당은 인민 대중 속에서 탄생하였으며 인민에게 복무한다。 따라서 대중을 떠나서는 물을 떠난 고기와 같이 한 시각도 살 수 없다。

이런 데로부터 대중과의 련계를 강화하는 것은 당성의 주요한 요소이다。 인민 대중과의 긴밀한 련계를 보장함에 있어서 가장 주요한 문제의 하나는 우리 당이 혁명적 군중 관점을 소유하는 것이다。

매개 당원들이 진정한 인민의 충복으로 되며 모든 사업을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는 방향에서 처리하며 인민 앞에서 책임질 줄 알며 우리 혁명의 주동력은 인민 대중임을 철저히 인식하고 그들로 하여금 혁명의 주력군임을 자각하도록 설득시키며 인민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며 인민 대중으로부터 진지하게 배우는 이것은 우리 당의 군중 관점이다。

이러한 관점을 소유함이 없이는 대중과의 련계도 강화할 수 없으며 우리 당의 위력을 증진시킬 수도 없다。

끝으로 매개 당원들은 고도의 경각성을 가지고 항상 동원된 태세를 견지하고 있어야 한다。 계급적 원쑤들

은 사방으로 우리를 공격하며 우리의 안일하고 해이된 틈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만일 당원들이 조그마한 성과에 도취하여 자만하거나 안일하여진다면 놈들의 습격은 강화되고 당내 불순한 요소들은 활기를 띠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 일성 동지는 매개 당원들의 당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고귀한 정치적 경각성을 포함시켰던 것이다。

이상과 같은 것이 매개 당원들이 소유하여야 할 혁명적 당성이며 매개 당원들이 이러한 당성을 소유한다면 우리 당내에 잠입한 어떠한 불순、이색 분자도 남김없이 폭로 청산될 것이며 당내 순결성과 단결은 더욱 공고화됨으로써 어떠한 곤난이 닥쳐와도 능히 이겨 낼 수 있을 것이다。

四、

우리 당의 고상한 당성은 일조 일석에 소유될 수 없는 것이며 장기간에 걸친 교양과 단련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 하면 혁명 사업을 하기 위한 혁명적 당원은 현실 사회 밖에서 파견되여 온 것이 아니라 그가 매장하고자 하는 낡은 사회에서 살았고 현재에 있어서도 그의 잔재들과 항상 접촉하고 있음으로써 크나 작으나간에 낡은 사상 의식의 영향을 면할 수 없으며 이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진정으로 고상한 당성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성 단련을 위한 투쟁은 낡은 것과 새 것과의 투쟁이며 내재적인 사상적 모순의 투쟁이다。 즉 우리 당원들의 두뇌 속에 있는 온갖 낡은 사상 의식과 맑스주의적 사상 의식과의 투쟁이며 비프로레타리아적 세계관과 프로레타리아의 세계관과의 투쟁이다。 다시 말하면 매개 당원들의 두뇌 속에 맑스주의적 사상 의식의 지배와 그의 세계관과 인생관의 확립을 위한 투쟁이다。

우리 당의 고상한 당성을 소유하자면 맑스—레닌주의 혁명적 세계관으로 무장하여야 한다。 『맑스—레닌주의는 자연 및 사회 발전 법칙에 관한 과학이며 피압박、피착취 대중의 혁명에 관한 과학이며 모든 나라에서 사회주의 승리에 관한 과학이며 공산주의 건설에 관한 과학이다』(이·브·쓰딸린)。 이는 우리 당의 세계관이며 우리 당은 이에 의하여 지도된다。

따라서 맑스—레닌주의를 소유함이 없이는 혁명적 사상 의식을 소유할 수 없으며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과거 一九二〇년대 조선 공산당이 해산된 것도、현재에 있어서 우리 당내 일부 동무들이 종파주의、가족주의、자유주의、관료주의 및 기타 불순한 사상적 요소들을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 당이 가지는 특수성에도 있지만 결국은 매개 당원들이 맑스—레닌주의로 철저히 무장하지 못한 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은 창건 첫날부터 맑스—레닌주의 교양 사업을 가강히 전개하여 왔으며 당 중앙 위원회 四월 전원 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강조한 것도 그가 가지는 중요성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그의 연구는 우리 혁명의 승리를 위한 것만큼 우리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를 주체로 삼아 연구하여야 한다. 지난 시기 우리 당원들은 일반적으로 우리 나라 실정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였다.

이런 데로부터 일부 당원들은 맑스—레닌주의의 고전적 명제들을 기계적으로 암송은 하면서도 그를 조선 현실에 적용시킬 줄은 모르며 우리의 선조들이 지배 계급을 반대하여 어떻게 투쟁하였으며 그의 고귀한 전통은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고 있으며 일본 제국주의의 가혹한 탄압하에서도 굴하지 않고 과감하게 투쟁한 우리 로동자, 농민들의 혁명 투사들과 인민들이 쌓아 놓은 그 업적의 고귀성을 느끼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해방후 당내, 당외의 복잡 다단한 정세 속에서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우리 당이 조선 인민을 승리에로 인도하여 온 당의 투쟁 력사를 철저히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다.

맑스—레닌주의를 조선 현실에 적용시키기 위하여서는 그의 명제들을 기계적으로 암송할 것이 아니라 그의 기본 정신을 체득하여야 할 것이며 더우기 우리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에 대한 력사를 심오하게 연구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의 과거의 로동 운동 및 농민 운동, 특히 우리 당이 걸어 온 력사와 현재 처하여 있는 내외의 정세들을 옳이 파악함이 없이는 우리 혁명의 승리를 확신할 수 없으며 당내 투쟁을 정확히 진행할 수 없다.

우리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를 연구함에 있어서 특히 당 문헌들과 김 일성 동지의 로작들을 우선 심오하게 연구하여야 한다.

그것들은 맑스—레닌주의를 조선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문헌들이다. 이를 연구함으로써만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고수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동원될 수 있으며 전 당을 통하여 맑스—레닌주의적 사상 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당성을 제고하자면 사상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일상 당 생활에서 표현되는 제 현상들을 연구 분석하고 자기의 사상이 당과 혁명의 리익에 전적으로 부합되는가 아니되는가를 검토하며 이러한 자기 검토를 통하여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당과 혁명의 원칙으로부터 어긋나는 것이 있으면 시정하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사상 투쟁이며 당성 단련인 것이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것이며 이렇게 함으로써만 당내 순결성과 통일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당은 사상 투쟁의 강유력한 무기인 당내 비판과 자기 비판을 강력히 전개할 것을 항상 강조하고 있다.

사상 투쟁을 진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우선 자기 자신이 옳은 당적 립장에 서서 당의 리익과 사업의 발전을 도모할 줄 아는 것이다.

오직 자신이 옳은 립장에 서야만 남의 그릇된 것을 시정하여 줄 수 있으며 자기 자신이 동요하지 말아야 동요하는 사람에게 방조를 줄 수 있으며 오직 자기 자신이 옳은 리론을 소유하여야만 남의 그릇된 리론을 시정하여 줄 수가 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자신이 그릇된 관점을 가지고 투쟁한다면 사상 투쟁이 당을 강화하는 데로가 아니라 당을 혼란에로 이끌어 갈 수 있다.

사상 투쟁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그것을 당의 통일과 단결을 공고히 하며 그의 전투력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진행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당과 혁명에 어떠한 리익을 주는가 하는 데로부터 출발하여 이러 저러한 불순한 사상과 견해를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부 동무들은 이러한 립장에서 문제를 고찰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나 소그루빠의 리해로부터 출발하여 문제를 제기하며 비판을 가하려 한다.

또 일부 동무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잘 알지 못하거나 또 원칙 문제를 제기하지도 못하면서 사소한 사무적인 문제에 대하여 자기 의견을 고집하며 남의 의견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들은 모두 당의 원칙을 떠난 투쟁이며 당을 위한 것도 아니고 당이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사상 투쟁을 전개함에 있어서는 우선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의 원칙을 고수하여야 한다.

사상 투쟁에서 원칙이란 당과 혁명에 리익을 주는 방향에서 문제를 취급 처리하는 그 립장, 견해에 대한 문제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당의 발전 법칙에 근거하여 모든 문제를 관찰하며 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이러한 원칙 문제에 대하여 과오를 범한다면 실제 문제에 있어서 개별적이며 우연한 과오만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계통적이며 일상적인 과오를 범하게 된다. 따라서 원칙 문제에 대하여서는 아무리 적은 문제라 할지라도 도저히 소홀히 할 수 없으며 이와는 어떠한 융화 타협도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원칙 문제가 아닌 순전히 사무적인 문제에 대하여서는 의견을 달리 하는 동무들과 타협할 수 있다. 또 이런 문제에 대하여 자기 의견을 지나치게 고집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니다.

당내 사상 투쟁은 당원들 속에 있는 낡은 사상을 퇴치하고 당원들로 하여금 당의 로선과 정책을 옳이 파악하고 그의 실현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교양하는 방향에서 진행되여야 한다.

그러나 일부 동무들은 이것을 망각하고 어떤 당원들에게 있는 낡은 사상과 당의 원칙적 로선과 정책에 위반되는 것을 반대하여 투쟁하지 않고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투쟁하고 있다.

이런 동무들은 과오를 범한 동무들의 사업을 가지고 론하는 것보다 지엽적이며 사소한 언행이나 생활 문제

를 가지고 시비하기 좋아 하며 남의 장점은 보려고도 하지 않고 결함만 더 많이 찾아 내려고 애쓰며 언사에 있어서도 점잖지 못하고 보다 조포한 것이 더 좋은 것으로 생각하면서 핏대를 높이며 모욕적인 언사도 꺼리지 않고 인신 공격을 가하기 좋아 한다。

이러한 투쟁으로써는 과오를 범한 동무들로 하여금 자기의 과오를 진정하게 뉘우치고 시정할 수 없게 하며 당내 공기를 산란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단결을 약화시키며 종파주의 잔재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따름이다。

당내 사상 투쟁은 당원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이러저러한 부정확한 사상과 견해들을 버리고 당적 사상과 견해를 가지도록 하는 교양인 것만큼 자기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사상과 견해가 그릇된 것이고 당적 사상과 견해가 옳다는 것을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느끼는 때에라야만이 달성될 수 있다。

이렇게 하자면은 털끝만한 개인적인 감정도 포함함이 없이 오직 당과 혁명을 위하는 정당한 립장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사상과 방법의 부정확성을 친절하고 구체적으로 해설하여 주어야 한다。

또한 이는 사상 개조인 것만큼 당 회의에서 한바탕 비판이나 하여 주는 데서 완성될 수는 없으며 기계적인 강압적 방법으로써는 더욱 불가능하다。 오직 인내성있는 설복과 실지 투쟁을 통한 교양 사업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진행됨으로써만 달성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동무들은 한 두 번 강력한 비판이나 하면 시정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사상적으로 접수되지 않는 것도 강압적으로 과오를 인정케 하려고 애쓰며 조직적 결론을 내리기 좋아 한다。

특히 조직적 대책으로써 과오를 인정케 하며 그것으로써 사상 투쟁을 진행하려는 책벌주의적 경향은 우리 당내에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동무들은 과오를 범한 동무들에 대하여서나 사상적으로 리해되지 못하는 동무들에 대하여 책벌이나 철직을 주면 과오는 저절로 시정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책벌이나 철직을 주었다 하여서 자기의 사상과 견해의 부당성을 납득할 수는 없는 것이며 그는 오직 친절하고 구체적인 설복을 통하여서만 달성될 수 있다。 물론 당 단체들은 자기의 오유를 고집하는 당원들에 대하여 일정한 한도내에서 조직적 결론을 내릴 수 있으며 또 때에 따라서는 당적 책벌을 적용하는 것이 전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당 책벌은 어디까지나 교양적인 수단으로 되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당원들이 자기의 과오를 심각히 느끼고 시정할 용의가 충분하다고 볼 때에는 구태여 책벌을 적용하지 않아도 좋을 것이다。 책벌을 적용하는 문제보다 과오를 느끼고 시정케 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며 이러한 후에 조직적 결론을 내리기는 ·용이한 것이다。 또 그러한 때에 필요에 따라 책벌을 적용한다면 그 교양적 의의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그러

나 이것을 람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더우기 본인이 접수되지 않는 것을 강압적으로 책벌을 적용하는 것은 잠가해야 한다。

김 일성 동지가 당 중앙 위원회 제四차 전원 회의에서 가르치신 바와 같이 당 규률 강화를 책벌로써 대행하는 것은 『우리 당의 규률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케하는 것이다』。

사상 투쟁은 당의 원칙을 고수하는 립장에서 공정하게 비판을 전개하며 그 비판하는 태도나 언사에 있어서도 될 수 있는대로 대항적으로 나가지 말고 친절하고 온화한 설복적인 방법으로 토론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조직적 결론을 내리지 말며 성실하고 솔직하게 정면에서 내 놓고 교양 주는 방향으로 진행되여야 한다。

당원들의 당성을 제고함에 있어 중요한 문제의 다른 하나는 일상적으로 당 생활을 충실히 하는 것이다。

당성은 말과 행동의 일치、 리론과 실천의 통일체인 것이다。 따라서 당성은 말로써가 아니라 실지 행동에서 표현되여야 한다。 즉 일상적인 당 생활에서 당 조직 규률을 준수하고 당 결정 지시를 정확히 집행하며 당내 불순한 요소들과 견결히 투쟁하며 일체 비조직적 행동을 감행하지 않는 데서 표현되여야 한다。

당원들의 당 생활을 강화함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초급 당 단체를 강화하는 것이다。 초급 당 단체는 김 일성 동지가 지적한 바와 같이 『당원을 교양하며 당원들의 사상을 단결하며 당원들의 일상 생활을 지도하는 기본 조직』이기 때문이다。

초급 당 단체들에서 매개 당원들의 당 생활을 장악 통제하며 당내 민주주의를 보장하고 비판과 자기 비판、 특히 밑으로부터의 비판을 강력히 전개하는 것은 당원들의 당성을 제고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맑스—레닌주의 교양 사업과 일상적인 당 생활에서 사상 투쟁을 강화한다면 당원들 속에 있는 낡은 사상 잔재를 청산하고 매개 당원들의 당성을 제고시키며 불순、 이색 분자들의 침입으로부터 당을 수호하며 당 조직 규률을 강화하고 전 당은 사상의 일치、 의지의 일치、 행동의 일치성을 더욱 보장할 수 있다。

이리함으로써만 전 당은 당 중앙 위원회와 김 일성 동지의 주위에 강철같이 결속될 것이며 당 중앙으로부터 하부 당원들에 이르기까지 맑스—레닌주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될 것이며 어떠한 대시련이 닥쳐 와도 하등의 동요와 혼란도 없이 우리 당 앞에 제기된 세기적 과업을 능히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멀지 않아 우리 당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전체 조선 인민에게 있어서 력사적 사변으로 되는 우리 당 제三차 전 당 대회를 맞이한다。

전체 당원들과 당 단체들은 당성 단련을 더욱 가강히 전개함으로써 김 일성 동지가 지도하는 우리 당의 사상 체계에서 우리 대렬내의 순결성을 보장하며 단결을 더욱 강화하고 전 당을 통하여 통일과 단결의 사상으로 일관된 강철의 대오로써 三차 전 당 대회를 맞이하여야 하겠다。

평양시 당 관하 문학 예술 선전 출판 부문 열성자 회의에서 한 보고

지난 一월 一三일부터 一四일까지의 이틀 동안에 걸쳐 평양시 당 관하 문학 예술 선전 출판 부문 열성자 회의에서 한 한 설야 동지의 보고 전문

한 설야

동무들!

우리의 당적이며 계급적이며 인민적인 문학 예술은 사회주의 레알리즘의 기치를 높이 들고 해방후 우리의 혁명 사업의 유력한 일환으로 되여 자기의 빛나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또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조선 로동당의 문예 정책의 정당성,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원수의 문학 예술에 관한 지도의 정확성을 실증합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원수의 二〇개조 정강에서 우리 문화 건설의 기본 방향이 제시된 후 一九四七년 三월에 우리 당 중앙 위원회 제二九차 상무 위원회는 『북 조선에 있어서의 민주주의 민족 문화 건설에 관하여』라는 결정을 채택하였습니다.

력사적 중요성을 띤 이 결정에서 당은 『로동자, 농민, 인테리겐챠, 인민 대중 자신이 새로운 조선문화의 창조자로서 나서게 되였다』고 지적하면서 우리 문학과 예술이 새 생활의 건설의 길에 들어 선 우리 인민들에게 있어 가장 예리한 사상적 무기라는 것을 천명하였으며 우리가 건설할 민족 문화를 『민주주의적인 민족 문화』로 규정함으로써 문학과 예술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결정에서 우리 당은 또한 민족 문화 유산 계승에 관한 방향을 정당하게 제시하였으며 선진 쏘련 문화의 섭취가 우리 문학과 예술 발전에서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된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一九四七년 九월에 채택된 우리 당 중앙 위원회 제四三차 상무 위원회의 결정에는 우리 문학 예술의 창작 방향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여 있습니다.

이 결정에서 당은 인민들을 우리 당의 위대한 사상으로 교양함에 기여할 수 있는 사실주의적 작품들을 창작할 것을 우리 작가, 예술가들에게 호소하였으며 인민들의 모범이 되며 구감이 되는 전형적인 새 인간들, 우리 시대의 긍정적 인간들을 찬연한 예술적 형상으로 밝혀 내며 우리 생활의 진실을 뵈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두 결정은 우리 당이 해방 직후부터 실시한 문예 정책의 기본 방향을 다시금 천명한 것으로 됩니다.

해방후 당의 '직접적 지도하에 창건된 북 조선 문학 예술 총동맹은 바로 당의 이러한 문예 정책의 성과적 실천을 위하여 조직된 것이였습니다.

북 조선 문예총은 조선 프로레타리아 예술 동맹(카프) 출신의 작가, 예술가들을 그 핵심으로 하여 전체 조선의 작가, 예술가들을 당의 주위에 결속시켰습니다.

북 조선 문예총이 『카프』 출신의 작가, 예술가들을 핵심으로 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위대한 사회주의 一〇월 혁명의 영향하에 一九一九년 三월 일본 략탈자들을 반대하여 일어난 조선 인민들의 첫 봉기가 있은 이래 조선 로동 계급이 반일 민족 해방 투쟁의 령도 계급으로서 혁명적 진출을 개시하며 맑스—레닌주의 혁명 사상이 침투 전파되기 시작한 사회적 환경에서 민족 해방 투쟁의 일익적 임무를 담당하고 조직된 것이 『카프』였습니다. 『카프』는 一九二五년에 창건된 이후 一九三〇년대 김 일성 원수의 항일 무장 투쟁의 영향으로 강화 발전되였으며 사회주의 레알리즘의 창작 방법에 립각하여 반일 민족 해방 투쟁에 기여한 혁명적 반일 문학 예술 단체입니다.

一九二七년 『카프』가 채택한 맑스—레닌주의적 신강령에는 『우리는 무산 계급 운동에 있어서 맑스주의의 력사적 필연성을 인정하고 무산 계급 운동의 일부분인 무산 계급 예술 운동에 의하여 봉건적, 자본주의적 관념을 철저히 배격하고 전제적 정치에 항쟁하여 계급 의식을 인식시킬 것』이라고 지적되여 있으며 전체 『카프』 활동가들은 전투적 강령을 받들고 혁명적 투쟁을 전개하였으며 우수한 작품들로써 우리의 현대 문학사를 빛내인 것입니다.

북 조선 문예총은 바로 이 고귀한 전통을 합법칙적으로 계승하면서 우리 당의 옳바른 문예 로선을 집행하여 거대한 업적을 쌓았습니다.

우리 작가, 예술가들은 자기들의 조직 대렬을 강화 발전시키면서 혁명 발전의 매 력사적 단계에서 당이 제시한 로선과 정책을 옳게 받들고 우수한 문학 예술 작품들을 창작하였으며 수백만 근로 대중을 당과 혁명의 리익에 무한히 충실한 선진 투사로 육성하는 데 이바지하였으며 사회주의적 의식과 고상한 도덕적 품성

으로 교양함에 충실히 복무하였습니다。

평화적 민주 건설 시기에 벌써 우리 작가、예술가들은 자기의 민족 고전들을 정당히 계승 발전시키면서 위대한 쏘련의 선진 문화의 찬란한 달성을 모범으로 삼고 사실주의적 방법에 의거한 고상한 작품들을 적지 않게 내놓았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 문학과 예술은 긍정적 주인공에 관한 당의 교시를 자기의 창작에서 정당히 반영하면서 우리 시대의 새 전형들을 창조하였으며 인민에게 복무하는 문학과 예술의 기치를 더욱 높이였습니다。

자기의 찬란한 성과들로써 우리 문학 예술은 우리 인민들의 장엄한 민주 건설 투쟁에서 적극적인 참가자로 되였으며 온갖 종류의 부르죠아 이데올로기와 온갖 반사실주의적 경향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정의의 조국 해방 전쟁 시기에 우리 문학 예술은 전체 인민을 전쟁 승리에로 동원하기 위하여 정열적인 창조 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이러한 투쟁 업적을 쌓음에 있어서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원수의 교시는 항상 강령적 지침으로 되였는바 一九五一년 六월 작가、예술가들에게 주신 격려의 말씀은 맑스—레닌주의 미학의 원칙과 레닌적 당성의 명제를 조선 현실에 구체화시킨 력사적 문헌으로 됩니다。

김 일성 원수께서는 자기의 격려의 말씀에서 『우리 작가、예술가들은 인간 정신의 기사로서 자기들의 작품에 우리 인민들이 가지고 있는 숭고한 애국심과 견결한 투지와 종국적인 승리를 위한 철석같은 결의와 신심을 가장 뚜렷하게 표현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작품이 싸우는 우리 인민의 수중에서 가장 강력하고도 예리한 무기가 되여야 하며 전체 인민을 최후의 승리에로 고무 추동시켜야 할 것이다』라고 가르치였으며 구체적인 창작 방향들을 제시하였습니다。

수령의 교시에 고무된 작가、예술가들은 자기들의 빛나는 작품들로써 전쟁 승리에 충실히 복무하였습니다。

전후 시기에 들어 와서 전후 복구 건설의 전 인민적 투쟁을 특징짓는 창조적 로동의 쩨마들이 우리 문학과 예술을 더 한층 풍부하게 하여 주었습니다。

전후 건설의 장엄한 투쟁 속에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사회주의 기초 건설의 영광스러운 길로 전진하는 우리 로동 계급과 근로 인민들의 로력적 위훈과 우리 농민들의 집단화의 새 생활이 전후 문학과 예술의 주되는 내용으로 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문학 예술은 전후 복구 건설 투쟁의 적극적인 참가자로 되였습니다。

우리 문학과 예술의 이와 같은 발전은 우리 문학과 예술이 바로 혁명 투쟁의 전위적 참가자의 문학 예술이라는 것을 말하여 주는 것입니다。

인민의 투쟁을 떠나서、당의 리익을 떠나서 우리 문학과 예술은 있을 수 없으며 또한 발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 문학 예술은 경애하는 수령께서 명백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싸우는 우리 인민들의 수중에서 가장 강력하고도 예리한 무기』로 되였으며 우리 작가、예술가들은 당의 믿음직한 이데올로기 부대로 되였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문학과 예술은 광범한 인민 대중의 사랑을 획득하였으며 그의 찬란한 성과로써 전세계 진보적 문학 예술의 영광스러운 일원으로 되여 인류 문화의 보물고에 보람있는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학과 예술의 성과는 참으로 자랑할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우리 당 문예 정책의 찬란한 승리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커다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당 문예 정책의 빛나는 승리에 대하여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문학과 예술이 거둔 이와 같은 승리는 결코 우리 문학 예술이 평탄한 대로를 걸어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성과들이 바로 우리 혁명의 원쑤들과의 치렬한 투쟁 속에서 거두어졌다는 것을 리해하는 일입니다。

해방후 우리 나라에 조성된 복잡한 정세、특히 남반부를 강점하고 있는 미 제국주의자들과 직접 장기간 상치되여 있는 조건에서 적들은 파괴 암해 공작을 책동하며 반동적 부르죠아 사상을 우리 인민들 속에 침투시키며 공화국 북 반부의 인민 민주 제도를 전복하기 위하여 광분하여 왔습니다。

적들을 반대하는 치렬한 계급 투쟁은 우리의 이데올로기 전선에서도 첨예하게 진행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당과 혁명에 막대한 해독을 끼친 박 헌영、리 승엽 간첩 도당은 문학 예술 분야에서도 반혁명적 파괴 행위를 장기간에 걸쳐 감행하였으며 문학 예술을 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도구로 전락시키며 그를 통하여 반동적 부르죠아 사상을 인민들 속에 전파할 것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문학 예술 분야에서의 사상 투쟁은 바로 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 흉책과 적대적 사상을 배격 분쇄하는 투쟁으로 되였습니다。

해방후 미제 침략 군대가 남 반부를 강점한 조건하에서 일찍부터 미제의 간첩이였던 박 헌영、리 승엽 도당은 미제의 어용 정권을 수립할 매국 배족적 음모를 획책하면서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 『문화 로선』을 날조하였습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의 지시 밑에 박 헌영、리 승엽 간첩 도당은 우리 당의 문예 정책을 반대하기 위하여 반역자 림 화、김 남천、리 원조 등과 부르죠아 반동 문학가 리 태준 등을 규합하여 반혁명적 문화 단체를 조작하는 동시에 계급적 립장을 고수하여 온 량심적이며 사상적으로 견실한 작가、예술가들을 배제함으로써 문학 예술 부면의 조직을 분렬시켰습니다。

一九四五년말에 북 조선 작가들은 당의 위임으로 서

울에 가서 수차에 걸쳐 남 북 조선 문학가, 예술가들의 련석 회의를 열고 문화 로선에 대한 토의를 거듭한 결과 문학 예술 단체들의 통일을 보게 되였습니다。

그러나 一九四五년 一二월 말에 당의 위임을 받고 서울에 가서 공작하던 작가들이 평양으로 돌아 온 뒤 림 화, 리 태준 도당은 소위 「청년 작가 대회」라는 것을 하루 밤 사이에 날조하여 옳바른 문예 로선에 립각한 통일 조직을 파괴하였으며 미제의 어용 문학 예술을 수립하는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것은 이 시기에 박 헌영 도당이 날조한 「문화 로선」에서 력력히 표현되고 있는바 거기에서 이 자들은 「우리가 건설할 민족 문화는 계급 문화여서는 안된다」고 공공연히 선포함으로써 문학 예술의 당성, 계급성을 부정하고 미제에 복무하는 반동적 부르죠아 문학 예술의 수립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박 헌영 도당의 이러한 반혁명적이며 반인민적인 「문화 로선」은 우리 당이 제시한 당적이며 계급적이며 인민적인 옳바른 문예 로선 앞에서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없었으며 우리 당원들을 선두로 한 진보적 작가, 예술가들의 투쟁에 의하여 수포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박 헌영 도당은 미 제국주의자들의 사촉하에 공화국 북 반부에서 당의 정확한 문예 정책에 립각하여 정상적인 자기 발전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당적이며 인민적인 문학 예술을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며 그것을 자기들의 수중에 장악할 것을 시도하였습니다。

이러한 목적 밑에 그 선발대로 파견된 자가 리 태준이며 계속하여 림 화, 김 남천 등이 공화국 북 반부로 잠입하였습니다。

이러한 파업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하여 미 제국주의자들이 리 태준, 림 화, 김 남천 등을 선발한 것은 우연하지않습니다。

리 태준은 본래 이름난 부르죠아 반동 작가입니다。

그는 로동 계급의 조직적 문화 대렬인 「카프」를 반대할 목적으로 출현한 부르죠아 반동 문화의 조직체인 「九인회」의 조직자이며 그의 지도자입니다。

그는 「九인회」를 조직하고 일제의 주구로 나서서 혁명적 문화 단체인 「카프」를 적극적으로,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주동자로 되였을 뿐만 아니라 一九四○년대에 일제가 만든 「문인 보국회」의 주요 간부로서 일제에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해방전에 발표한 리 태준의 모든 작품들은 반동적인 사상과 반사실주의적 수법으로써 일관되여 있습니다。

그는 「문학의 정치로부터의 자립」을 떠들면서 소위 허위적인 순수 예술의 주창자로 나섰으며 일제를 반대하는 민족 해방 투쟁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고취하였으며 인민들 속에 퇴페와 타락을 선동하였습니다。

해방전 그의 작품의 중요한 주인공들은 모두 부르죠아 인테리, 무능력자, 생식주의자, 장님, 아편쟁이, 매소부, 패덕한들입니다。

이러한 인물들을 그린 그의 장편 소설 「제二의 운명」, 「별은 창마다」, 「딸 삼형제」, 「청춘 무성」 등은 절망과 우울, 패덕과 에로찌즘으로 엮어졌으며 특히 「청춘 무성」에서 그는 종교 신자이며 생식주의자이며 졸부인 주인공 「원 선생」을 「존경할만한 자선가」로 묘사함으로써 부르죠아지를 반대하는 로동 계급의 투쟁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선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녀주인공을 통하여 일본 녀성들과의 협조를 뵈여 주면서 소위 「내선 일체」사상을 고취하였습니다。

단편 「가마귀」에서는 폐병으로 죽음을 기다리는 한 인테리 녀성의 애수와 절망을 묘사하였으며 「복덕방」과 「녕월 령감」 등에서는 무위 도식하며 세상을 한탄하고 실망에 허덕이는 인간 쓰레기들을 묘사하였으며 「농군」에서는 일제의 만주 침략을 합리화시키면서 조선 인민과 중국 인민과의 국제주의적 친선을 파괴하려고 하였습니다。

해방 직후 리 태준은 「해방 전후」라는 단편 소설을 썼는데 이 소설에서 그는 우리의 해방자인 쏘련을 비방하며 미제가 요구하는 그러한 부르죠아 정권이 서는 것을 환영하도록 인민들을 설복하려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자가 미제와 박 헌영 도당에게 선발된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림 화는 다 아는 바와 같이 「카프」를 일제에게 팔아먹은 흉악한 반역자이며 미제의 간첩입니다。 그는 해방전에 리 태준과 함께 허다한 작품들로써 우리 인민에게 해독을 끼친 자이며 역시 「문인 보국회」의 간부로서 일제에게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림 화는 형식주의의 세기말적 변종인 다다이즘으로 자기의 문학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프로레타리아 시인의 가면을 쓰고 한 때 「카프」진영에 잠입한 반혁명 분자입니다。

그의 해방전 시 작품들은 혁명으로부터의 리탈을 선전하며 민족 해방 투쟁의 괴멸을 축원하며 인민들 속에 비애와 고독과 절망의 감정을 부식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흉악한 반혁명 문학입니다。

그는 시 「우리 오빠와 화로」에서 혁명 투쟁이 마치 또 비참한 운명으로 전락하는 것처럼 외곡 선전하였으며 「네거리의 순이」와 「다시 네 거리에서」는 혁명으로부터의 변절을 찬양하면서 조선 인민들에게 남은 것은 오직 일제에의 굴종이 있을 뿐이라는 것을 강조하였으며 시집 「현해탄」에서는 인간 증오 사상, 꼬쓰모뽈리찌즘, 타락과 퇴페주의, 고독과 세기말적 절망의 감정들을 류포하였습니다。

八·一五 해방과 함께 발표한 첫 작품인 그의 시「발자국」은 흉악한 반쏘 사상과 앞으로 건설될 새 생활에 대한 저주의 감정으로 일관되였습니다。

해방후 그가 미제를 일제에 대신하여 새로운 상전으로 모시면서 그들의 충실한 고용 간첩으로 전락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하여 림 화는 미 제국주의자들의「문화 로선」을

집행하는 흉악한 앞잡이로 되였습니다。

김 남천 역시 리 태준、 림 화 등의 문학 활동과 긴밀히 련결된 자입니다。

그는 해방전 장편 소설 『대하』에서 일제하의 조선 인민의 생활을 외곡하고 인민들의 반일 투쟁 의식을 마비시키려고 시도하였으며 『소년행』、 『남매』 등 단편들에서 색정주의를 선전하였으며 『처를 때리고』、 『오디』、 『경영』 등에서는 소부르죠아지들의 도덕적 타락과 극단의 개인주의 사상을 전파하였습니다。

해방 직후 발표한 소설 『원뢰』에서는 주색에 빠진 어떤 기독교 신자가 인력거에 앉아 집으로 돌아 가면서 성경책 구절을 외우는 이야기를 엮어 놓음으로써 미제를 반대하는 남 조선 인민들의 투쟁 의식을 마비시키려고 시도하였습니다。

『카프』를 중심으로 하는 해방전 진보적 문학은 일체 반동적 부르죠아 이데올로기와 온갖 반사실주의와의 첨예한 투쟁 속에서 성장 발전하였는바 해방후 우리의 당적 문학 예술이 자기들의 해방전 성과들을 계승 발전시키면서 사상 투쟁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든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미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인 반역 도당들이 미제의 침략 정책을 찬양하면서 우리 인민들 속에 반동적인 적대 사상을 침투시키려는 책동을 타도 분쇄하는 투쟁이였습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파견된 림 화 도당이 공화국 북 반부의 문학 예술 분야에서 감행한 범죄적 문학 활동은 해방후 미제의 침략 도구로 복무하고 있는 남 조선의 반동적 문학 예술의 일환을 이루는 것이며 따라서 남 조선에 있어서의 미제의 침략적 문화 정책의 한 표현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남 조선에서는 어떤 『문학 예술』이 횡행하고 있습니까?

『해외 문학파』의 일원이였던 류 치진은 그의 희곡 『三八 단두대』에서 쏘련 군대를 중상하였으며 또한 다른 희곡 『장벽』에서 북 조선에 창설된 진정한 인민 민주 제도를 발악적으로 비방하면서 미제의 지령에 의하여 이 제도를 『전복』하려는 흉악한 반역 행위를 『애국 운동』으로 묘사하였습니다。 반동 작가 황 순원은 장편 소설 『카인의 후예』에서 북 조선에서 실시한 토지 개혁을 악의에 찬 독설로써 중상 비방하였으며 반동 작가 렴 상섭은 一九五一년에 쓴 그의 단편 소설 『탐내는 하꼬방』에서 전쟁의 첫 계단에 있어 영웅적 인민군대에 의하여 해방된 서울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내무원들의 고상한 모습을 모욕적으로 묘사하였으며 김 진수는 그의 희곡 『길가에 핀 꽃』에서 미제가 남 조선에서 인민들을 대포밥으로 징모하는 사업을 극구 찬양하였습니다

리 태준과 『九인회』의 영향하에서 작가로 된 김 동리는 그의 단편 『인간 동의』에서 실련에 의한 자살을 『제三 휴매니즘』으로 묘사하였으며 역시 『九인회』의

졸개이며 리 태준의 제자인 최 태응은 그의 단편 『애배배의 비애』에서 암소를 보고 달려 드는 황소처럼 잠자는 자기 어머니에게 달려 드는 천치 추물을 그리였으며 반동 시인 모 윤숙은 그의 시 『달맞이』에서 『그대와 나』 둘이서 달이 넘도록 산이 어둡도록 히히덕거리며 동물적인 본능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 순간을 더 없이 아름다운 것으로 떠벌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인간에 대한 증오를 선언하며 인간이란 개념을 『사람이라고 이름하는 동물』이란 개념으로 바꾸기를 희망하는 미제식 문학의 요구에 대답하는 경향들입니다。

남 반부의 반동 문학은 한편에 있어서 위대한 쏘련과 중국을 비롯한 인민 민주주의 국가들을 중상 비방하면서 『북진 통일』을 고취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미국식 『생활 양식』과 인간의 동물성에 대한 추악한 선전에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인간들 속에 찌니즘을 배양하며 그들을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시키는 추악한 역할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남 조선에서 부르죠아 반동 문학은 미제의 조선 침략을 적극 방조 찬양하는 리 승만 매국 역도들의 사상적 무기로 되였습니다。

미제의 모든 침략 행위는 이 문학에 의하여 적극적인 방조를 받고 있으며 이 문학에 의하여 찬양되고 있습니다。

이 문학을 거쳐 미 제국주의자들은 그들의 침략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지를 마비시키려 하면서 그 창날을 또한 북 조선에 돌리는 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벌써 해방후 첫 시기에 고독과 절망과 비탄과 무기력을 선전하는 사상적 독소들이 북 조선에서의 인민 민주주의 제도의 『불가능성』과 『비현실성』을 선전할 목적으로 북 조선 인민들 속에 기여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영향하에서 一九四六년에 함흥에서 『문장 독본』이 출판되고 그해 겨울에 원산에서 『응향』(凝香)이라는 시집이 출판되였습니다。 이 책들에 수록된 작품들이 어떻게 우리 인민들과 우리의 새 생활을 비방하였으며 북 조선에 창설된 인민 민주주의 제도를 반대하여 나섰던가는 아직도 우리의 기억에 생생합니다。

시집 『응향』에서 한 시인은『안개를 생식하는 짐승』에 대하여 떠벌였으며 다른 한 시인은 새 생활의 창조에 궐기한 우리 인민을 『뛰며 닫고 웃고 우는 가없은 인생들』이라고 비방하였으며 또 다른 한 시인은 『진리、 진리、 찾아도 못찾는 진리、 앞산 넘어 가면 찾을 듯』하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이러한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 문학 작품을 용납할 수 없었으며 이에 대하여 제때에 무자비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당 중앙 위원회 제二九차 상무 위원회 결정서는 민주주의적 민족 문화의 방향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집『응향』과 『문장 독본』 등에서 표현된 부패한 무사상성과 정치적 무관심성을 폭로 비판하면서 『위대한 민주주의적 현실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예술』의 신봉자들이 우리 대렬에 남아 있을 자리가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규정하였으며 문학 예술에 있어서 당성과 계급성의 원칙을 고수할 것을 전체 작가, 예술가들에게 호소하였습니다.

북 조선 문예총은 당의 이러한 결정에 립각하여 그에 고무되면서 일체 부르죠아 사상과의 투쟁을 강화하였으며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온갖 반동적 문학 사상을 타도 분쇄하면서 해방후 평화적 건설 시기에 벌써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허다한 성과작들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 문학 작품들에는 제반 민주 개혁의 성과들이 여실히 반영되였으며 새 생활을 건설하는 우리 인민들의 창조적 로력 투쟁이 진실한 화폭으로 재현되였습니다. 매개 작품들에는 고상한 애국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정신이 일관되여 흐르고 있으며 남 반부를 강점하고 우리 인민들을 자기들의 식민지 노예로 만들려는 미 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들에 대한 불타는 증오와 평화적 조국 통일에 대한 리념이 소리 높이 울렸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작가들이 우리 당의 위대한 사상으로 고무되였으며 평화와 진보와 민주주의를 위한 투사들로 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작품들은 공화국 북 반부에 강력한 민주 기지를 공고화하는 투쟁에 있어서 전체 근로 인민들을 힘차게 고무 추동하였으며 우리 인민들을 당과 정부의 주위에 튼튼히 결속시킴에 있어서 커다란 업적을 쌓았습니다.

우리의 당적 문학이 이와 같은 승리적 전진을 계속하고 있을 때 우리의 원쑤들도 자기들의 책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북 조선에 파견된 리 태준은 박 헌영 도당의 『문화 로선』에 의거하여 먼저 문예총 내의 불순 분자였으며 이미 남 조선으로 도주한 양 명문, 박 남수 등을 자기 주위에 규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문예총 내외에서 온갖 파괴 활동을 진행하면서 일련의 반동적인 작품들을 창작하였습니다.

리 태준은 그의 중편 소설 『농토』에서 과거의 농민 생활을 외곡하면서 일제와 봉건 지주들을 반대하는 농민들의 애국적 투쟁을 비방하였으며 과거 반동 지주의 충복을 해방후 농촌에서의 전형적인 새 일군으로 등장시키여 북 조선에서 실시한 토지 개혁의 진실을 모독 중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민들의 민족적 정서를 파탄시킴으로써 꼬쓰모뽈리찌즘을 선전하였습니다. 또한 그의 단편 『호랑이 할머니』는 우리의 인민 정권을 무시하고 인민 민주 제도를 비방하는 극악한 반동 작품입니다.

그는 이 소설에서 몽매와 미신의 화신인 『호랑이 할머니』를 마치 해방후 농촌에서의 긍정적 인물인 것처럼 내세움으로써 우리의 근로 인민들을 모독하였으며 기형적이며 성격 파산자인 『호랑이 할머니』의 형상을 통하여 북 반부 인민들을 우매하고 비문화적인 사람들로 선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一九四八년에 북 조선에서 문맹이 기본적으로 퇴치되였음에도 불구하고 一九四九년에 있어서 二〇세대가 사는 한 농촌에 七九명의 문맹자가 있다고 씀으로써 북 조선 인민들을 전부 문맹으로 외곡하여 민주 개혁의 제반 성과들을 말살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해방후 그의 일련의 창작 활동은 해방전의 창작 활동의 연장이며 그 악랄한 『발전』의 표본입니다. 그는 미국 전도 부인의 『자비심』을 선전하는 해방전 작품인 『천사의 분노』를 재판하여 북 조선 인민들에게 숭미 사상을 주입하려고 시도하였는바 그는 이렇게 과거의 낡은 작품들을 다시 발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과거의 낡은 주인공들을 다시금 재현시키는 데 극력 노력하였습니다.

즉 그의 해방전 작품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주인공인 『녕월 령감』은 해방후 그의 첫 작품인 『해방 전후』에서 『김 직원』으로, 『먼지』에서는 『함뫼 선생』으로 재현되였습니다.

우리 시대의 새로운 긍정적 인간들과는 아무런 공통성도 없는 이러한 인간 쓰레기들을 다시금 끌고 나온 그의 목적이 무엇을 의미하는 가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북 반부 인민들의 새 생활에 대한 악의로 충만된 단편 『먼지』에서 리 태준은 五년간이나 북 조선에서 살아 오면서 제반 민주 개혁 성과들을 직접 목격한 주인공 『한뫼 선생』이 그래도 어느 편이 좋은지 몰라 남 조선으로 가 보는 이야기를 썼는바 남 조선에 갔다 돌아오는 길에 『한뫼 선생』은 누가 쏘았는지도 모를 총에 맞아 三八선 중간에서 머리를 남 반부로 돌린채 죽어 버린 것으로 소설의 끝을 맺음으로써 북 반부 현실에 대한 비방은 그 극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쟁 시기에 리 태준의 문학 활동은 더욱 악랄성을 띠고 전개되였습니다. 그는 『미국 대사관』에서 우리 인민 군대를 무도덕하고 무규률적인 군대로 중상하기 위하여 일시적 강점 시기에 적들이 우리 애국자들을 감금하였던 피비릿내나는 창고에 미국 포로를 가두어 넣고 우리 측이 모진 박해를 가하는 것처럼 외곡하여 묘사함으로써 우리 측 포로들에 대한 적들의 야수적 살인 도살 정책을 합리화시켰으며 또 다른 단편 『고귀한 사람들』에서는 조 중 친선이 가지는 고상한 국제주의 정신을 중국 청년과 조선 처녀와의 저속하고 색정적인 련애 감정으로 대치시켜 놓았습니다.

이 밖에도 그는 전쟁 시기에 『두 죽엄』, 『백배 천배』 등 일련의 오체르크와 단편들을 썼는 바 이 작품들에서 그는 영웅적 인민군 전사들을 모욕하였으며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우리 인민이 진행하는 전쟁의 정의

적 성격을 말살하려 하였으며 전쟁 승리를 위한 우리 당과 정부의 시책을 중상하였습니다。

미제의 고용 간첩인 박 헌영 도당은 그들의 『문화로선』을 실현시킬 목적 밑에 리 태준보다 좀 늦게 림 화, 김 남천, 리 원조 등 일련의 제국주의 종복들을 끌어 들였습니다。 이 자들도 또한 파괴적인 암해 활동을 계속하면서 해독적인 작품들을 썼습니다。

림 화는 그의 시 『너 어느 곳에 있느냐』에서 전선에 간 자식을 생각하여 한정 없이 초조하여진 아버지의 마음과 『종이장처럼 얇아진』 어머니의 가슴, 그리고 온 집안이 전선에 간 자식을 생각하여 잠 못 이루는 광경을 그렸으며 『바람이여 전하라』에서 『머리 더욱 희고 가슴 더욱 얇아진』 어머니를 그렸으며 『흰 눈을 붉게 물들인 나의 피 우에』에서 우리의 마뜨로쏘브 영웅의 애국주의를 파렴치하게 외곡하면서 영웅의 어머니를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는 듯이 외로운 어머니로서 절망적으로 뵈여 주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어머니들을 무기력하고 초조에 떨고 고독에 잠겨 절망과 영탄과 통곡으로 세월을 보내는 그려한 어머니로 모욕하였으며 우리 후방 인민들의 영웅적 투쟁 모습을 가련한 고역자의 모습으로 묘사함으로써 후방의 공고성을 파괴하려 하였습니다。

김 남천은 그의 단편 소설 『꿀』에서 우리 인민군 정찰병을 비방적으로 묘사하면서 우리 인민 군대의 고상한 동지적 전우애를 모독하였으며 부상당한 한 정찰병이 죽음 앞에서 비겁하며 향수에 잠기여 애상의 세계에서 허덕이는 광경을 뵈여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작품 전체를 값싼 쎈찌멘딸리즘으로 일관시키면서 김 남천은 비애와 절망의 독서를 전파하여 인민들에게 염전 사상과 패배주의 사상을 고취하려 하였습니다。

림 화, 리 태준, 김 남천 도당의 이 모든 해독적인 작품들은 그것이 바로 박 헌영 도당의 반혁명적 『문화로선』이 지향하는 길이였으며 따라서 그것은 그들의 모든 파괴 행위와 완전히 결부되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작품들로써 우리 문학의 앞길을 가로 막으려 하였으며 사실주의 문학의 기치를 높이 든 문예총을 내부로부터 파괴하려 하였습니다。

박 헌영 자신의 고백에 의하면 一九五一년 四월에 그는 림 화를 불러다가 문예총을 탈취하라고 지시하였는바 이것은 곧 박 헌영 도당이 우리 당과 인민 정권을 파괴 전복하기 위한 반인민적 간첩 활동에 문학 예술을 리용하며 우리 당의 문예 정책을 파탄시키고 림 화, 리 태준, 김 남천 등을 위시한 반동 작가들을 통하여 반동적 부르죠아 사상을 침식시켜 인민들의 혁명 의식을 마비시키며 미국 침략자들에게 사상적 방조를 주려고 책동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더러운 미국의 머슴군들이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이 자들의 흉악한 파괴 활동에도 불구하고 당의 정확

한 문예 정책은 승리의 전진을 계속하였으며 당과 정부와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원수의 주위에 철석같이 결속된 우리 작가, 예술가들의 정치 사상적 통일은 더욱 강화되였으며 우리의 사회주의 레알리즘의 기치는 보다 더 찬란히 휘날렸으며 인민들 속에서 우리 문학이 수행하는 거대한 사상, 교양적 역할은 가일층 제고되였습니다。 그것은 지난 조국 해방 전쟁 시기에 우리 문학이 쟁취한 찬연한 성과들과 업적들만으로써도 충분히 증명됩니다。

전쟁 시기에 우리 문학의 당성은 더욱 단련되고 강화되였으며 싸우는 인민들의 수중에서 더욱 강력한 무기로 되였습니다。

미 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정의의 조국 해방 전쟁 행정에서 우리 인민들이 발휘한 대중적 영웅주의와 고상한 애국주의는 우리 작품들 속에 찬연하게 구현되였으며 우리 문학은 영웅적 인민들과 함께 영웅적 문학으로 진출하였습니다。」

조국에 대한 뜨거운 사랑, 당과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 원쑤들에 대한 불타는 증오, 가혹한 시련과 곤난을 극복하는 용감성과 불굴의 정신, 인민 민주주의 제도의 불패의 생활력,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이 우리 작품의 매 페지들을 거류와 같이 관통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문학은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정의의 투쟁에 궐기한 인민들의 가슴 속에서 투쟁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불타 오르게 하였으며 인민들의 심장을 당과 조국과 경애하는 수령에 대한 더욱 높은 충성심으로 고동치게 하였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림 화, 리 태준, 김 남천 도당이 우리 인민들의 투지를 마비시키며 그들을 패배주의 사상으로 물젖게 하기 위하여 감행한 온갖 파괴 행위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비렬한 짓이였는가를 명백하게 말해 줍니다。

그것은 멸망의 운명을 밟은 자들이 자기의 무덤을 깊이 파는 결과를 가져 왔을 뿐이며 세찬 거류를 거슬리려다가 그 속에 빠져 버리는 비참한 운명을 초래하였을 뿐입니다。

우리의 당적 문학 예술은 반역 도당들의 파괴 행위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과 경애하는 수령의 지도를 받으면서 보무 당당히 전진하였으며 계속 전진하고 있습니다。

력사적인 당 중앙 위원회 제五차 전원 회의 이후 우리 당이 조직 사상적으로 더욱 강화되고 당내에서 사상 투쟁이 치렬하게 전개됨에 따라 당 단체들과 당원들에 의하여 박 헌영, 리 승엽 도당의 반당적, 반인민적 간첩 행위는 백일하에 폭로되였으며 그들은 전 인민적인 준엄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 흉악한 간첩 도당이 다시 머리를 들고 일어설 수 없다는 것은 극히 명백합니다。

그러나 이 반역 도당의 숙청은 우리의 사상 투쟁이

끝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박 헌영, 리 승엽 도당의 졸도인 림 화, 리 태준, 김 남천 등의 부르죠아 반동 사상과 결탁한 사람들이 문학 예술 분야에서 우리 당의 옳바른 문예 정책의 실천을 반대하여 나선 사실과 관련을 가지며 림 화, 리 태준 도당이 뿌린 사상적 독소가 아직도 깨끗이 청산되지 않은 사실과 결부됩니다.

그 첫 장본인은 당의 사상 전선과 문학 예술 분야에서 자기의 세력을 확장하여 출세주의적 야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림 화 도당을 지지 옹호하면서 반당적인 종파 행위를 감행한 허 가이이며 허 가이가 죽은 후에는 박 헌영, 리 승엽 도당과 허 가이의 반당적 행위의 악영향을 숙청할 데 대한 당의 중요한 방침들을 옳게 집행하지 않으면서 도리여 허 가이의 종파적 관료주의의 『틀』을 그대로 계승한 박 창옥, 박 영빈 동무들이며 그들의 주위에 규합되여 사상 전선과 문학 예술 분야에서 당의 정책을 고수할 대신에 부르죠아 반동 사상과 결탁하여 당에 막대한 해독을 끼친 기 석복, 전 동혁, 정 률 동무들입니다. 이들은 박 헌영 도당이 파견한 림 화, 리 태준, 김 남천 등과 사상적으로 결탁하여·당의 문예 정책에 충실한 작가들을 공격하는 비당적 행위를 감행하였으며 림 화, 리 태준 도당의 창작 활동을 적극 지지 옹호하여 나섰습니다.

그것은 『농토』를 비롯한 리 태준의 일련의 해독적인 작품들이 문예총의 합평도 없이 그들에 의하여 무원칙하게 우리 출판물들에 계속 발표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였으며 특히 당시 로동 신문 주필로 있었던 기 석복 동무에 의하여 당보가 림 화, 리 태준, 김 남천 도당의 반동적인 작품들에 많은 지면을 제공하게 되였던 사실만으로써도 명백합니다.

기 석복 동무는 一九四九년에 쓴 그의 론문에서 리 태준의 해독적인 작품인 『호랑이 할머니』를 해방후 조선 문학에서의 최대의 『걸작』으로 추켜 세우면서 『… 우리 인민들을 새로운 사상으로 교양하는 사업에 절대한 방조를 주리라고 믿는다』고 썼습니다.

민주 건설의 성과를 말살하려 하였으며 기형화한 인물을 그림으로써 근로 인민을 비속화하였으며 인민 민주주의 제도를 랭소한 이 작품에 대하여 기 석복 동무가 말한 『새로운 사상』이란 틀림 없이 우리가 말하는 새로운 사상과는 반대되는 사상인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우리 당이 근로자들 속에서 진행하고 있는 계급 교양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는 낡은 부르죠아 사상으로의 교양에 대하여 말하였으며 근로자들을 기형화하는 것을 그 어떤 『집단주의 교양』으로 설교하려 하였습니다.

기 석복 동무는 또한 저렬한 부르죠아 자연주의로 꾸며진 김 남천의 작품 『꿀』을 적극적으로 찬양하여 나섰습니다.

『꿀』의 내용에 대하여 말하면서 그는 『이러한 일은 얼마든지 있으며 또 있을 수 있는 전투적 생활의 한

에피소드』이라고 하였으며 『이와 같은 전투적 에피소드들은 전선에 나가보지 못한 후방 인민들에게 전설과 같이 들려질 것이다』라고 썼습니다.

이것은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기 석복 동무와 같은 비당적 견지에 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김 남천의 『꿀』이 『고상한 사상성』을 가진 『사실주의 작품』으로 될 수 있고 따라서 그와 같은 『에피소드』가 그야말로 그 무슨 『전설』과도 같이 생각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 석복 동무는 그의 일련의 『평론』들에서 우리 시대의 사회적 힘의 본질을 부정하며 그것을 덮어 버리며 그것에 항거하는 그의 부르죠아 사상의 립장을 스스로 폭로하였습니다.

그의 이와 같은 비당적인 사상적 립장은 그로 하여금 림 화, 리 태준, 김 남천 도당파의 사상적 결탁에로 나아가게 하였으며 그들의 파괴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비호 방조자로 되게 하였습니다.

반동 시집 『응향』의 『시인』이며 그의 조직자의 한 사람인 정 률 동무도 또한 림 화, 리 태준, 김 남천 도당파 사상적으로 결탁하였으며 그들의 작품에 대한 열렬한 찬양자로 등장하였습니다. 그는 기 석복 동무와 한 가지로 리 태준의 『호랑이 할머니』를 극구 찬양하는 론문를 썼으며 심지어 해방후 一〇년간의 문학, 예술을 총화하는 론문에서 림 화, 리 태준, 김 남천 도당의 사상적 영향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상적 독소를 전파하여 온 박 종식 동무를 로골적으로 찬양하여 나서기를 서슴치 않았습니다.

전 동혁 동무는 림 화, 리 태준 도당의 작품에 대한 찬양자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창작 생활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자로 되였는바 이 사실은 바로 그의 부르죠아 사상과 리 태준의 『사상』과의 결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은 기 석복, 전 동혁, 정 률 동무들의 종파적 행위의 표현과 림 화, 리 태준, 김 남천 도당의 파괴 행위가 사상적으로 결탁되였다는 것을 말하여 주며 그들 서로의 리익을 위하여 호상 협력하였다는 것을 말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또 다른 면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박 창옥, 기 석복, 전 동혁, 정 률 동무들은 한편에 있어서 림 화, 리 태준, 김 남천 도당의 작품에 대한 적극적인 찬양자로, 그 창작에 대한 열성적인 협조자로 등장하였으며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우리 당과 인민에게 복무하는 우수한 사실주의적 작품들에 대한 파괴적인 타도자로 등장하였습니다.

박 창옥 동무는 一九四九년 전국 문학 예술 축전에서 수개월간의 심사를 거쳐 채택한 축전 심사 위원회의 결정을 자기의 직위를 리용하여 전복하였습니다.

이 비당적 행위로 말미암아 수다한 성과작들이 축전에서 제외되였으며 그중에는 로동 계급의 전형을 형상

화한 황 건의『탄맥』과 박 웅걸의『류산』과 같은 우수한 신인들의 작품이 포함되여 있었습니다。 사태의 엄중성은、 말살된 이 작품들에는 민주 건설의 찬란한 성과가 정당히 반영되여 있으며 새 생활의 창조에 궐기한 영웅적 로동 계급의 형상이 창조되여 있는 거기에 있습니다。

부분적 결함은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품들의 기본 빠뽀쓰의 긍정성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 문학의 긍정적인 성과에 대한 부정은 홍 순철 동무의 시집『새 전설의 보표』와 리 동규 동무의 단편소설집에 대한 정 률 동무의 곤봉식『평론』과 리 찬 동무의 시집『승리의 기록』에 대한 전 동혁 동무의『평론』에서 아주 로골적으로 표명되였습니다。

이 평론들이 순전히 우리 문학의 긍정적 성과들을 말살하며 우리 문학의 참된 발전의 길을 막기 위한 그들의 비당적 활동의 리익을 위하여 계획적으로 조직되였다는 것은 더 의심할 바 없습니다。

기 석복 동무는 그의 론문『우리 문학 평론에 있어서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에서 우리 문학의 성과의 하나인 정 문향 동무의 시『그는 이렇게 걸어 갔다』를 자연주의 작품으로 타도하였습니다。 물론 이 시에는 부분적 결함이 있었으며 그 결함은 시인에 의하여 곧 수정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적 결함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의 긍정적인 빠뽀쓰는 조금도 꺾이지 않았으며 널리 독자들의 애독을 받았으니 우리는 여기서 기 석복 동무의 작품에 대한 견해가 인민들의 견해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 여기에 기 석복 동무의 부르조아 사상이 숨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一九五二년에 김 남천의 작품『꿀』을 저렬하고 유해한 자연주의의 작품으로 정당히 지적 비판한 엄 호석 동무의 평론을 기 석복 동무가 전기 평론에서 타도하여 나섬으로써 자연주의를 비호하였으며 사실주의를 훼방하는 결과를 가져 온 사실로써 더욱 증명됩니다。

이 동무들이 우리 문학에 끼친 해독적인 작용의 다른 측면은 민족 고전의 정당한 계승、특히 우리 문학의 혁명적 전통의 계승에 대한 비당적 방해 활동입니다。 그들은 우리 당 문예 정책의 중요한 한 측면인 문화 유산의 정당한 계승 사업을 부정 또는 반대하여 나섰으며 특히『카프』의 전통을 말살하려 하였습니다。

그들은 리 태준 등과 더불어『카프』의 전통을 부정하여 나섰으며『카프』작가들의 수다한 로작들을 비방 중상하였습니다。

특히 종파 의식에 사로잡힌 정 률 동무는 해방후 一○년간의 문학을 개괄하는 그의 최근 론문에서 해방후 문학이 마치 어떠한 전통도 없이 자라난 것처럼 사태를 묘사하려 하였으며、 또 다른 그의 론문『시인과 현실』에서는 조선에서 사회주의 레알리즘이 해방후에 처음 발생된 듯이 주장함으로써 위대한 사회주의 一○월

혁명의 영향으로 벌써 一九二○년대 이후에 조선에서 발생한 사회주의 레알리즘 문학 예술의 발전과 그 전통을 부정 말살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조선에서 서사시 쟌르 역시 해방후 어느 한 시인에 의하여 처음 창시된 듯이 말함으로써 우리의 우수한 민족 유산 속에 포함되여 있는 풍부한 서사시 전통을 말살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우리의 문학적 전통에 대한 정 률 동무의 허무주의적 태도는 우리 인민들이 유구하게 소유하여 온 고상하고 풍부한 정신적 자질과 우리 로동 계급의 해방전 혁명 투쟁에 대한 부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문학 예술의 영광스러운 혁명적 전통인『카프』문학에 대한 악의에 찬 비방은 기 석복 동무의 론문『레알리즘의 제 특징』에서도 보조를 같이 하여 표명되고 있습니다。 이 론문에서 기 석복 동무는 해방전에는 마치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레알리즘 문학이 발생될 수 없었던 것처럼 력사를 위조하면서『일제 시대에 있어서 조선 문단에서의 기본적 방향은 비판적 사실주의였다』(평론집『문학상의 제 문제』四七—四八페지)라고 말하였습니다。

기 석복 동무의 견해에 의하면 해방전에 자기의 걸출한 로작들로써 로동 계급에 복무하였으며 우리 인민의 혁명 투쟁에 기여한『카프』문학은 결국 비판적 사실주의에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한 것으로 됩니다。 이와 같은 허무주의적 견해는 그것이 불가피적으로 정신 문화 창조에 있어서의 로동 계급의 역할의 부정에로 나아가게 되며 해방후 거대한 발전의 길에 들어 선 우리 문학이 마치 아무런 자기의 선진적 전통이 없이 허공에서 탄생된 듯이 주장하는 문학사 위조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문학의 혁명적 전통에 대한 이러한 악선전은 물론 그들의 종파적 활동의 리익에 그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문예총이『카프』의 혁명적 전통을 계승하고 있고 또 우리 현대 문학의 창시자들인『카프』작가들이 문예총에서 핵심을 구성하고 있는 조건하에서 문예총을 쟁취하기 위한 자기들의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카프』의 전통을 말살하는 것이 필요하였으며『카프』작가들로써 형상된 핵심을 무너뜨리는 것이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보는 바와 같이 이 동무들의 이 모든 활동들은 우리 당 문예 정책과 부합되지 않으며 우리 문학과 예술의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습니다。

당은 일찍부터 박 창옥 동지에게 문예총을 당적으로 강화할 데 대하여 여러번 지시를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동무들의 이와 같은 비당적 활동에 대하여도 당은 루차 충고와 비판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박 창옥 동지는 당의 지시를 충실히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동무들은 반동 작가들을 옹호 례찬한 자기들의 죄행을 반성하려고 하지 않았으며 우

리의 당적이며 계급적인 문학 예술 발전에 일정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여 그것을 합리화시키려고 하였습니다。

만일 당의· 지시가 철저히 집행되고 이들의 비당적인 책동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림 화、리 태준、김 남천 등의 반동적 부르죠아 사상을 숙청하는 투쟁에서 이미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들은 당과 중요한 국가 기관들에서 차지하고 있는 자기들의 지위를 리용하여 우리 당 사상 전선에 반동적 부르죠아、사상을 도입 전파함으로써 우리의 이데올로기 분야에 막대한 해독을 끼치였으며 반대로 우리의 적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태들은 우리가 지난 기간에 거둔 거대한 성과들에도 불구하고 당이 요구하는 수준에서 부르죠아 사상을 반대하는 우리들의 투쟁을 원만히 전개하지 못하게 한 원인으로 됩니다。

동무들!

력사는 멸망하는 계급이 결코 온순하게 그 멸망의 운명을 받아 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여 줍니다。멸망자들은 그들의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여 새 것을 반대하며 멸망을 회피하여 보려고 발악합니다。

부르죠아지는 멸망의 운명으로부터 자신을 구출하여 보려고 시도하면서 부르죠아 문학과 예술의 온갖 조류들을 동원하였으며 또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문화면에 있어서도 치렬한 계급 투쟁의 정형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매개 민족 문화에는 두 가지 문화가 있다』고 한 레닌의 말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이 명제는 계급 사회에 있어서의 문학의 정확한 리해를 위하여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이 명제에 의하여 우리는 부르죠아 문학의 퇴폐、타락、내지는 운명 지어진 멸망을 풀어 내고 있으며 동시에 새 시대와 새 건설의 이데올로기적 담당자로서의 프로레타리아 문화의 승리를 또한 찾아 내고 있습니다。

또 이 명제는 프로레타리아만이 진정한 자기의 민족적 리익에 복무할 수 있는 그러한 문학을 창조할 수 있다는 것과 프로레타리아만이 자기의 인민적 문화 전통—진정한 고전 문화의 전통을 옳게 계승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정당히 인식하게 합니다。

우리 문학의 력사도 또한 레닌의 이 명제와 규정의 완전한 정당성을 증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 로동 계급은 사회 발전에서의 자기의 고상한 역할로써 민족 고전의 정당한 계승자로 되였습니다。

그에 의하여 우리 고전 문학의 고상한 사상적 가치—인민에게 복무하는 문학의 기치가 더욱 높이 휘날려지게 되였습니다。

해방되기 훨씬 전에 벌써 조선의 혁명적 이데올로기의 전사로 나섰으며 사회주의적 프로레타리아트의 리상을 의식하고 있었으며 위대한 사회주의 一〇월 혁

명과 위대한 쏘베트 문학의 영향을 받았으며 의식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로동 계급의 투쟁에 자기의 창작을 바친『카프』작가들과 해방후에 우리 당의 령도하에 우리 문학의 혁명적 전통을 이어 당적 문학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기의 고상한 예술 작품들로써 당과 로동 계급에 복무하였으며 계속 복무하고 있는 우리 작가들은 민족 고전과 전통의 정당한 계승자로 되였으며 우리 현대 문학의 참다운 기수로 되였습니다。

일제의 온갖 박해와 부르죠아 문학 조류들의 집중공격에도 불구하고 해방전에 있어서『카프』작가들은 조선 현대 문학의 창시자로서의 그의 력사적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였습니다。

『예술을 위한 예술』의 허위적인 구호에다가 자기의 당성을 당당히 대치시키면서『카프』작가들은 인민에게 복무하는 문학의 기치를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쏘련 작가 동맹의 탁월한 활동가들은 작년 八월 二四일『카프』창건 三〇주년에 제하여 조선 작가 동맹에 보낸 축전에서『외래 압제자들의 혹심한 탄압과 야수적 검열 제도를 무릅쓰고 탁월한 조선 작가들은 당시 이미 용감하고 근로를 사랑하는 조선 인민의 념원을 반영한 훌륭한 사실주의 작품들을 창작하였다』고 썼던 것입니다。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조선 인민의 투쟁과 자유로운 민족 문학 예술의 기치를 높이 든『카프』의 전통이 해방후 우리 문학에서 정당히 계승 발전된 것은 꽃나무에 꽃이 피는 것처럼 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리 태준 일당과 그를 비호한 몇몇 동무들이『카프』를 비방 중상하는 데 광분하였으며 또한 그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는 것을 적극적으로 거부 방해하여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학 예술은 당과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원수의 옳바른 령도를 받들고 자기의 혁명적 전통을 발전시키며 일찌기『카프』문학과 예술이 높이 들었던 인민에게 복무하는 고귀한 문학 예술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문학과 예술은 그의 뛰여난 공적으로써 근로자들의 리익을 수호하며 침략적이며 인간 증오적인 제국주의 이데올로기를 반대하여 고상한 애국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와 인류의 평화와 친선을 위한 투쟁의 리념을 고수하면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해방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문학이 걸어온 길은 영웅적 인민들과 함께 걸어 온 승리의 길입니다。

우리 문학은 날로 공고 발전되는 우리 인민 민주주의 제도의 승리의 기록이며 우리 인민들의 고상한 사상、풍부한 감정、철석같은 의지、아름다운 품성、튼튼한 정치 사상적 단결의 거대하고 찬연한 화폭들입니다。

우리 문학은 항상 고도의 혁명적 정열로써 우리 당의 정책을 구현시킴에 있어서 적극적 방조자로 되였으며 혁명 사업의 유력한 일익을 담당하고 새 것의 성장 발

전과 낡은 것의 쇠멸을 촉진함에 있어서 자기의 사상 교양적 역할을 충실히 집행하였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혁명적 발전 과정에서 력사적 구체성을 가지고 진실하게 반영한 우리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학은 우리 인민들의 모범으로 되며 구감으로 되는 긍정적 인물들、당적 인간들의 형상들을 허다하게 창조하였으며 우리 인민들을 곤난을 모르고 난관을 극복할 줄 아는 불굴의 용사들로、사회주의적 새 인간들로 교양함에 커다란 업적을 쌓았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문학은 오늘 당과 국가의 리익 이외에는 다른 어떤 리익도 알지 못하며 모든 것을 혁명 승리에 바치는 문학으로 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당의 문예 정책의 정당성과 그 승리를 시위하는 것으로 됩니다。

우리 문학과 예술의 원쑤들은 우리 문학의 성과들을 도저히 말살할 수 없으며 당과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원수의 옳바른 령도를 높이 받든 우리 문학과 예술의 승리적 전진을 결코 막을 수 없었으며 또 앞으로도 막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성과들에 도취하거나 우리의 성과들을 파괴하려는 온갖 부르죠아 사상과의 투쟁을 늦추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앞에 조성되고 있는 정형은 우리의 성과를 더욱 공고 발전시키며 우리의 전진을 더 빠르게 만들기 위하여 부르죠아 사상과의 투쟁을 더욱 더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 헌영、리 승엽 간첩 도당이 문학 예술 분야에 뿌린 악독한 사상적 독소는 아직도 완전히 청산되지 못하였으며 그 사상적 악영향이 계속 남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미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이 공화국 북반부에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의 물질적 담보로 되는 사회주의 기초 건설이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두려워 하며 우리의 승리적 전진을 가로막기 위하여 전쟁 도발을 다시 획책하며 각종 파괴 공작을 책동하는 동시에 반동적 부르죠아 사상을 침투시키기에 광분하고 있다는 것을 잠시도 망각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목적 밑에 미 제국주의자들은 오늘 남 조선에서 온갖 부르죠아 반동 작가、예술가들과 더불어 과거 리 태준이 조직 지도한 『九인회』의 계승자인 반동적 부르죠아 문학 예술인들을 규합하여 퇴폐적이며 세기말적인 색정주의、인간 증오 사상、끄쓰모뽈리찌즘、전쟁 선동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극악한 미국식 문학 예술을 인민들 속에 전파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조국이 남 북으로 갈린 조건하에서 남 반부를 그의 온상으로 삼고 있는 이러한 부르죠아 반동 문학 예술의 각종 조류들이 림 화、리 태준、김 남천 도당의 사상적 악영향이 잔존하는 조건을 리용하여 자기들의 더러운 창날을 항상 우리에게로 돌리고 있다는 것

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미제의 이데올로기적 종복으로 된 남 조선 반동 문학 예술은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써 그 독소를 우리에게 뿌리려 하며 우리 문학과 예술의 전진을 방해하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남 조선의 반동적인 문학 예술은 미국식 생활양식을 선전하면서 우리의 청년들이 미 제국주의자들의 사상적 노예가 될 것을 설교하고 있으며 리 승만 매국 역도의 『북진 통일』을 선전하는 수단으로 되여 청년들을 미제의 대포밥으로 내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민들의 사상과 투지를 마비시키기 위하여 썩어 빠진 부르죠아 사상을 류포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식 문화——이것은 바로 살인과 깽의 문화이며 우리의 민족적 독립을 말살하는 침략적인 문화이며 아편과 색정의 문화이며 타락과 퇴폐와 몰락 과정에 있는 부르죠아 문화입니다。 이러한 미국식 문화、반동적인 부르죠아 이데올로기、자연주의、형식주의 등이 우리의 당적이며 계급적이며 인민적인 민족 문화와 사회주의 레알리즘 문학 예술에 맞서려고 하며 우리의 전진에 지장을 주려고 합니다。 해방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문학 예술이 걸어 온 빛나는 승리의 기록은 바로 이러한 미국식 문화、부르죠아 이데올로기와의 첨예한 투쟁 과정에서 쟁취한 것임을 말하여 줍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직접 자기들의 종복들을 총동원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부르죠아 침략 사상을 전파하고 있으며 한편 우리의 내부에 잔존한 부르죠아 이데올로기에 발붙이려 하면서 자기들의 음흉한 목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상 전선에서 우리 인민의 원쑤들에게 계속 심대한 타격을 주어야 하며 그들이 우리의 내부에서 발붙일 촌토의 자리도 없게 하기 위하여 온갖 부르죠아 이데올로기의 사소한 표현에도 혁명적 경각성을 높여 그것들을 제때에 폭로 분쇄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문학 예술 분야에서 막대한 해독을 끼친 림 화、리 태준、김 남천 도당을 폭로 숙청한 것은 미 제국주의자들의 사상적 종복들에 대한 우리의 승리이며 사상 전선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업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교훈으로 됩니다。

해독적인 시집 『응향』에 대하여 말할 때에 우리는 이 시집에 대하여 적당한 비판 사업을 조직하였으나 이 시집의 조직자들을 끝까지 적발 폭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향』의 조직자의 한 사람인 정 률 동무와 같은 부르죠아 문학 청년으로 하여금 계속 우리 대렬 속에서 해독적인 작용을 놀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와 똑 같은 것을 또한 림 화、리 태준、김 남천 도당을 폭로하는 우리 문학 예술의 투쟁에 대하여서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투쟁에서 우리는 당의 문예 정책을 외곡하는

일련의 방해 공작으로 인하여 이 악당들의 사상적 잔재를 계속 숙청하는 사업을 원만히·조직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사상 전선에서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작가、예술가들 앞에는 사상 전선을 더욱 공고히 하며 온갖 부르죠아 문학 조류들과의 투쟁을 더욱 강화하며 우리 문학 예술 분야에 아직도 남아 있는 비당적 요소들과 해독적 사상을 남김 없이 적발 폭로하는 과업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주의 레알리즘 문학 예술의 당성、계급성、인민성을 고수하기 위하여 림 화、리 태준、김 남천 도당이 우리 문학 예술 분야에 끼쳐 놓은 부르죠아 사상 독소를 숙청하는 군중적 사상 운동을 광범히 조직 전개하여야 하며 그것을 장기적이며 계속적인 투쟁으로 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민들을 더욱 견고하게 사상적으로 무장시키며 우리의 사상 전선에 다시는 어떠한 반동 분자들이 기여 들어와 어떠한 형태와 방법으로써든지 해독을 끼치지 못하게 하도록 하는 현실적 담보로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사상 전선과 문학 예술 분야에서 주되는 투쟁 과업은 부르죠아 사상과 미국식 반동 문화의 침습을 반대하는 데 있으며 모든 투쟁은 여기에 집중할 것이며 부르죠아 사상과 결탁하고 융화하는 어떠한 시도들에 대하여서도 견결한 투쟁을 전개하는 데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문예 전선에서 계급적 교양 사업을 더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첨예한 계급 투쟁 속에서 문학 예술의 창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민의 원쑤들이 우리의 사상 사업을 와해시키기 위하여 온갖 파괴 공작을 책동하며 썩어 빠진 자본주의 사상을 침투시키기 위하여 광분하고 있는 조건하에서 우리 작가、예술가들이 만일 로동 계급의 사상과 혁명 정신으로 튼튼히 무장되여 있지 못하며 우리의 사상 의지의 순결성과 통일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바로 원쑤들에게 빈틈을 제공하는 것으로 됩니다。

우리들은 일체 낡은 사상 잔재를 뿌리채 불태워 버리는 치렬한 사상 투쟁을 더욱 강력하게 전개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상 투쟁을 전개함에 있어서 우리 당 중앙 위원회 四월 전원 회의 문헌은 우리의 강령적 지침으로 됩니다。 이 문헌은 우리들에게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혁명적 민주 기지인 공화국 북 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기초 건설을 위한 력사적 위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우리들이 나아갈 방향과 제 과업을 천명하였습니다。 이 거대한 위업의 성과적 달성을 위하여 이 문헌은 전체 근로 대중이 우리의 전진 운동을 저해하는 일체 낡은 사상 잔재를 숙청하고 맑스—레닌주의 사상、사회주의 의식으로 튼튼히 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주의 문화를 건설하는 혁명 전사들이며 인민들을 사회주의 건설에로 고무 추동하는 인간 정신의 기사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투사들이 응당 갖추어야 할 혁명적 투지와 사상적 무장을 완비하여야 하겠습니다。

미제의 침해로부터 자기의 인민 민주 제도를 영예롭게 수호한 전체 조선 인민들은 위대한 쏘련과 중국을 비롯한 형제적 제 국가 인민들의 원조하에 사회주의 기초 건설을 위하여 전후 인민 경제를 속한 기한내에 복구 건설하며 평화적 조국 통일의 위업 달성을 위한 치렬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웅적 로동 계급은 우리 인민 경제의 핵심인 중공업과 경공업 및 기타 분야에서 건설과 증산의 거대한 로력적 성과들을 쟁취하고 있으며 근로 농민들은 알곡 증산을 위한 전 인민적 투쟁에 궐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기적으로 령세 분산되였던 개인농으로부터 협동 경리에 광범히 단합되고 있으며 협동 조합의 조직 경제적 강화를 위하여 투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우리 인민들이 당과 정부와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원수께서 가르치시는 길로 승리적으로 전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주며 우리 나라의 발전 도상에서 새 질적 변화를 가져 오는 중요한 력사적 단계를 걷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 줍니다。

우리 작가、예술가들에게는 오늘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장엄한 공업 건설의 전체 면모와 농업의 사회주의적 개조 운동을 찬연한 예술적 형상으로 밝혀 내며 우리의 위력한 력사적 현실을 진실하게 반영할 사명이 부과되여 있습니다。

우리는 작가、예술가들에게 주신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원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자기들의 창조 사업을 더욱 활발히 전개함으로써 전체 근로 인민들을 사회주의 기초 건설을 위한 창조적 로동에로 고무 추동하며 평화적 조국 통일의 위업 달성에로 궐기시키며 이 도상에 가로 놓인 모든 곤난과 애로들을 극복하는 불굴의 혁명 정신으로 교양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 작가、예술가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원수의 고전적 문헌들과 당의 정책을 심오하게 연구 체득하며 맑스—레닌주의 미학·리론에 정통하며 고귀한 민족 문화의 혁명적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며 선진 쏘베트 문화와 세계의 진보적 문화에서 성실하게 배우고 그 우수한 경험들을 광범히 섭취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근로 인민의 생활 속으로 깊이 침투하여 현실 생활의 진실을 파악하며 모든 재능과 지혜와 정열을 다하여 조국과 인민이 요구하는 고상한 사상—예술성을 가진 문학 예술 작품들을 많이 창작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해방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당의 정확한 문예 정책과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원수의 직접적인 지도와 교시를 높이 받들고 거대한 창조적 성과들을 쟁취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과들을 공고 발전시키며 우리가 높이 든 사회주의 레알리즘의 기치와 문학 예술의 레닌적 당성 원칙을 더욱 튼튼히 고수하며 빛내여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혁명 사업은 우리 전체 작가, 예술가들에게 더욱 커다란 사명과 책임을 부과하며 우리 사회의 줄기찬 전진 운동은 우리들에게 잠시의 정체도 용허하지 않습니다.

우리 전체 작가, 예술가들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 위업을 위하여 총궐기한 전체 인민들의 힘찬 투쟁의 고무자로 되며 슬기로운 교양자로 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 작가, 예술가들은 우리 시대의 인간들의 새 모습을 형상화한 찬연한 작품들을 더 활발하게 들고 나와야 하며 우리 문학 예술의 보물고를 더 빛내여야 하겠습니다.

나는 우리 작가, 예술가들과 전체 문화 활동가들이 이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우리 문학과 예술의 보다 높은 발전에 기여하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로농 동맹의 강화와 농민들에 대한 우리 당의 시책

강 호 식

로동 계급과 농민의 공고한 동맹은 우리 인민 민주주의 제도의 생활적 기초이며 우리 혁명의 과업 수행에 있어서 승리의 확고한 담보이다.

맑스—레닌주의는 로동 계급의 령도하에서의 로농 동맹이 낡은 사회 제도를 청산하고 새 사회를 건설하는 투쟁에서의 결정적 력량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로농 동맹에 관한 맑스—레닌주의 리론의 정당성은 위대한 쏘련 및 인민 민주주의 제 국가 인민들과 공산당 및 로동당들의 투쟁 경험에 의하여 확증되고 있다.

과학적 사회주의의 창시자들인 맑스와 엥겔스는 프로레타리아트의 혁명 승리의 필수 조건으로서의 동맹군의 문제, 즉 농민 문제에 특별한 의의를 부여하였다.

맑스와 엥겔스의 사상은 제국주의의 새로운 력사적 조건하에서 레닌과 쓰딸린에 의하여 창조적으로 발전되였는바 레닌은 프로레타리아트가 인민적 혁명에서 령도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혁명의 승리에 리해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프로레타리아트의 지도 밑에 투쟁할 준비가 되여 있는 믿음직한 동맹자가 필요한바 그러한 동맹자는 바로 농민 대중이라고 말하였다. 레닌은 일찌기 一九〇五년에 『민주주의를 위하여 싸우는 철저한 전사는 오직 프로레타리아트 뿐인 것이다. 프로레타리아트는 그의 혁명적 투쟁에 농민 대중이 가담하는 조건 밑에서만 민주주의를 위하여 렬전 련승의 전사로 될수 있는 것이다』(『민주주의 혁명에 있어서의 사회 민주주의자들의 두 가지 전술』 조선 로동당 출판사판 七九페지).

이와 같이 프로레타리아트가 농민을 전취하는 문제는 혁명에서 프로레타리아트의 헤게모니를 보장하며 따라서 혁명의 승리를 보장하는 필수 조건으로 된다.

한편 농민은 프로레타리아트와의 리해 관계의 기본

적 일치로 인하여 민주주의 및 사회주의 혁명에서의 프로레타리아트의 가장 견실한 동맹자로 될 수 있다。 농민들은 오직 프로레타리아트의 령도하에서만 혁명적 방법으로 지주의 토지 소유 관계로부터 해방될 수 있으며 민주주의적 자유를 쟁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혁명의 령도적 계급인 프로레타리아트는 농민을 혁명에 인입할 수 있으며 혁명에서 그를 령도할 수 있다。 여기로부터 농민과의 동맹 문제는 프로레타리아트의 혁명 투쟁에서 중요한 전략 문제로 나서는 것이다。

프로레타리아트의 령도하에 진행되는 인민적 혁명에서 프로레타리아트가 농민을 자기의 동맹자로 전취하는 것이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필수적 조건으로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농민이 사회 계급으로서의 주민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동시에 사회적 생산의 기본 부문의 하나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뿐만 아니라 부르죠아지도 또한 프로레타리아트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농민을 자기 편으로 전취하려고 필사적으로 시도하는만큼 농민을 어느 편이 쟁취하느냐 하는 문제는 곧 혁명의 운명을 결정하게 된다。

프로레타리아트의 동맹군으로서의 농민의 혁명적 능력을 믿지 않고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사상을 거부한 제二 인터나쇼날 지도자들의 기회주의적 리론을 폭로 분쇄하면서 레닌은 로농 동맹의 사상을 완성하였으며 오직 프로레타리아트와 농민의 공고한 동맹에 의하여서만 프로레타리아트는 부르죠아 민주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혁명에서 승리할 수 있으며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공고화와 사회주의의 승리의 위업을 달성할 수 있다고 교시하였다。

프로레타리아트가 주권을 쟁취한 조건하에서는, 로농 동맹은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승리를 위한 사회 개조의 강력한 추진력으로 되며 사회주의 국가의 위력의 원천으로 된다。

로동 계급의 령도하에서의 로농 동맹의 불패의 생활력은 로동 계급과 농민의 리해 관계의 공통성에 기초한 그들의 정치—정신적 통일과 경제적 련계의 공고성에 있으며 자기 활동에 있어서 사회 발전 법칙과 사회 개조의 방도에 관한 맑스—레닌주의 과학에 의거하는 새 형의 맑스주의당의 정확한 령도에 있다。

우리 나라에서 혁명의 강력한 추진력으로서의 로농 동맹은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령도하에 일제 략탈자들을 반대하는 장구한 민족 해방 투쟁 행정에서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一九三〇년대에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을 핵심으로 조직 전개된 항일 빨찌산 운동과 조국 광복회의 조직은 우리 혁명의 기본 동력으로서의 로동 계급과 농민의 동맹을 더욱 장성시켰으며 그 주위에 광범한 애국적 민주주의 력량을 집결함으로써 민족 통일 전선의 기초를 이루어 놓았다。

그러나 로농 동맹의 본격적인 강력한 발전은 위대한 쏘베트 군대에 의하여 우리 조국이 일제의 식민지 통치 기반으로부터 해방된 후 우리 혁명의 발전 행정에서 우리 당의 확고한 령도가 보장된 조건하에서 이루어졌다。 우리 당은 해방 후 우리 조국 남반부를 미 제국주의 침략 군대가 강점한 조건하에서 조국 통일의 강력한 물질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우선 공화국 북반부에서 반제 반봉건적 민주 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 길에 들어 섰는바 이 투쟁에서 로동 계급이 령도하는 로농 동맹의 강화와 그에 기초한 광범한 애국적 민주 력량을 집결한 민족 통일 전선의 형성 강화는 당의 기본 정책의 하나로 제기되였다。

인민 정권은 우리 혁명의 령도적 계급인 로동 계급과 농민의 튼튼한 동맹에 기초하여 각계 각층 인민의 지지를 받으면서 력사적인 토지 개혁과 중요 산업 국유화를 비롯한 제반 민주주의적 사회 경제적 개혁을 실시함으로써 북반부에서 봉건적 및 일제 잔재 세력을 숙청하고 제국주의 세력을 부식하던 지주、친일파、민족 반역자들의 경제적 지반을 청산하였으며 로동자、농민、인테리、민족 자본가 등 각계 각층 인민들에게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여 주었다。

「이와 같은 모든 시책들은 우리 나라의 도시와 농촌간의 정치、경제、문화적 련계를 새로운 토대 우에서 강화 발전되게 하였으며 로농 동맹의 물질적 기초를 더욱 튼튼히 하였다」(김 일성 『위대한 쏘베트 군대에 의한 八·一五 조선 해방 一〇주년 기념 보고』)。

농민은 토지 개혁에 의하여 땅의 진정한 주인으로 되였으며 당과 정부와 로동 계급에 대한 그들의 신뢰와 지지는 더욱 확고 부동한 것으로 되였다。 한편 공업과 농촌 경리의 급속한 발전과 도시 농촌간의 경제적 련계의 강화는 로농 동맹을 더욱 공고화하였다。

그리하여 평화적 건설 시기에 있어서 로동 계급의 령도하의 로농 동맹에 기초한 우리 나라의 광범한 민주 력량은 우리 당의 지도하에 단시일내에 공화국 북반부의 정치、경제、문화를 급속히 발전시켰으며 우리 인민 민주주의 제도와 혁명적 민주 기지를 불패의 성새로 강화시켰다。

로동 계급의 령도하에서의 로농 동맹의 위대한 생활력은 미제와 리 승만 역도를 반대하는 정의의 조국 해방 전쟁 시기에 더욱 명백히 표현되였다。 전쟁 시기에 있어서 이 동맹은 더욱 공고화되였으며 그는 원쑤를 타승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는 기본 력량으로 되였다。

미제 무력 침공자들을 반대하는 가렬한 전쟁은 인민의 정치—정신적 통일、특히 로농 동맹을 가일층 강화하였으며 또 농민들에 대한 당과 정부의 제반 시책

―각종 농기계와 비료의 공급, 현물세 면제, 종곡 및 식량의 대여, 자금 륭통, 대여곡의 환납 면제, 상품 교류의 강화 등 제반 대책은 농민 대중의 정치적 열성과 애국적 헌신성을 더욱 제고하였으며 로 농동맹을 강화하는 사업에서 거대한 작용을 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당의 령도하에 확고 부동하게 된 로 농 동맹을 핵심으로한 전체 인민의 통일 단결의 위대한 힘은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 침략 세력을 타승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였으며 우리의 인민 민주주의 제도와 민주 기지를 철옹성같이 보위하였다.

❊ ❊ ❊

우리 혁명 발전의 현 계단에 있어서 우리 당과 우리 인민 앞에는 당면한 최대의 과업인 조국의 통일 독립 완성의 위업을 위하여 그의 물질적 담보로 되는 혁명적 민주 기지의 강화를 위한 북 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기초 건설의 과업이 제기되고 있다. 오늘 북 반부에서 사회주의의 물질적 기초 건설은 우리 사회 경제 발전의 필연적 요구이며 우리 혁명의 승리를 촉진시키는 결정적 고리로 된다.

사회주의의 기초 건설은 사회주의의 물질적 토대를 축성하는 것, 즉 나라의 사회주의적 공업화, 농업의 협동화를 실시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이를 위하여서는 이미 우리 인민 경제에서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사회주의적 경제 부문을 강화하며 도시와 농촌에 아직 남아있는 자본주의적 요소와 소상품 경리를 점차적 방법으로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여야 한다. 사회주의 기초 건설의 과업은 어렵고도 방대한 사업이며 인민의 원쑤들―제국주의 침략자들 및 그 압잡이들과의 필사적인 계급 투쟁을 동반하게 된다.

력사적 경험이 말하여 주는 바와 같이 착취와 계급적 대립을 청산하는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에 있어서 낡은 계급들이 자발적으로 력사적 무대에서 물러나간 때는 없다. 오늘 우리는 적들과 장기간 상치되여 있으며 내부에 아직 자본주의적 요소가 남아 있는 조건하에서 적들이 공개적인 무력 침범의 음모를 계속 진행할 뿐만 아니라 온갖 기만과 은밀한 방법으로 썩어 빠진 자본주의의 사상을 침투시키려 하며 북 반부에 잠재하고 있는 반동 요소와 결탁하여 각종 파괴와 암해 행동을 획책하는 치렬한 계급 투쟁 속에서 사회주의의 기초 건설을 진행하고 있다. 북 반부에 아직도 남아 있는 자본주의적 경제 요소와 소상품 경리가 자본주의적 의식의 온상으로 되고 있으며 또 오래 동안에 걸쳐 부식, 배양된 낡은 사상과 관습의 잔재가 우리의 생활에서 아직도 완전히 청산되지 않고 있는 조건하에서 사회주의의 기초 건설을 진행하고 있다.

이 모든 사실은 북 반부에서의 사회주의의 기초 건설이

더욱 치렬한 계급 투쟁을 동반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기초 건설의 주도적 력량인 로동 계급과 로동 계급의 가장 믿음직한 동맹자로서 사회주의 건설의 일익을 담당하는 근로 농민과의 공고한 동맹은 사회주의에로의 전진 운동에서 계급적 원쑤들의 온갖 시도를 분쇄하고 사회의 혁명적 개조의 과업을 성과적으로 완수하는 확고한 담보이다.

로 농 동맹의 강화는 동시에 농민에 대한 로동 계급의 국가적 지도의 강화를 의미하는바 당의 지도하에 로동 계급은 그의 국가적 지도를 통하여 사회주의 기초 건설의 과업 수행에 있어서 농민의 소부르죠아적 경향을 제약하면서 설복과 시범을 통하여 그들을 점차적 방법으로 사회주의에로 인도하며 사회주의적 근로자로 개조하게 된다. 이리하여 이 두 계급의 리해 관계는 가일층 접근되는바 이것은 사회주의 사회의 기본 생산자로서의 그들의 무궁무진한 창조적 열성과 동지적 협조를 더욱 강화하며 높은 로동 생산성을 보장케 하는 강력한 원천으로 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기초 건설의 성과적 수행 여부는 주로 로 농 동맹의 가일층의 강화와 이 두 계급의 창조적 협조에 달려 있다.

여기로부터 출발하여 우리 혁명의 현 계단에 있어서 로 농 동맹을 더 한층 공고히 하며 그에 기초하여 통일 전선을 가일층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우리 당은 현 계단에 있어서 로 농 동맹과 통일 전선의 강화에 더욱 중대한 현실적 의의를 부여하고 있으며 그를 백방으로 공고 발전시키기 위한 제 대책을 강구 실시하고 있다.

김 일성 동지는 당 중앙 위원회 제六차 전원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로동 계급과 근로 농민의 일층 강고한 동맹과 그에 기초한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의 강화는 우리의 승리의 담보로 되며 우리 당 앞에 제기되는 가장 중요한 정치적 과업중의 하나로 된다』.

전후 시기에 있어서 우리 당은 우리 나라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전체 인민 대중의 근본적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나라의 사회주의적 공업화 및 농촌 경리의 협동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바 당의 경제 정책은 로 농 동맹의 물질적 기초인 도시와 농촌간의 경제적 련계를 일층 강화할 수 있는 제 조건을 조성하여 주고 있다.

사회주의의 물질적 기초를 축성함에 있어서 나라의 사회주의적 공업화, 중공업의 선차적 발전은 우리 나라의 모든 산업, 운수 및 농촌 경리의 발전과 사회주의적 개조를 보장하는 물질적 조건을 준비하는바 공업화 정책의 실시에 의한 산업의 급속한 발전은 로 농 동맹에서의 령도적 계급인 로동 계급을 량적 및 질적으로 확대 강화하며 로동 계급측으로부터의 농민에 대한 방조를 강화할 수 있게 한다. 나라의 공업화는 도시와

농촌간의 생산적 련계와 시장을 통한 상품적 련계를 가일층 강화하며 이에 기초하여 로동자, 농민간의 동맹을 가일층 강화하는바 기계 공업의 발전은 우리 나라 농촌 경리에 현대적 농기계를 공급하여 농촌의 기계화를 보장하여 주며 또한 화학 공업과 경공업의 발전은 농촌에 많은 비료와 농약, 생활 필수품들을 공급하여 줌으로써 농촌 경리의 발전을 촉진하며 농민들의 생활을 급속히 향상시킨다.

오늘 우리 당의 령도하에 전체 근로자들의 앙양된 창조적 열성에 의하여 성과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전후 인민 경제 복구 발전 三개년 계획은 一九五六년에 가서 공업 총생산액은 전쟁전 수준에 비하여 一·五배, 그중에서 생산 수단 생산은 一·三배, 인민 소비품 생산은 二배로 각각 장성될 것이 예견되고 있으며 공업화의 제一 계단을 완성할 五개년 계획 기간에는 농촌에 풍부한 농기계, 비료, 전력 등이 공급될 것이 예견되고 있다.

이와 같이 공업 생산의 급속한 장성은 도시 공업으로부터의 농촌 경리에 대한 생산적 방조를 가강하여 농촌의 생산력을 가일층 발전시키게 될 것이며 로동 계급과 농민의 동맹을 일층 강화할 것이다.

전후 우리 당의 농촌 정책에서는 로 농 동맹의 강화를 위한 새로운 조건들이 조성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분산된 개인 농민 경리를 점차적 방법으로 협동화의 길로 인도하지 않고서는 농촌에서 빈궁과 락후성을 완전히 청산할 수 없으며 농촌 경리의 기계화 및 공업과 농업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할 수 없다. 우리 당의 옳바른 정책에 의하여 전후 시기에 우리 나라 농촌들에서는 협동조합들이 광범히 조직되여 급속히 공고 발전되고 있으며 현재 과반수에 달하는 농호가 이에 망라되고 있다.

농촌의 사회주의적 개조 사업에서 당과 정부는 국영 농 목장, 농기계 임경소, 농민 은행, 소비 조합 등을 통하여 농민들에게 생산적 및 생활상 방조를 주는 한편 그들에게 협동 경리의 우월성을 실제적으로 뵈여 줌으로써 농민들을 집단주의 의식으로 교양하며 점차 협동화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 특히 농기계 임경소는 농촌에 배치된 사회주의적 국영 기업소로서 농촌에서 생산 과정을 통하여 로동 계급과 농민의 련계를 강화하며 농업 협동 조합들과 광범한 개인 농민들에게 대한 생산적 방조를 줌으로써 농촌의 사회주의적 개조에 있어서 중요한 조직적, 교양적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또 수행하고 있다.

당과 정부의 이와 같은 제 시책에 근거하여 농촌의 기본 대중인 빈농, 중농들은 협동 경리의 우월성을 체득하게 되였으며 자원적 원칙에 의하여 점차적으로 협동조합에 망라되게 되였는바 우리 나라에서의 농업 협동조합의 급속한 발전은 인민 경제에서 기본 부문의

하나이며 농업과 주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농민 대중을 사회주의의 길로 인입함으로써 농민들의 생활을 급속하게 향상시킬 가능성을 조성하며 나라의 사회, 정치, 경제 생활에서 로동 계급과 농민의 리익을 더욱 더 접근시키고 있다. 즉 농촌의 사회주의적 개조는 주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농민 대중과 로동 계급의 리해 관계를 더욱 밀접히 결부시키며 그들의 정신—정치적 통일과 단결을 더욱 강화하는바 이것은 로 농 동맹을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며 당의 농촌 진지를 일층 공고화한다.

전후 우리 당은 농촌 경리의 사회주의적 개조 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하면서 농업 생산의 기본이며 인민 생활과 경제 건설에서 결정적 의의를 가지는 식량 생산의 증대에 거대한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 당과 정부가 농업 발전을 위하여 취하고 있는 일련의 대책들은 알곡 생산을 급속히 증가시키기 위한 물질적 및 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고 있으며 농민들의 증산 의욕을 계속 앙양시키고 있다.

우리 당은 농업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고리로 되는 경지 면적의 확장을 위하여 휴경지, 간석지 등을 복구 개간하고 있으며 하천 제방, 사방 공사 등에 의한 로지 보호 사업을 강화하며 관개 수리 시설들을 신설 확장하고 있다. 정전후 二년간에 당과 정부는 五一개소의 저수지, 三三四키로메터의 제방, 五七〇개소의 양수장을 복구 신설하였으며 평남 관개 공사를 비롯하여 여러 지방에서 관개 수리 공사들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농촌에 보다 많은 건설 자재들을 공급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당과 정부는 선진 영농 방법의 도입, 전야 작업의 기계화를 위한 대책도 강구 실시하고 있는바 정전후 二년간에 농기계 임경소 수는 二·六배, 뜨락또르 수는 一·七배로 증가되였으며 뜨락또르에 의한 기경 면적을 훨씬 증가시킴으로써 농촌에서의 로력 부족을 타개하고 로동 생산성을 제고할 것이다. 당과 정부는 또한 화학 비료의 공급을 증가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당과 정부는 농민들의 부담을 경감하며 그들의 생산 의욕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 대여곡 및 기타 미납곡을 면제, 삭감하는 등 농민들의 영농 조건의 보장과 생활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금번에는 또 현물세에 대한 농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새 법령을 채택하였으며 앞으로 농업에 보다 많은 자금을 투하할 것을 예견하고 있다.

로동 계급측으로부터 농민들에 대한 방조의 강화를 의미하는 이 모든 시책들은 농민들과 로동 계급의 공동의 리해 관계로부터 출발하는 것으로서 농민들의 창조적 열성을 제고하며 로농 동맹을 강화함에 있어서 거대한 고무적 역할을 하고 있다.

농민들의 창조적 열성과 생산 의욕의 제고는 농촌 경리의 급속한 발전과 로농 동맹의 가일층의 공고화를 위한 조건으로 된다.

로농 동맹 강화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국영 및 협동 단체 상업망의 확대 강화와 농산물 수매 사업이다. 당과 정부는 국가적 리익과 개인적 리익을 옳게 결합시키는 원칙하에서 농산물과 공업 상품의 가격을 조정하며 도시 농촌간의 상품 교류를 조직함으로써 로동 계급과 농민간의 경제적 동맹을 공고 발전시키고 있다.

도시와 농촌간의 상품적 련계의 강화에서 농산물 수매 사업은 큰 의의를 가지는바 전후 시기에 당과 정부는 수매 사업의 개선 강화를 위한 대책들을 강구함으로써 도시와 농촌간의 경제적 련계에서 농촌 경리에 대한 공업의 작용을 강화하였다. 특히 작년부터 실시되는 예약 수매 사업은 도시 공업을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농민들의 물질적 관심을 자극함으로써 농촌 경리의 가일층의 발전을 위하여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며 로동 계급과 농민의 경제적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당의 경제 정책으로부터 출발하여 현 시기에 있어서 로농 동맹의 가일층의 강화를 위하여 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농업 협동 조합을 조직적, 경제적으로 강화하는 문제이다. 현재 우리 나라 농촌 에서 농호의 과반수를 망라하는 농업 협동조합의 공고 발전은 전반적 농촌 경리 발전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관건으로 되고 있으며 로농 동맹의 가일층의 강화를 위한 튼튼한 지반으로 되고 있다. 농업 협동 조합의 공고 발전은 조합원들에게 협동 경리의 우월성과 우리 당의 농촌 정책의 정당성을 더욱 확신시키며 농산물의 증산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아직 협동 조합에 망라되지 않은 개인 농민들을 협동 로력의 우월성과 조합원들의 생활 형편의 급속한 개선 향상으로써 실제적으로 교양하며 그들을 사회주의적 길로 인도하는 좋은 시범으로 된다. 따라서 현 시기에 있어서 농업 협동 조합의 조직적, 경제적 강화를 위한 투쟁은 농촌의 사회주의적 개조 사업을 촉진시키며 로농 동맹의 가일층의 강화를 위한 투쟁의 중요한 고리로 된다.

그러므로 당 단체들은 이미 조직된 농업 협동조합들을 조직적, 경제적으로 강화하는 데 커다란 관심을 돌리며 협동조합의 생산 및 경영 활동을 더 한층 계획화하여 토지 개량, 선진 기술의 도입, 농업 생산의 부단한 제고를 위한 지도 방조 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협동조합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개인적 리익과 사회적 리익의 정당한 결합에 기초하여 조합원들의 생산 의욕을 부단히 높여야 하며 조합의 민주주의적 관리 원칙을 보장하며 사회주의적 분배 원칙을 옳게 준

수하여야 한다.

오직 이러한 기초 우에서만 로농 동맹을 새로운 조건하에서 가일층 공고 발전시킬 수 있다.

다음으로 로농 동맹의 강화를 위하여서는 도시—공업으로부터 농촌 경리에 대한 생산적 방조를 보다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농촌 경리는 그의 발전에 필요한 농기계, 비료, 농약, 기타 농업 건설에 필요한 시설들을 도시—공업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므로 도시—공업으로부터 농촌 경리에 필요한 생산품들을 제때에 더 많이 공급하여 주는 것은 농업 발전에 있어서와 로농 동맹 강화에 있어서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그러나 一九五五년 상반년에 일부 공업 부문들은 자기의 생산 계획을 완수하지 못하였으며 농기계를 비롯하여 농업 건설에 필요한 쎄멘트, 목재 등을 충분히 농촌에 공급하지 못하였다.

특히 오늘 알곡 증산에서 농촌은 비료, 농기계, 양수기, 전동기 등의 더 많은 공급을 요구하고 있다. 도시—로동 계급측으로부터의 이러한 생산적 방조의 증대는 농민들을 농산물 증산에로 더욱 고무하게 될 것이며 당과 정부와 로동 계급에 대한 그들의 신뢰와 지지를 더욱 강화하며 로농 동맹을 일층 공고화하게 될 것이다.

도시와 농촌, 로동자와 농민간의 경제적 련계의 부단한 강화는 로농 동맹 강화의 기본 조건의 하나이다.

이와 함께 농촌 경리의 급속한 발전과 로농 동맹의 강화를 위한 사업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농촌 경리에 대한 지도 일군들의 지도 수준 제고에 관한 문제이다.

농촌 경리 발전에 있어서 옳은 지도를 보장한다는 것은 우리 당의 농촌 정책의 본질을 옳게 리해하고 당과 정부가 실시하는 제 시책을 농민 대중 속에서 정확히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확한 지도가 없이는 당과 정부의 결정 지시들이 지방의 실정에 알맞게 구체화되지 못할 것이며 따라서 농민들 속에서 창조적 열성을 환기시킬 수 없다.

그런데 일부 농촌 지도 일군들은 아직도 지도에서 형식주의와 관료주의를 범하고 있는바 농촌 경리에 대한 지도에 있어서의 중요한 결함은 농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알곡 생산의 총수확고를 제고하기 위한 당의 당면한 과업 수행에 자기 력량을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데 있다. 일부 지방 당 기관들과 농촌 당 단체들은 이 투쟁에로 가능한 지방 자원들과 대중의 애국적 창발성을 불만족하게 동원하고 있으며 알곡 증산에서 기본 고리로 되는 경지 면적 확장을 위한 휴한지를 복구하며 신규 개간지를 확장하며 지방적으로 가능한 소규모 관개 시설 및 소하천 제방들을 수리 수축하는 사업에서 정확한 지도를 주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단위당 수확고 제고를 위한 투쟁에 심중

한 주의를 돌리지 못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아직도 우리 나라 농촌 경리에 있어서 농호의 반수에 가까운 개인농 경리에 대한 지도 사업을 소홀히 하며 그들의 생산 활동에서 물질적 관심을 높이고 창조적 열성을 발휘시키기 위한 지도가 아직도 미약하며 개인농에 대한 당의 정책을 그들 속에 깊이 침투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실정들은 농촌에서의 생산력 발전과 로농 동맹의 강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농촌 당 단체들은 농민 대중을 사회주의의 길로 인도하는 학교인 농업 협동조합들을 조직 경제적으로 공고화하는 동시에 국영 농 목장, 농기계 임경소들의 역할을 제고하여 협동조합과 개인 농민들에게 사회주의적 농업의 생산과 기술의 모범을 뵈여 주며 선진 영농 방법을 광범히 도입하여 그의 우월성을 뵈여 줌으로써 농민들을 방조하고 교육하여 점차 사회주의의 길로 인도하며 또한 농산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제기되고 있는 알곡 증산을 위하여 농민들에게 효과적인 지도와 방조를 주어야 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농민들의 물질적 관심을 더욱 제고하며 농촌 경리를 급속히 복구 발전시키며 로농 동맹을 가일층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로 된다。

그러나 로농 동맹은 이와 같은 조직 경제적 대책으로써 뿐만 아니라 사상 교양 사업을 통하여서도 강화되여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 당은 로동 계급과 농민들 속에서의 사상 사업 강화에 항상 심중한 당적 관심을 돌려 왔으며 또 돌리고 있다。

사회주의 기초 건설은 새 사회 건설에서 지침으로 되는 선진적 사회주의 의식으로 근로자들을 교양할 것을 요구한다。 그것은 사회의 혁명적 개조의 사상인 맑스—레닌주의 사상으로 근로자들을 교양함이 없이는 사회주의의 물질적 토대를 구축하는 사업에서 로동에 대한 새로운 태도, 국가 및 사회 재산에 대한 애호 절약, 집단주의, 혁명적 락관주의,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와 애국주의 등 고상한 도덕적 품성을 발양할 수 없으며 따라서 우리 혁명의 승리를 촉진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로동 계급과 농민이 이러한 선진적 의식으로 무장하고 그 기초 우에서 그들의 정치—정신적 통일이 일층 강화될 때에 로농 동맹은 더욱 불패의 위력을 발휘하게 된다。

그런데 오늘 우리 나라 로동 계급과 농민들 속에는 아직도 낡은 부르죠아적 및 봉건적 사상 잔재가 적지 않게 남아 있으며 그것이 이러저러한 형태로써 실생활에서 표현되고 있으며 우리의 전진 운동에 지장을 주고 있다。 특히 농민들 속에서 그러하다。 오늘 농촌 주민의 반수를 넘는 농민들이 협동 경리에 망라되고 있으며 그들 속에서 집단주의 사상과 로동에 대한 새로운 태도들이 점차 강화되여 가고 있으나 그러

나 일부 협동조합원들 가운데에서도 낡은 자본주의적 사상 잔재들을 급속히 청산하지 못하는 데로부터 부분적 조합원들이 일에서 건달을 부리며 작업 질서와 규률을 잘 지키지 않으며 조합의 리익보다 자기 개인의 리익을 높이 보는 사실들이 있으며 개인 농민들 속에서는 개인 리기주의 사상, 낡은 전통, 풍습 등이 많이 발로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오늘 농민들 속에서의 사상 사업과 문화 계몽 사업을 일층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농민들의 사상적 각성과·문화성이 제고됨이 없이는 농촌의 사회주의적 개조 사업은 성과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

현 시기에 있어서 농촌에서의 사상 교양 사업은 한편으로는 협동조합에 가입한 농민들 속에서의 사상 사업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도 농호의 반수에 가까운 개인 농민들 속에서의 사상 교양 사업이다。

현재 협동조합에 망라되고 있는 농민들은 조합내에서의 각종 생산 활동을 통하여 집단주의의 교양을 받고 있으며 사회주의적 근로자로 급속히 전변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하여서는 개인의 리익과 사회적 리익의 옳바른 결합에 기초하여 조합의 관리 운영과 생산 활동을 통하여 사회주의적 의식을 배양할 수 있다。 특히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조합내에서 민주주의를 발양시키며 사회주의적 분배 원칙을 철저히 실행하며 조합의 수익을 높임으로써 그들의 물질 문화 수준을 부단히 향상시키는 것이다。

개인 농민들은 아직도 자기의 토지와 농구와 역축으로써 개별적으로 생산에 종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하여서는 꾸준한 해설 사업과 선진 영농 방법의 도입, 농기계 임경소의 생산적 방조, 협동 경리의 우월성에 대한 실증 등에 기초하여 교양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특히 농촌 민주 선전실 사업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민주 선전실은 농촌 문화 계몽과 사상 교양의 중심으로 되며 선진 영농 방법과 다수확 방법을 전파 보급시키는 학교로 되여야 한다。

오늘 농촌에서의 사상 사업과 문화 계몽 사업의 강화는 농촌의 사회주의적 개조의 성과적 진행을 보장하는 중요한 고리이다。

특히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의 계급 교양 사업 강화를 위한 우리 당 중앙 위원회 四월 전원 회의 결정 실행을 위한 투쟁은 현 계단에 있어서 로농 동맹을 정치 사상적으로 더욱 강화함에 있어서 새로운 단계로 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오늘 우리 당의 령도하에서 북 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기초 건설은 우리 혁명의 기본 동력인 로동 계급과 농민의 동맹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는 동시에 또한 아 동맹을 경제적 및 정치 사상적으로 가일층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로 되고 있는바 로동 계급의

헤게모니와 로 농 동맹의 강화는 그 주위에 우리 나라의 광범한 애국적 민주 력량을 더욱 튼튼히 집결시켜 통일 전선을 강화함으로써 혁명적 민주 기지를 일층 강화하며 우리 혁명의 최대의 당면 과업인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의 위업 달성을 더욱 촉진시키는 강력한 추진력으로 되고 있다.

* * *

로동 계급의 령도하에서의 로 농 동맹의 강화는 우리 당의 기본 정책의 하나이다.

오늘 로 농 동맹의 주위에는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 산하 각계 각층 애국적 민주 력량이 집결되고 있다.

그러므로 로동 계급의 령도하에 로 농 동맹을 강화함이 없이는 조국 통일의 위업과 북 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기초 건설을 위한 투쟁에로 전체 애국적 민주 력량을 동원할 수 없으며 따라서 우리 혁명의 승리를 촉진시킬 수 없다.

맑스—레닌주의 학설이 가르치는 바와 같이 로동 계급의 헤게모니와 로 농 동맹의 강화는 오직 새 형의 맑스—레닌주의 당의 령도를 통하여서만 실현되는 것이다. 우리 당은 현 계단의 우리 혁명의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로동 계급이 령도하는 로 농 동맹에 확고히 의거하고 있으며 그를 백방으로 강화하고 있다.

우리 당의 령도하에서 부단히 강화되는 로 농 동맹은 우리 인민 민주주의 제도의 불패의 생활적 기초이며 우리 인민의 확고 부동한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의 기초이다.

그러므로 현 계단에 있어서 로동 계급의 령도하에서의 로 농 동맹을 눈동자와 같이 보전하고 그를 백방으로 강화하는 것은 우리 인민 민주주의 제도의 위력의 가일층의 강화와 우리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한 결정적 고리로 된다.

대중에의 의거는 생산 사업에 대한 당적 통제의 기본 조건

김 태 근

현 계단에 있어서 우리 당의 기본 임무는 우리 조국 강토에서 미 제국주의 침략 세력과 그 주구 리 승만 매국 도당을 물리치고 조선 인민의 민족적 숙망인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을 완성하는 데 있으며 그를 더욱 촉진시키기 위하여 공화국 북 반부에서 사회주의 기초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우리 혁명의 원천지인 민주 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가일층 공고 발전시키는 데 있다. 이와 같은 우리 당의 기본 임무는 전체 조선 인민의 나아갈 길을 밝혀 주고 있다.

때문에 오늘 전 당과 전체 인민의 모든 관심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과 공화국 북 반부에서 사회주의 기초 건설의 물질적 담보로 되는 전후 三개년 인민 경제 계획의 완수 및 초과 완수를 위한 투쟁에 총집중되고 있다.

우리 당과 전체 인민 앞에 나서고 있는 이 거대하고 영광스러운 과업의 성과적 수행은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객관적 조건들과 가능성들을 정확히 타산하고 그를 어떻게 현실성으로 전환시키는가에 달려 있다.

이와 같은 현실적 문제들은 매개 당 단체들이 매 시기와 계단에 따르는 당과 정부의 결정, 지시, 시책들의 정확한 실천을 보장하기 위한 당적 통제와 지도를 강화하며 당 사업을 광범한 당원 대중에 튼튼히 의거하여 창조적으로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김 일성 동지는, 당 기관은 행정 사업을 추종하거나 행정 기관을 대행할 것이 아니라 국가 및 경제 기관들에서 당 정책을 옳게 집행하는가, 결함의 원인이 어데 있는가, 어떠한 당적 대책이 요구되는가 하는 것들을 제때에 포착하여 국가 및 경제 기관들이 당 로선에 튼튼히 서서 자기 사업을 옳게 조직 진행하도록 구체적

인 지도를 주어야 한다고 교시하였다。 실로 국가 및 경제 기관들이 당적 립장에서 사업하고 있는가、 당의 결정、 지시、 시책들을 정확히 집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당적 통제를 강화함이 없이는 우리의 사업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 중앙 위원회는 당의 경제 정책과 국가 경제 계획의 정확한 실행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에서 생산 기업소들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생산 기관내 당 단체들에게 행정 경영 활동에 대한 당적 통제권을 위임하였다。

우리의 생산 기업소내의 당 단체들은 행정 경영 지도 일꾼들로부터 그 기관 사업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며 그에 대하여 토의하며 집체적 경험을 기초로 하여 사업상 결함들을 제거할 데 대한 대책을 강구 실시하는 등의 생산 및 행정 경영 활동에 대한 통제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생산 기관내 초급 당 단체들은 자기에게 부여된 생산 및 행정 경영 활동에 대한 당적 통제의 기능을 원만히 수행함으로써 국가 경제 계획을 성과 있게 보장할 무거운 책임을 지니고 있다。

생산 및 행정 경영 활동에 대한 당적 통제는 당의 경제 정책의 정확한 실현과 경영 활동의 정확한 보장을 위한 당의 정치적 지도의 중요한 구성 부문으로서 이것은 그 본질에 있어서 생산 및 경영 관리 활동에의 대중의 인입、 그들의 집체적 지혜와 대중적 창조력의 동원을 전제로 한다。—

우리 당의 당적 통제——이것은 당과 정부의 정책에 확고히 립각하여 우로부터의 통제와 수백만 근로대중에 의한 밑으로부터의 통제를 결합시킨 생산 경영 활동에 대한 당적 지도의 검열된 방법이다。 그것은 당 단체가 행정 경영 지도 일꾼들의 사업을 무원칙하게 간섭하거나 또 그의 사업을 대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다는 것을 결코 의미하지 않는다。 반대로 행정 경영 활동에 대한 당적 통제는 행정 경영 일꾼들과 그 기관 사업을 대행하지 않으며 그들의 책임성과 창발성、 자주성을 백방으로 강화 제고시키면서 광범한 당원 대중과 비당원 열성자들에 의거하여 그들의 경험과 제의들을 광범히 또 완전히 리용하며 과학 기술이 달성한 제 성과와 선진 경험에 기초한 생산의 부단한 장성을 위하여 근로자들의 창의 창발과 적극성을 높이 발양시키며 당 조직 정치 사업을 통하여 행정 지시 실천을 도와 주며 모든 점에서 국가 규률의 위반자들과 사업에서 관료주의와 형식주의적 경향들을 반대하여 결정적으로 투쟁하는 그것이다。

이것은 우리 당의 지도 원칙으로부터 출발한다。 우리 당은 인민 대중의 근본적 리해로부터 출발하여 자기의 정책을 수립하며 또 이 정책을 대중의 지지와 참가 밑에 실현한다。 따라서 대중에 의거하는 사업 방법은 우리 당이 자기의 정치적 령도를 실현하는 기본 방법이며 이것은 또한 대중에 대한 당의 지도 원칙이다。

쓰딸린은 『옳게 지도 하기 위하여서는 지도자들의 경험을 당원 대중의 경험、 근로자들의 경험 즉 소위 「소소한 사람들」의 경험으로써 보충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였다。

당이 대중과의 련계를 보장하며 그들을 가르치며 그들에게서 배우는 기본 방법은 『군중의 의견을 청취하며 어떠한 경우를 물론하고 군중의 구체적 실제 정황에 근거하여 그들이 당이 지시한 방향으로 자각적으로 발동되며 대중으로 하여금 당의 구호들을 인민의 숙망의 표현으로 접수하도록 정치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이다。 이 사업 방법은 대중 속에서 전체 우리 사업의 기본적 방향으로 되여야 한다』(김 일성)。

실제에 있어서 당적 통제의 위력은 그것이 당 조직과 광범한 대중의 집체성에 튼튼히 의거하고 있는 데 있다。 그러나 아직도 함북도내의 일부 당 단체들은 이것을 옳게 리해하지 못하고 당적 통제를 광범한 근로 대중에게 의거하지 않으며 그를 당 단체의 개별적 책임 일꾼이나 혹은 당 위원회의 제한된 수의 일꾼들의 사업으로만 생각하는 그릇된 견해를 적지 않게 발로시키고 있다。

，만일 당적 통제에서 당원 대중과 광범한 비당원 열성자들이 유리되고 통제에 극히 협소한 범위의 몇몇 사람들만이 인입된다면 그것은 실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오직 형식적인 통제만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문제는 당 단체들이 광범한 당원 대중의 집체성에 튼튼히 의거하여 창조적으로 당적 통제를 실시할 때에라야만이 기업소내에서 진행되는 모든 생산과 경영 활동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지도를 보장할 수 있다。

도내 많은 당 단체들의 실천적 경험은 당적 통제가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창조적으로、 구체적인 조건과 광범한 대중의 의견과 경험에 의거하여 제때에 새로운 것과 선진적인 것을 포착하고 그를 적극 지지 발전시킨다면 생산의 증대、 새로운 기술과 선진적인 작업 방법의 도입、 원가 저하 및 생산 제품의 높은 질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에서 큰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뵈여주고 있다。

광범한 당원 대중들과 비당원 열성자들의 창발성에 립각한 정확한 당적 통제는 당 단체들과 행정 경영 지도 일꾼들의 사업에 대한 당원 대중의 감독을 의미하며 사회적 감독을 의미한다。

오직 이와 같은 통제만이 비판과 자기 비판을 촉진시키며 결함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발로된 결함들을 제때에 적발 시정케 할 뿐만 아니라 경제 건설 사업에서 근로자들의 창조적 적극성과 책임성을 제고시키며 정치—경제적 제 과업을 성공적으로 해결하도록 방조한다。

당적 통제에의 광범한 당원들과 비당원 열성자 대중의 적극적인 참가는 당적 통제를 가장 실제적이고 효

과적인 것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유일 관리제를 더욱 강화하며 국가 계획 과제의 성과적 수행을 보장하는 중요한 담보로 되는 것이다.

왜냐 하면 그것은 대중적 통제만이 우리의 사업에서 결함을 제때에 적발 청산하는 것을 쉽게 하여 주며 생산에서 예비력을 동원 리용하며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하며 제품의 질을 제고하는 등 기업소 사업의 개선을 보장하는 가장 합목적적인 방도를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는 까닭이다.

실제에 있어서 기업소내 당 위원장들이나 위원들이 아무리 능숙하고 경험이 풍부하다 할지라도 대중에 의거하지 않고 단독으로는 기업소의 모든 실정을 구체적으로 료해 장악 지도하며 수립된 대책의 실현을 원만히 조직하며 통제해 낼수는 없는 것이다.

함북도내 수 많은 당 단체들의 실천적 경험은 기업 관리측의 경영 활동에 대한 당적 통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당원들과 광범한 비당원 열성자 대중의 집체적 지혜에 튼튼히 의거하며 그들의 경험과 의견을 옳게 리용함으로써만 기업 관리 운영 사업의 개선을 보장하기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강구 실시할 수 있었다는 것을 실증해 주고 있다.

성진 제강소 초급 당 위원회는 작년 一〇월에 금년도 국가 계획 과제를 성과있게 보장하기 위하여 각 직장 생산 공정 부문의 당 핵심 열성자들과 기술자들의 참가하에 금년도 생산 준비 사업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회의에서는 그들의 광범한 창발적 의견들을 고려하여 생산 공정 부문별로 생산 설비를 시급히 합리화하여야 할 일련의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 종합하였다.

초급 당 위원회는 종합된 설비 합리화의 기본 내용들에 대하여 공장 신문을 비롯한 각종 선전 선동 수단을 통하여 광범한 로동자들 속에서 해설 선전 사업을 조직 진행하는 한편 로동자들로 하여금 합리화 제의에 적극 참가하도록 고무 추동하였다. 그리하여 각 분세포 총회와 쩨흐 종업원 회의들에서는 금년도 생산 계획 수립 및 생산 계획 실행과 관련하여 일련의 합리화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토의되였으며 따라서 로동자들 속에서 광범한 합리화 제의 운동이 전개되였는바 작년 一〇—一一월 二五일까지의 기간에 一、一〇〇 여 명의 로동자、기술자들로부터 一、三〇〇 여 건의 합리화 제의들이 제출되였다.

공장 초급 당 위원회는 관리측을 발동시켜 로동자、기술자들로부터 제출된 합리화 제의들을 『창의 발명 및 합리화 제의 등록 및 수행 기록』 대장에 등록하고 그 순차별로 집체적인 토의를 걸친 후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가치 있는 제의들에 대하여서는 기사、기수、설계 일군、창의 고안자들을 포함한 합리화 제의 실행 그루빠를 조직하고 그를 연구 실행케 함과 동시에 새로운 표준 조작법을 작성하도록 적극 추진시켰다.

결과 중공강 실수률을 종전에 비하여 一〇—一三%

로 제고시킨 김 봉길 동무의 『중공강 실수률 제고 방법』을 위시한 수백 여 건의 합리화 과제들을 해결함으로써 지난 해에 비하여 一二九%로 장성된 금년도 국가 계획을 일별、월별、지표별로 성과있게 수행하고 있는바 제강 직장에서만 하여도 현재 기준량에 대하여 一二五%로 초과 실행하고 있다.

정치적 지도자로서의 기업소내 당 단체들은 이와 같이 관리측의 경영 활동에 대한 통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비록 적으마한 문제라도 광범한 대중과 협의하며 그들의 창발적 제의와 경험들을 분석 종합하고 결함의 시정과 사업의 개선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로동 대중을 조직 동원함으로써 국가 계획 과제의 완수 및 초과 완수를 보장하기 위한 자기의 조직 정치적 대책을 원만히 수행하는 것을 그의 선차적이며 주되는 사업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도내 당 단체들이 모두 다 이와 같이 사업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도내의 일부 당 단체들은 공장、기업소의 사업 상태를 일상적으로 깊이 연구 파악하며 생산 및 행정 경영 활동을 방조하기 위하여 대중 속에서 꾸준하게 사업할 대신에 신중한 연구와 준비도 없이 공장 지배인이나 기타 행정 부서 책임 일군들로부터 빈번히 보고를 청취하고 구체적 제의와 대책도 제시함이 없는 형식적인 결정서만 반복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 태도로서는 사업의 개변을 가져오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업소의 락후성을 더욱 조장시킬 수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부정적 현상들은、당 단체들이 당적 통제의 실효는 오직 그것이 광범한 대중에 의거하여 자기의 조직 및 정치 사업을 생산에 깊이 침투시키는 조건하에서만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을 옳게 리해하지 못한 데서 발생되는 것이다.

당적 통제의 정확성과 그 성과는 행정 책임 일군들로부터 보고를 청취한 회수나、채택한 결정서의 건수에 의하여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상 결함을 예방하며 광범한 근로 대중의 정치적 열성과 창발성과 적극성을 조직 동원하여 제때에 결함을 폭로 시정하며 난관을 극복하며 사업의 실제적 개선과 전진을 보장하는 데서 표현되며 평가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생산 및 행정 경영 활동에 대한 당적 통제는 형식적으로、또 제한된 당 위원들에 의해서만 진행할 것이 아니라 강력한 대중적 비판과 자기 비판의 기치 밑에 매개 일군들로 하여금 결함을 공공연하게 폭로 비판하며 광범한 대중들이 그 결함을 시정할 데 대한 실효적인 의견을 제기할 수 있는 조건과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향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오직 이와 같은 통제만이 행정 경영 지도 일군들의 안일성과 무책임성을 퇴치하며 유일 관리제의 약화를 초래하는 사무실적、관료주의적 사업 작풍과 국가 재산의 탐오、랑비 및 가족주의적 경향 등 일체 부정적 현상들을 제때에

폭로 시정할 수 있게 한다.

밑으로부터의 통제와 지도 일군들에 대한 비판과 자기 비판의 좋은 무대로 되는 것은 초급 당 단체들의 총회와 당 위원회 열성자 회의이다.

초급 당 단체들의 총회는 당원들의 맑스—레닌주의적 교양의 학교이다. 신중한 연구와 구체적 준비 밑에 당 및 국가 건설에서의 절실한 당면 문제들을 당 총회에서 토의하는 것은 당원들의 사상 정치적 수준과 당 및 국가 사업에 대한 그들의 책임과 열성을 더욱 제고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당내 민주주의가 활발히 보장되고 원칙적 비판과 자기 비판의 기치하에 진행되는 총회는 당원 대중의 광범한 창발적 의견과 지도 일군들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을 발전시키며 전체 당원들의 당성을 단련하는 훌륭한 학교로 된다.

또한 당 위원회들의 당 열성자 회의들에서는 광범한 당원들의 창발적 의견들과 경험들이 교환되며 일체 결함들과 부족점들과 오유들이 당 열성자들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폭로 비판되며 결함들을 낳게 된 원인들이 구체적으로 분석됨으로써 기업소 사업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실효적인 당적 지도 대책을 강구할 수 있게 하여 준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채택된 결정 수행을 위한 투쟁에서 당 열성자들의 책임성을 제고시킨다.

그러므로 당 단체들은 초급 당 단체 총회와 또 당 열성자 회의를 높은 정치적 수준에서 조직 진행하며 당내 민주주의와 비판과 자기 비판、특히 밑으로부터의 비판을 강화함으로써 그 회의들로 하여금 사업상 결함에 대한 예리하고 원칙적인 비판의 연단으로 되게 하며 당 상급의 결정들과 자체 결정 집행에 대한 검열의 수단으로、행정 경영 활동에 대한 대중적 통제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되게 해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당 위원회와 행정 경영 지도 일군들이 밑으로부터의 비판에 대하여 심중히 귀를 기울이며 비판적 지적들을 접수하며 정당한 의견들을 실행하며 적발된 결함들을 급속히 청산하는 그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만 당원들의 열성과 창발성이 더욱 제고되며 그들이 사업상 결함과 오유들에 대하여 보다 경각성을 제고하며 결함에 대하여 주저함이 없이 흉금을 털어 놓고 대담하게 비판할 수 있으며 자기의 건설적인 의견들을 충분히 내놓을 수 있다.

그러나 일부 당 및 행정 지도 일군들은 회의에서 토론 도중에 이러 저러한 질문으로서 토론자들을 곤난하게 만드는 등 그들의 비판과 정당한 의견들을 암암리에 억제하며 심지어는 공공연하게 토론을 억제하는 경향도 있다.

당 단체들은 밑으로부터의 비판에 대한 억압자들과 투쟁하며 회의에서 제기된 사업상 제의들과 비판적 지적들을 심중히 고려하며 자기 사업에서 그를 광범히 리용함에 주의를 돌려야 한다.

당적 통제의 위력은 당원 대중 뿐만 아니라 광범한

비당원 군중들에게 튼튼히 의거하고 있는 데 있다.

군중과의 련계를 강화하며 그들을 당적 통제에 인입하는 것은 옳은 지도의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생산 기업소들에서 생산 기술 협의회、생산 협의회 등 근로자들의 집회들은 비당원 대중을 통제 사업에 인입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된다. 또한 기관 사업에 대한、개별적 일군들에 대한 근로자들의 제의 및 신소에 대한 정확한 처리와 공장、기업소 신문、벽신문을 통한 사회적 비판 등은 대중적 통제를 강화하는 다른 한 측면을 이룬다.

당 단체들의 임무는 이러한 대중적 통제의 수단들을 옳게 활용하며 핵심 분자들을 발견하며 그의 대렬을 확대 강화하며 당원들은 물론 광범한 비당원 대중들의 귀중한 의견들과 가치있는 발기들이 지체 없이 접수 실현되도록 하며 당 단체와 행정 관리 측이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결함들을 적발 시정하도록 대중 속에서의 조직 정치 사업을 강화하는 데 있다.

정확한 당적 통제——이는 결함을 적발할 뿐만 아니라 그를 제때에 퇴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초급 당 단체들에 부여된 통제권은 당 단체들이 적발된 결함에 대한 시정 대책을 민속히 강구하며 경영 활동의 개선 강화를 위하여 행정 관리 측을 적극 방조하며 당 조직 정치 사업을 통하여 해당한 정치적、경제적 과업의 실현에로 대중을 적극 조직 동원하는 데 있다.

여기로부터 당 단체는 대중 속에서 일상적인 당 조직 정치 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임의의 사업에 있어서의 공고한 성과는 오직 대중을 조직하며 그들의 창의 창발성과 애국적 열성을 불러 일으킬 줄 알며 당면한 과업 실천에로 그들의 무진장한 힘을 조직 집중시킴으로써만이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당 조직 정치 사업이 계통적으로 진행됨이 없이는 경제적 성과를 달성할 수 없으며 또 성과를 얻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공고하지 못한 일시적인 성과에 불과한 것이다.

만일 당 단체들이 당 정치 사업을 망각하거나 과소 평가한다면 그것은 결국 경제적 성과 및 그 성과의 공고성과 장구성은 보장될 수 없다.

실제적 경험이 뵈여 주는 바와 같이 경영 활동에 대한 통제는 그가 경제 과업과 긴밀히 결부되고 생산 계획의 완수를 위한 투쟁과 밀접히 결부된 광범한 당 정치 사업에 의거하는 때에라야만 비로소 성과적인 것으로 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당 단체들이 정치적 활동과 경제적 활동을 능숙하게 결부시키고 있는 것은 아니다. 유감스럽게도 도내 일부 당 단체들 가운데는 근시안적인 협소한 테두리 안에 파묻혀 경제 사업을 정치 사업으로부터 분리시켜 경제적 숫자에만 매달리거나 자기의 본신 사업인 당 조직 정치 사업을 과소 평가하여 그를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실들도 있다.

정치 사업——이것은 광범한 근로 대중을·당의 정책과 경제 과업 수행에로 궐기시키며 로력적 열성을 앙양시키는 유력한 수단이다。

그러므로 당 단체들은 당 정치 사업을 옳게 조직하여 광범한 근로 대중을 로동에 대한 고상한 영예감과 선진 사상으로 무장시키며 그들의 계급적 각성을 제고시키며 조국과 인민、당과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과 애국주의 사상으로 무장시킴으로써 국가와 인민의 리익을 존중하며 국가 재산을 애호 절약하며 생산 계획 완수를 위한 투쟁에서 자각성과 창조적 적극성을 발휘하며 로력적 위훈의 길로 나아가도록 대중을 적극 고무 추동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당 정치 사업에서 형식주의와 교조주의를 철저히 근절하여야 한다는 그것이다。 아오지 탄광 초급 당 위원회를 비롯한 도내 일부 당 단체들은 대중 속에서 강연、해설、담화 사업들을 광범히 진행하고 있기는 하나 적지 않은 로동자들이 자기 계획을 완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 재산을 랑비하며 국가 규정과 로동 규률을 엄격히 준수하지 않는 현상들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바 바로 그 원인은 당 단체들이 정치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주체없이 많은 경우에 숫자적인 성과와 표면적인 것에만 관심을 두고 그의 내용과 사명에 대하여 신중한 주목을 돌리지 않은 데 주로 기인된다。

그러므로 당 단체들은 당 정치 사업을 생산에서 제기되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집중하며 대중의 준비 정도에 알맞는 다양한 형식으로 그들의 실생활과 밀접히 결부시켜 실효적으로 목적 지향성 있게 조직 진행하여야 한다。 오직 이와 같은 당 정치 사업만이 광범한 대중을 높은 자각과 적극성으로 생산과 행정 경영 활동의 개선을 위하여 열성적으로 참가하게 할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정치 사업은 경제 사업 성과를 보장하는 조직 동원적 력량으로 될 것이다。

생산 및 행정 경영 활동에 대한 당적 통제에 있어서 광범한 대중의 창발성과 적극성을 인입하는 중요한 수단의 하나는 증산 경쟁 운동이다。

증산 경쟁 운동은 수백만 근로자들의 창발적 발의와 열성에 의거하고 있는 대중적 운동인바 이는 밑으로부터의 대중적 통제의 중요한 수단이다。 증산 경쟁 운동을 통하여 근로자들은 생산 및 행정 관리 활동의 개선 강화를 위하여 사업에서의 결함과 부족점들을 적발하며 건설적인 창의 창발적 의견들을 제기하며 하달된 행정적 명령 지시 실천에서 보다 헌신적인 열성적 투사로 나서게 된다。

이리하여 근로자들은 유일 관리제를 강화하며 행정 경영 관리 사업을 개선함에 있어서 적극적인 기여를 하게 된다。 따라서 증산 경쟁 운동 그 자체는 또한 생산 및 경영 활동에 대한 근로자들의 밑으로부터의 강력한 대중적 통제의 기능을 제고시킨다。

그러므로 당 단체들은 증산 경쟁 운동에 대한 당적

지도를 부단히 개선 강화하여야 한다。 이는 국가 경제 계획의 실행을 보장하며 생산 능률을 계통적으로 제고하며 생산의 원가를 계통적으로 저하시킴으로써 사회의 물질적 부를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 건설에 대한 당적 지도와 통제를 집단적 지도와 대중적 통제의 수준에로 발전시키는 기본 수단의 하나로 된다。

그러므로 당 단체들은 증산 경쟁·지도에서 일부 일꾼들이 로동자들과의 신중한 협의 없이 직맹 및 행정의 몇몇 일군들에 의하여 작성된『의무 조항』을 우로부터 기계적으로 내려 먹이며 경쟁자들에게 필요한 작업 조건을 원만히 보장해 주지 않으며 그들의 광범한 창의 창발적 의견들과 합리화 제의들을 제때에 채택 해결하여 주지 않고 그를 묵살해 버리는 관료주의적 경향들과의 완강한 투쟁을 전개하는 데 당적 주의를 경주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당 단체들은 경쟁자들 간、브리가다、제호들 간의 호상 검열 총화 사업을 제때에 조직 진행하고 결함에 대한 날카로운 원칙적인 호상 비판을 강화하여 로동자들과 기술 일꾼들의 주인다운 역할과 적극성을 제고시킴으로써 생산 및 경영 활동에 대한 밑으로부터의 대중적 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밑으로부터의 통제는 사업에서 우리 당의 매개 당원들의 선봉적 역할이 높으면 높을수록、또 그들이 새로운 것과 선진적인 것과 원칙적인 것을 위하여 주인답게 적극적으로 투쟁하면 할수록 더욱 강화되는 것이다。

당 단체들의 모든 사업의 성과는 실로 매개 당원이 맡은바 자기의 사업에서 주인다운 역할을 원만하게 수행하고 있는가、그렇지 않으면 불원만하게 실행하고 있는가、그들이 당의 원칙을 확고하게 지키는가 안지키는가에 결정적으로 의존된다。

우리 당의 매개 당원들이 당의 통일과 단결을 옹호하여 투쟁하며 혁명의 리익을 눈동자와 같이 귀중히 여기고 어느 시각、어느 장소를 불문하고 항상 높은 혁명적 경각성을 견지하면서 매개 사건과 매 사업에 원칙적으로 대하며 일체 사업에서 결함과 비타협적으로 투쟁함으로써만 경제 사업에 대한 옳은 당적 통제와 성과가 보장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 단체들은 우리 혁명 발전의 매 시기에 당이 제기하는 정치 경제적 과업 수행에서 당원들의 주인다운 역할과 책임성을 제고하며 당 사업과 행정 경영 활동에서의 일체 결함과 부정적 현상들과 또 그리고 생산 지도에서 관료주의와 공명주의의 경향이 그 누구에게서 발로되든지간에 당원들이 당적 원칙을 고수하여 그러한 현상들과 투쟁함으로써 행정 활동에 대한 밑으로부터의 당원 대중의 통제를 강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에 있어서 당원들의 주인다운 역할은 그들의 맑스—레닌주의 세계관과 정확한 군중 관점의 확립여하에 크게 관련된다。

당 단체들이 매개 당원들의 주인다운 자각성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당원들의 계급적 의식을 제고시키며 그들에게 당의 규약상 의무와 권리를 명확히 리해시켜 그들의 정치적 열성과 사업에 대한 창발성과 적극성을 부단히 제고시켜야 한다。

오직 이와 같은 조건하에서만 당원들은 당의 주인으로서 당의 통일과 단결의 가일층 공고화에 지장을 주는 개인 영웅주의、출세주의、관료주의、가족주의 등 각종 그릇된 사상 경향과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며 당 사업과 행정 경영 관리 사업에서 발로되는 사소한 결함이라도 묵과하지 않고 제때에 폭로 비판하며 그를 시정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당 중앙 위원회 四월 전원 회의 문헌과 一二월 전원 회의 결정 정신을 매개 당원들에게 정확히 침투시키는 그것이다。

그러나 일부 당 단체들에서는 당 중앙 위원회 四월 전원 회의 문헌 학습을 진행함에 있어서 대상을 고려함이 없이 형식적으로 기계적으로 내려 먹이고 있다。

그러한 결과 아직 일부 당원들이 우리 혁명의 성격은 어떠하며 혁명을 성과 있게 완수하기 위하여서는 어떤 계급들과 동맹하며 당원들은 어떤 립장에서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투쟁하여야 되겠는가에 대하여 명확히 리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당 단체들은 당 중앙 위원회 四월 전원 회의 문헌과 一二월 전원 회의에서 하신 김 일성 동지의 교시 정신에 튼튼히 립각하여 당원들의 계급적 각성을 보다 제고하며 그들을 원칙성의 정신으로、결함에 대한 비타협적인 정신으로 무장시키며 자기의 임무 실행에서 창의 창발성을 발휘하며 결함의 극복과 사업의 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하는 견결한 투사로 육성 훈련하여야 한다。이렇게 함으로써 당 사업과 행정 경영 관리 사업 개선에 당원들이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대중에 의거하는 당적 통제——이는 실로 그 형식과 방법에 있어서 다종 다양하다。당 단체들은 각이한 사업에서 대중에 따르는 각이한 사업 형식을 발견할 줄 알아야 하는바 당적 통제를 창조적으로 능숙하고 권위있게 진행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당 단체 지도 일군들의 정치 실무 수준과 경제 지식 수준을 제고함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당 일군들이 경제 지식을 소유하지 않고서는 경제 건설에 대한 당적 지도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당 일군들은 경제적 과업과 정치적 과업을 능숙하게 결합시킬 줄 알며 복잡한 환경 속에서도 전진 운동의 방도를 찾으며 사업에서 기본 고리를 옳게 포착하고 그에 당적 력량을 집중시킬 줄 아는 정치적 예리성과 풍부한 경제 지식을 소유하기 위하여 정력을 다할 것이며 실지 활동을 통하여 풍부한 지도 경험을 소유함에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부 당 일군들 중에는 자기의 경험、지식에 만족하면서 허심하게 배우려하지 않으며 또 어떤 일군들은 시간이 없다는 구실 밑에 학습을 거의『포기』하는 일도 있다。

당 단체들은 당 일군들의 맑스—레닌주의 리론 학습에는 물론、경제 건설과 관련한 그들의 학습에 대하여 실질적인 방조와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그들을 풍부한 경제 지식으로 무장시켜야 할 것이다。한편 당 일군들은 현재의 지식과 경험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보다 새로운 지식과 경험들을 부단히 섭취 발전시키며 자체의 지도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당 지도 일군들의 정치 실무적 수준과 능력이 높음으로써만 당 단체들은 당 조직 정치 사업을 능숙하게 조직하며 매개 당원들과 대중들의 당과 국가의 주인다운 역할과 혁명적 적극성과 창의 창발성을 제고하며 그들을 당 사업과 행정 경영 활동에 적극 인입하여 당적 통제의 기능을 원만히 수행하며 당 사업의 높은 발전을 보장할 수 있다。

생산 및 행정 경영 활동에 대한 대중에 의한 당적 통제를 강화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행정 유일 관리제를 백방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경제 사업에 있어서 유일 관리제는 기업 경영 관리 활동의 가장 중요한 지도적 원칙이다。

유일 관리자——지배인은 기업소내 생산 활동、즉 행정 경영 활동 전체에 대하여 직접 국가 앞에서 책임지고 있는 전권 지도자이다。

유일 관리자는 기업소내 모든 기업 활동에 있어서 당 단체들과 근로 단체들과 기업소내 광범한 열성자들、즉 전체 집단에 의거하여서만 자기 사업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김 일성 동지는 당 중앙 위원회 三월 전원 회의에서 유일 관리제——이것은 무엇보다도 지도자의 수중에의 전 관리 계통의 집중을 의미하며 위임된 사업에 대한 개별적 책임성을 의미하며 관리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사업에 있어서 당 단체들과 적극적 핵심 분자들에 의거할 줄 아는 것을 의미한다고 교시하였다。

당 단체들은 기업 관리 활동에 대한 당적 통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유일 관리제를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생산에서 당 단체들은 당과 국가 앞에서 행정 관리측과 동일한 책임을 지고 있는바 그것은 무조건적으로 국가 생산 과제를 완수하여야 한다는 그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당 단체들이 생산 지도에서 기업 관리 일군들을 직접 대행하는 결과를 가져 와서는 안된다。

그러나 아직도 온성 탄광、아오지 탄광을 비롯한 도내 일부 당 단체들은 생산 활동에 대한 당적 통제를 실시한다 하여 행정 관리 부서 일군들을 거치지 않고

경제 문제를 직접 가로 말아 가지고 행정을 대행하고 있다。

그들은 많은 경우에 지배인의 지시문과 별로 다름 없는 행정적 성격의 문제를 취급한 당 결정서를 채택하여 관료주의적 방법으로 내려 먹이며 행정 부장들과 직장장들을 무원칙하게 빈번히 불러다 불필요한 생산 통계를 보고 받으며 행정적 지시를 주는 등 행정 지배인이 해야 할 사업을 당 일꾼들이 직접 대행함으로써 그들의 책임성을 마비시키며 창발성을 억제하고 있다。

실제적 경험이 뵈여 주는 바와 같이 당 단체들이 행정 사업을 대행 간섭하게 된다면 그것은 유일 관리제를 약화시키며 생산에서 무질서를 조성시키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만일 당 단체들과 경제 기관간에 엄격한 직능의 한계가 없고 당 단체가 무원칙하게 행정을 대행 간섭하게 된다면 행정 경영 일꾼들의 창발성과 역할을 마비시키며 당 단체 자체는 필연적으로 정치적 지도자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다 할 수 없으리라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일이다。

유일 관리자——지배인은 기업소의 활동 전체에 대하여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것만큼 경영 활동에 대한 당 단체들의 통제의 과업은 국가 계획 과제의 성과적 수행을 위하여 제기되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즉 기업소내에서의 풍부한 생산적 예비의 탐구 리용、로동 생산 능률의 부단한 제고、제품의 질적 개선과 원가 저하、선진적 경험의 보급 일반화、기술·기능 수준 제고、엄격한 절약제의 실시 등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경영 지도 일꾼들의 책임성을 제고하며 모든 점에서 국가 리익과 규률을 엄격히 준수하는 정신으로 일꾼들을 교양하며 당 조직 정치 사업을 통하여 사업에서 제기되는 곤난과 애로를 극복 타개하기 위한 투쟁에로 당원들과 비당원 대중을 힘있게 조직 동원하며 행정을 방조함으로써 당의 경제 정책의 정확한 실현을 보장하는 데 있다。

기업소 지배인과 당 단체 지도 일꾼들이 유일 관리제 원칙과 당적 통제의 본질을 정확히 리해하고 있는 그런 곳에서는 서로 융화하지도,않고 또 대립되지도 않으며 화목하게 당적 원칙에서 사업하고 있다。 그러한 일꾼들은 제각기 자기의 직능에 따라 부과된 권한과 임무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실행할 것인가、행정 관리측은 무엇을 구체적으로 하여야 하며 당 단체는 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 언제나 깊이 연구하며 경제 사업에서의 창조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공동적으로、집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유일 관리제의 강화와 행정 관리 지도 일꾼들의 위신에 대한 당 단체의 배려는 결코 강력한 비판과 투쟁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여 그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일부 당 단체들과 그 지도 일꾼들은 행정 관리측 사업에 대한 결함을 폭로 비판하는 것은 그 지도 일꾼들의 위신을 손상시킨다고 걱정하면서 사업상 결함에 대하여 융화 묵과하는 등 무원칙한 가족주의적 「화목」을 유지하고 있는바 마치 이것이 지배인의 위신과 유일 관리제를 강화하는 것처럼 그릇되게 간주하고 있다。

도내 일부 당 단체들과 그 지도 일꾼들은 일부 지배인을 비롯한 일부 기업 관리 일꾼들의 무책임한 현상들에 대하여 당적 책임을 추궁하지 않고 있으며 또 행정 지도 일꾼들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하등의 당적 대책도 강구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당 일꾼들은 일부 기업 관리 일꾼들이 당과 국가 규률을 위반하며 기업소의 실제 사업 형편에 대한 진상을 은폐하려하며 협소한 기관 본위주의와 지방주의적 립장으로부터 출발하여 당면 불필요한 원료 자재들을 은폐하며 일붙어 원료 및 자재에 대한 과장된 청구서를 제출하며 심지어는 생산량에 대한 허위 숫자를 상부에 보고하는 등 직접 당과 국가의 리익에 손해를 주고 있는 엄중한 현상들에 대하여서까지도 융화 묵과하고 있다。

당 단체들은 다른 모든 당원들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지도 일꾼들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대하여야 한다。 지도 일꾼들의 사업상 및 작풍상에 존재하는 결함과 오유들을 대담하게 폭로 비판하는 것은 결코 그들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제고시키며 그의 결함과 오유를 용이하게 시정할 수 있게 하여 준다。 또한 그들에게 존재하는 결함을 대담하고 솔직하게 폭로 비판하며 지도 일꾼 자신들이 그를 극복하기 위하여 진실하게 노력할 때에라야만 당 및 국가 사업에 대한 대중의 주인다운 책임성과 열성、혁명적 경각성이 제고되며 밑으로부터의 통제가 실제적으로 강화된다。

이와 함께 생산 및 행정 경영 활동에 대한 당적 통제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과업은 경제 관리 지도 일꾼들의 사상 정치적 수준과 경제 사업 지도 수준을 제고시키며 정확한 군중 관점과 인민적 사업 작풍을 확립시키기 위한 당적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맑스—레닌주의 리론과 경제 지식 수준을 제고하며 정확한 군중 관점과 인민적 사업 작풍을 소유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는 일꾼들만이 복잡하고 곤난한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자기 사업을 옳게 조직 진행하며 대중을 능숙하게 전진 운동에로 인도하여 나아갈 수 있다。

실제 사업의 경험은、맑스—레닌주의 리론·습득과 경제 지식 소유를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지 않는 경험주의자들은 우리 사업의 원대한 전망과 자기 사업의 전국가적 위치、및 그들의 호상 련계의 본질을 잘 리해하지 못하고 근시안적으로 목전 리익에만 급급하는 쓸모

없는 실무주의자로 전락되여 버리며 관료주의적、주관주의적 행동으로써 대중과 리탈하여 우리 사업에 손해를 끼치게 된다는 것을 뵈여 주고 있다。

그러므로 당 단체들은 교조주의자들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경험주의자들과 강력히 투쟁하며 지도 일군들의 사상 정치 및 실무 수준 향상에 대하여 심중한 배려를 돌리며 그들의 학습에 대한 당적 통제를 강화하며 실제 사업과 대중적 비판과 자기 비판의 기치하에서 그들의 당성을 단련시키며 정확한 군중 관점과 인민적 사업 작풍을 완성시키기에 노력하여야 한다。이리함으로써 지도 일군들은 자기 사업에 대한 명확한 전망을 가지고 유리한 모든 조건과 가능성들을 정확히 타산 리용할 줄 알며 대중과 더욱 밀접하게 접근하며 대중의 무진장한 창발성과 적극성을 동원시킬 수 있다。

우리의 모든 사업에 있어서 대중에 대한 지도 일군들의 능숙한 지도와 강한 요구성은 대중의 창발성과 적극성을 발양 제고시키며 또 그와 동시에 대중들의 당 및 국가 사업에 대한 주인다운 책임성과 창발성 그리고 밑으로부터의 적극적인 통제는 지도 일군들을 교양하고 단련시키며 그리하여 우리 사업의 부단한 개선과 전진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당 및 국가 경제 정책의 정확한 실행과 공장、기업소의 생산、행정 경영 활동의 보장을 위한 당적 통제의 특징과 위력은 우로부터의 통제와 밑으로부터의 통제를 능숙하게 결합시킨 거기에 있다。

오늘 우리 당 중앙 위원회는 당 및 국가 건설의 모든 분야의 사업에 대한 당적 통제를 강화하며 사업에서 질서와 규률을 더욱 강화하며 대중의 무진장한 열성과 창발성을 적극 발양 인입시킴으로써 그를 더욱 성과적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당 단체들이 당 중앙 위원회의 이 호소를 정확히 실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 위력의 원천으로 되는 당내 사상적 순결성과 조직적 통일을 더욱 강화하며 당원 대중의 계급 의식과 당성을 가일층 단련 제고시키면서 대중 속에서 광범한 조직 정치 사업을 옳게 전개하며 행정 지도부의 사업에 대한 정확한 통제와 특히 우리 사업에 대한 수백만 근로 대중의 밑으로부터의 통제를 잘 결합시키는 것이다。

수백만의 성실한 근로 대중의 현명한 지혜와 무진장한 힘과 열성을 믿으며 그들에 튼튼히 의거함으로써만 모든 사업에 대한 당적 통제를 정확히 보장할 수 있으며 그러한 당적 통제만이 진실한 위력있는 조직동원적、교양적 힘으로 될 있으며 우리의 사회주의 기초 건설의 거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근세 조선의 진보적 사상가 다산 정 약용

리 형 일

근세 조선의 실학자들의 큰 공적의 하나는 그들이 조선의 사회—경제、력사、지리、문화 등 각 분야에 걸친 자기들의 연구를 통하여 민족적 자각을 향하여 힘찬 걸음을 내 디디고 부패하고 무기력한 지배 계급의 사상을 배격하였다는 데 있다。

오늘 우리는 실학의 대성자이며 근세 조선의 진보적 사상가의 한 사람인 정 다산 서거 一二〇주년을 추모하면서 조선 사상사 발전에 그가 남긴 거대한 공적을 높은 긍지감을 가지고 자랑한다。

* * *

정 다산은 리조 봉건 제도가 조선 사회 발전의 질곡으로 되였으며 인민의 생활을 극도로 불행의 구렁에로 몰아 넣게 까지한 시기에 살았다。

리조 말기에 와서 조선도 생산력이 일정하게 발전하였으며 그 토대 우에서 상업—고리대 자본도 어느 정도 발전하였는바 이리하여 봉건적 토대는 위기에 봉착하게 되였다。

一八세기 말엽부터 금속 화폐가 대량적으로 주조되여 광범히 류통하였다는 사실、화폐의 이와 같은 류통과 관련하여 종래 쌀로서 납부되던 각종 공세(貢稅)가 금납(金納)으로 바꿔여져가고 있었다는 사실、객주(客主)、려각(旅閣) 등에 있어서 상업、고리 대금업 및 금융업이 발전하고 있었다는 사실、상인들 사이에 각종 길드적 조직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사실、어용 상인인 륙이전(六矣廛)의 세력조차 점차 커져서 정부에 대하여 위협을 주고 있었다는 사실、공사의 각종 외국 무역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전국 각처에 一、〇〇〇 여 개소의 시장이 형성되고 있었다는 사실 등은 리조 말기에 있어서의 상업 자본 발전의 상당한 수준을 말해 주는 것이다。

만일 리 성호(李星湖)의 시대에 있어서는 상업의 발전이 아직 미약하였고 따라서 리 성호에게는 그것이 다만 해로운 것으로서만 반영되여 배격되였다면 정 다산의 시대에 와서는 그것은 박 연암、홍 담헌 등의 소위 『홍상(興商)』론에서도、정 다산 자신의 리론에서도

보게 되는 바와 같이 나라를 부강화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서 인정되게 되였다。 이것은 상업 자본의 세력이 움직일 수 없이 확고하게 된 것을 의미하며 또 바로 이러한 시민적인 힘이 정 다산의 사상의 진보성을 조건지은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되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품—화페 경제의 발전은 봉건 사회가 그 우에 립각하고 있던 자연 경제를 파괴하고 농민들의 령락、빈궁화 과정을 촉진시켰다。 뿐만 아니라 관직에서 유리된 일부 량반들까지 몰락의 위험에 처하게 하였다。 당시의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정 다산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숙종조(肅宗朝)이래 화페가 대량적으로 류통하여 사채(私債)의 페해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백성들의 몰락은 모두 사채에 기인한다』(『목민 심서(牧民心書)』)。

또 당시의 토지 소유가 소수의 부자들의 수중에 집중된 것과 이에 기인하는 농민들의 비참한 생활 상태의 일단은 정 다산의 다음과 같은 말에서 볼 수가 있다: 『지금 나라의 토지는 대략 八〇만결(結)(화전 제외)이고 인구는 대략 八〇만호이다。 이제 인구 一〇명을 一호로 잡는다면 매 호가 一결을 얻는 경우에야 그 재산이 균등할 것이다。 그런데 문무 귀신(文武貴臣)들과 민간의 부자들 가운데에는 그 곡물이 수천석이 되는 자가 매우 많은데 그 토지를 계산하면 一、〇〇〇결을 내려가지 않으니 이것은 九九〇명의 생명을 희생으로 하여 一호를 살지게 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의 부자 가운데 례컨대 령남 최씨나 호남 왕씨같은 자는 그 곡물이 一〇、〇〇〇석이나 되며 그 토지를 계산하면 四、〇〇〇결을 내려가지 않으니 이것은 三、九九〇명의 생명을 희생으로 하여 一호를 살지게 하고 있는 것이다』(『전론』 一)。 또 『논 一〇마지기를 경작하는 자는 대개 二〇섬의 곡식을 얻는데 그중 一〇섬은 지주에게 바치고 二섬은 종자세로 들어가고 二섬은 환상(還上)으로 들어가고 二섬은 잡다한 부세(그 잡다한 명색은 여기에 렬거할 수 없다)로 들어가니 농부의 소유로 되는 것은 三—四섬에 불과하다。 옛날의 훌륭한 왕들의 시대에는 세금은 一〇분의 一이였는데 지금은 一〇분의 七、八이니 백성이 어떻게 살겠는가?』(『경세 유표』 권 一)。 여기에다 당시의 관리들이 『백성의 기름(民膏)』을 빨아 먹는 것을 당연한 권리로 알고 있었다는 것、죽은 사람에게서까지 세금을 받았다는 것(白骨徵布)、자식을 낳으면 사흘도 못되여 인두세를 물게 되는 바람에 생식기를 잘라 버리는 일(切陽)까지 있었다는 것 등을 첨가하여 생각한다면 당시 인민들의 생활이 어느 정도의 도탄에 빠져 있었겠는가를 가히 짐작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사태하에서 농민들이 종전대로 살기를 원치 않게 되여 『모두 폭동을 일으킬 생각을 하게 되고(擧皆思亂)』(『목민 심서』) 나아가서 『폭동을 일으키게 된 것(作亂)』은 당연한 일이다。 그리하여 당시부터 농민 폭동은 일층 빈번하게 되였고 또 그 규모도 점차 확대되였는바 一八一一년의 홍 경래 농민 전쟁을 거

쳐서 一八九四년의 갑오 농민 전쟁에 이르러 리조 봉건 사회의 농민 운동은 가장 치렬하고 대규모적인 혁명적인 형태를 보이였던 것이다。

상업 자본의 발전과 함께 수공업도 발전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업 및 수공업의 발전도 당시의 조선의 사회 경제적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제한을 받았으며 따라서 상업 자본의 대표자들이 반봉건적 세력으로 성장하지 못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봉건 전제 제도의 위기는 자본주의 제도에 의하여 봉건 제도가 대체될 전야의 위기인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적 요소의 미발전、이에 제약된 봉건 제도 자체의 나갈 길 없는 막다른 골목을 의미하는、또 당시의 국제 정세—자본주의 제국에 의하여 침략될 위험성—하에서 다른 봉건적 왕조에 의하여 교체될 가능성도 없는 위기로서 례컨대 고려말의 그것과도 서구라파 제국이나 一九세기 로씨야의 그것과도 구별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위기이였던 한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진보적인 투쟁과 그 투쟁의 무기로서의 진보적인 이데올로기를 낳지 않을 수 없었는바 그리하여 발전의 전망을 잃고 궁색하고 있던 유교 사상과 병행하여 실학파의 사상이 형성되였다。 그러나 그 위기가 락후한 생산력의 수준、따라서 또 자연 인식의 낮은 수준에 의하여 제약되고 있었던 한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투쟁은 농민의 자연 생장적 투쟁으로서 밖에 나타날 수 없었고 그 투쟁의 무기로서의 이데올로기의 진보성도 그만큼 제한되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 하면 그 이데올로기의 담당자로 나선 것이 부르죠아지인 것이 아니라 당시 정권으로부터 떨어져 있던 몰락 량반들 중의 지식 분자들이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실학의 대성자 정 다산도 부르죠아 민주주의 사상에까지는 도달할 수 없었고 주로 농민 혁명의 이데올로그로서 나타났다。

그러나 정 다산의 저서에서 우리가 보는 『인간의 자주권』의 사상、이에 기초한 『민권 옹호』 사상、『밭갈이 하는 자만이 토지를 얻는다』는 사상、나아가서는 『려전제(閭田制)』에서의 유토피아적 사상 등에는 정 다산의 주관 여하와는 독립적으로 부르죠아 민주주의 혁명의 리념의 맹아가 싹트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망각해서는 안될 것은 정 다산의 사상의 형성 및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논 당시의 자연 과학 사상이다。 당시 중국을 통하여 서구라파 문화—초보적인 근대 자연 과학이 천주교와 함께 조선에 류입하였는데 이것은 조선에서의 자연 과학—천문학、력학、수학 등 각 분야의 새로운 발전을 가져왔다。

그리하여 홍 담헌은 훌륭한 수학책 『주해수용(籌解需用)』을 쓰고 『지동설』을 발표하였으며 남 병철、남 병길 형제는 수학、천문학 분야에서 높은 리론적 수준에 도달하였다。 정 다산 자신도 훌륭한 자연 과학자였다。 당시의 이러한 자연 과학의 발전은 정 다산의

사상의 일정한 과학성、합리성、실증적 성격을 규정하였다。

상술한 바와 같은 사회—경제적 기초 우에서 자연 과학의 제 자료와 조선 철학 사상 발전의 총성과를 소재로 하여 정 다산은 류 반계로부터 시작하여 리 성호를 거쳐서 홍 담헌、박 연암 등으로 발전해 내려온 실학 사상을 대성하여 전체 포괄적이고 심오하고 진보적인 사상 체계를 수립하였다。

※ ※ ※

정 다산은 一七六二년 (영조 三八년) 六월 一六일 (음력) 경기도 광주군 초부면 마현리 (현재의 양주군 와부면 릉내리)의 하급 관리의 가정에서 탄생하였다。 그의 이름은 약용(若鏞)이며 다산은 호(號)이다。

一六세 때에 리 성호의 종손인 선배 리 가환(李家煥)과 자형(姉兄) 리 승훈(李承薰)에게서 리 성호의 유고를 얻어 읽고 이 때부터 유학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대하고 실학적 사상의 경향을 가지게 되였다。

二二세 때에 형들인 약종(若鍾)、약전(若銓)과 함께 진사 시험에 합격하였고 二三세 때부터 천주교 및 서구라파 자연 과학에 접하게 되여 천주교도로 지목당하게 되였다。 그러나 정 다산은 서구라파의 선진적 자연 과학적 사상은 섭취하였으나 천주교는 그 황당무계성을 알고 신봉하지 않았다。

당시 정부는 천주교를 『사교(邪敎)』라 하고 서구라파의 자연 과학 사상을 『사학(邪學)』이라 하여 탄압하였다。 그리하여 정 다산이 四〇세되던 一八〇一년에 소위 『신유 사옥(辛酉邪獄)』이 일어나 많은 천주교도들이 학살 투옥되였는 데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정 다산의 둘째 형 약종은 사형을 당하고 세째 형 약전은 신지도(薪知島)에、정 다산은 장기(長鬐)에 각각 류형당하였다。

그후 정다산은 다시 강진(康津)에 옮겼다가 一八一八년 八월에야 류형 생활 一八년만에 비로소 해방되여 마현리 본가에 돌아왔으며 여기에서 지금으로부터 一二〇년 전인 一八三六년(헌종 二년) 二월 二二일에 고난에 찬 일생을 끝마치였다。

정 다산은 자기의 일생을 통하여 불굴의 의지와 애국적 열정을 가지고 당시의 부패한 봉건 통치 제도를 비판하면서 각종 개혁안을 제출하였으며 시종 일관 학문에 정진하여 각 분야에 걸쳐 훌륭한 공적을 남겨 놓았다。

그의 저술로서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여유당 전서(與猶堂全書)』(七六책)인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경세유표(經世遺表)』、『목민심서』、『흠흠신서(欽欽新書)』、『아방강역고(我邦疆域考)』『대동수경(大東水經)』、『아언각비(雅言覺非)』、론어、맹자、중용、주역、시경、서경 등 유교 경전에 대한 주해서、『원목(原牧)』、『탕론(湯論)』、『전론(田論)』 등등이다。

정 다산은 자기의 이러한 저술들을 통하여 무엇보다 리조 봉건 전제 제도하에서 완전한 무권리와 빈궁 가운데서 신음하던 농민 및 일반 인민 대중에 대한 깊은

동정을 표시하였으며 당시의 봉건 전제 제도에 대하여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그는 원래는 통치자가 인민에 의하여 선거되고 인민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던 것이 후세에 와서는 반대로 인민이 통치자를 위하여 존재하게 된 사태에 대하여 견결히 반대하였다。

자기의 저서 『원목(原牧)』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쓰고있다: 『태고 시대에는 인민뿐이였으니 어찌 목 (즉 통치자)이 있었겠는가? 인민은 무지하고 집거해 살고 있어서 그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결정을 짓지 못하였다。 한 늙은이가 있어서 공정한 말을 잘하기에 그들은 그에게 가서 그에게서 판결을 받으며 또 온 마을 사람들이 그에게 복종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를 추대하여 리장(里長)이라고 불렀다。 또 수개 마을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결정을 짓지 못하였다。 어떤 한 늙은이가 현명하고 지식이 많기에 수개 마을 인민이 모두 그에게 가서 판결을 받으며 또 그에게 복종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를 후대하여 면장(面長)이라고 불렀다。 또 면의 인민들은 면과 면 사이에 분쟁이 있을 때 결정을 짓지 못하였다。 어떤 한 늙은이가 현명하고 덕이 많기에 그들은 그에게 가서 판결을 받으며 또 그에게 복종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를 주장(州長)으로 모셨다。 이상과 꼭 같은 사정과 절차에 의하여 수개 주의 장들이 한 사람을 추대하여 장을 삼아 왕이라고 불렀으며 왕들이 한 사람을 추대하여 최고의 어른을 삼아 황제라고 불렀으니 황제는 리장에서 나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통치자는 인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리장은 인민의 희망에 따라 법을 제정하여 면장에게 올리고 면장은 인민의 희망에 따라 법을 제정하여 주장에게 올리고 주장은 왕에게、그리고 왕은 황제에게 올렸다。 따라서 그 법이 모두 인민에게 편리하였다……』。

『후세에 와서는 한 사람이 자기 스스로 황제가 되여 자기의 부하들을 왕으로 만들며 왕은 자기의 심복자를 선택하여 주장으로 삼으며 주장은 자기의 심복자를 천거하여 면장、리장으로 삼았다。 그리고 황제는 자기의 욕망대로 법을 제정하여 왕에게 주고 왕은 자기의 욕망대로 법을 제정하여 주장에게 주고 주장은 면장에게、면장은 리장에게 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은 모두 통치자의 지위를 높이고 인민의 지위를 낮추며 아랫 사람에 대해서는 강박하고 웃사람에게는 아부한다。 그리하여 인민은 전혀 통치자를 위하여 사는 것처럼 되였다』。

통치자가 리장으로부터 황제에 이르기까지 인민의 의사에 의하여 선출되여 추대되며 법이 인민의 희망에 따라 제정되는 원시적 민주주의에의 복고를 주장하고 후세에 와서 이와는 정반대되는 전제 제도의 지배를 비난하는 이 론의는 그 복고주의적 외피에도 불구하고 근대적인 민주주의、민권주의 사상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탕론(湯論)』에서는 그는 같은 사상을 다른 각도에

서 론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상이 전개되여 있다、즉 통치자는 인민에 의하여 선거되여야 하는 것이니만큼 그가 만일 인민을 위하여 잘 복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인민들의 회의에서의 결정에 의하여 『소환』되여야 한다는 것이다。이 소위 『역성 혁명(易姓革命)』의 정당화는 당시의 현존 질서인 전제 제도와는 불상용적으로 모순된다。정 다산은 말하자면 황제도 있고 제후도 있는 그러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인민이 『자주적 노력』에 의하여 누구나 다 잘 살 수 있고 누구나 다 『성인』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념원하였던 것이다。

정 다산은 물론 농민들의 반봉건적 투쟁의 선두에 서서 싸우지도 않았고 또 그럴 능력도 없는 계급에 속해 있었다。그러나 그는 자기의 사상으로써 농민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고무하였다。그의 사상의 반(反)봉건성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그가 호남 농민들이 폭동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는 무기력을 한탄한 것은 그의 이러한 념원의 표시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러면 인민이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경제 제도가 수립되여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필연적으로 제기된다。

이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 다산은 방대한 저술과 막대한 노력을 바쳤다。

그는 『발갈이하는 자만이 토지를 얻는다』는 원칙에서 이 문제 해결의 고리를 찾았다。그는 『경세 유표』에서 이 원칙을 제기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서 『정전제(井田制)』를 실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그후에 이 『정전제』에 의해서는 『발갈이 하는 자만이 토지를 얻는다』는 원칙이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의 리론을 발전시키고 있다。

그리하여 그는 『전론(田論)』에서 『려전제(閭田制)』라는 것을 고안하였다。

『이제 농민으로 하여금 토지를 얻게 하며 농민아닌 자로 하여금 토지를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려전법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말하면서 정 다산은 자기의 리론을 다음과 같이 전개하고 있다:

『려전이란 무엇인가? 각종 지형 조건에 따라서 경계를 획정하여 그것을 려(閭——약 三〇호 내외)로 하고 三려를 리(里)로 하고 五리를 방(坊)으로 하고 五방을 읍으로 한다。려에는 려장을 두며 려의 토지는 그 려의 사람들이 다 경작하게 한다。

매일하는 로동은 려장이 장부에 기입한다。가을에 수확한 곡물은 모두 려장네 창고에다 실어다 넣고 먼저 국가의 세금을 바치고 다음에는 려장의 봉급을 주고 그 나머지를 분배하되 매일의 로동을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분배한다: 로동을 많이 한 자는 곡물을 많이 얻으며 로동을 적게 한 자는 곡물을 적게 얻는다。따라서 로력을 적게 들이고 곡물을 많이 얻는 자가 없게 된다:

그리고 인민은 각각 자기의 리해 관계에 따라서 이동하는 것이므로 그들이 농업으로부터 상업에로 전직

하려 하거나 인구가 많고 토지가 적어서 힘을 많이 들이고도 수확이 적은 지방으로부터 수확이 많은 지방에로 이동하려 할때에는 그들의 자유 의사에 맡긴다:

이렇게 하면 명령하지 않아도 八、九년 내지 一〇년 내외로 국중의 토지가 균등하게 분배될 것이다。그리고 이렇게 균등하게 된 다음에 인민을 등록하여 그 이동을 조절한다』。

그러면 농민 이외의 선비(士)、상인、수공업자 등은 어떻게 할 것인가?

『농민만이 토지를 얻고 농민 아닌 자는 토지를 얻지 못하며 농민만이 곡물을 얻고 농민 아닌 자는 곡물을 얻지 못한다。수공업자는 그가 만드는 물건으로 교역하고 상인은 그의 화폐로 교역할 터이니 무방하다。그런데 선비는 신체가 약하여 육체 로동을 할 수 없으므로 장부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며 따라서 가을에 분배 받을 것이 없다。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까지는 선비가 놀고도 남의 토지를 삼키며 남의 힘을 먹기 때문에 인민이 폭동을 일으킨다。이제 놀고는 곡물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면 농업으로 전직하게 될 것이다。그러나 반드시 농업으로 전직할 수 없는 자가 있을 터이니 이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혹은 공업이나 상업으로 전직하는 자도 있고 혹은 낮에는 밭을 갈고 밤에는 글을 읽는 자도 있고 혹은 부유한 집 자제를 교수하여 생활하는 자도 있고 혹은 각종 리론을 연구하고 각종 기술을 발전시켜 로동을 용이하게 하며 수예 목축을 교도하여 농민을 원조하는 자도 있을 것이다。그런데 이러한 자의 로동은 보통 육체 로동자의 로동보다 그 성과가 크므로 하루의 로동을 一〇일의 로동으로、一〇일의 로동을 一〇〇일의 로동으로 기록하여 곡물을 분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면 세금 제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토지세는 수확의 一〇분의 一로 한다。그 이하도 안되며 그 이상도 안된다。그러나 一〇분의 一이라는 것도 실시하기가 용이하지 않다。그 해의 풍흉을 보아서 그 세액을 오르내릴 것인가? 이것은 정전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려전에서는 토지의 비척、득곡의 다과를 수년 동안 비교하여 일정한 량을 결정하여 가감할 수 없게 하고 다만 대흉년에는 면제하고 대풍년에는 몇 배를 받는다。이렇게 하면 국가의 수입도 일정하게 되며 인민의 지불도 일정하게 되며 모든 분란이 정돈될 것이다…』。

여기에는 많은 천재적인 통찰이 있다。토지의 공동경작、로동을 장부에 기록하여 곡물을 로동의 다과에 의하여 분배한다는 원칙、앉아서 놀고 먹던 계급、계층의 로동에의 추동(『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말라』는 원칙)、복잡한 정신 로동과 단순한 육체 로동과의 사이의 분배의 차이 설정 등등——이러한 모든 것은 그의 사상이 공상적 성질에도 불구하고 또 봉건적인 외피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적인 요소를 포괄하고 있다는것을 뵈여 준다。이러한 사회는 봉건 제도와는 절대로 상

용될 수 없으며 따라서 그것이 실현되는 경우에는 그를 봉건 사회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 다산의 주관적 의도는 혹은 이러한 안을 가지고 봉건 제도를 수정하려는 데 있었는지도 모르나 그러나 객관적으로는 그것은 반(反)봉건적인 것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정 다산이 『발갈이하는 자만이 토지를 얻는다』는 부르죠아 민주주의적 사상의 요소를 부르죠아 민주주의적 원칙으로서 확립하지 못한 데에는 시대적 제약이 표현되여 있다。 려전제는 철제적인 착상으로서 사회주의적인 요소까지도 포함하고 있으나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 공상이였다。 반봉건적 부르죠아 민주주의 혁명에 자주적으로 진출할 세력이 없었으며 사회가 막다른 골목에 빠져 있었다는 데에 그러한 공상의 근원이 있다。 레닌은 『유로피아、즉 공상은 비자주성、약점의 소산이다。 공상적 경향은 약자의 운명이다』(『두날의 유토피아』)라고 말하였다。 정 다산의 공상도 전제 제도를 타파할 수 있는 현실적 혁명 세력에 의거하지 못한 약자로서의 정 다산의 사상적 표현인 동시에 또 당시의 인민의 선량한 소원의 표현인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강자인 지배계급에 대한 열렬한 반항의 정식화이였다。

다음으로 상업 및 공업에 대한 정 다산의 견해를 본다면 이 점에서도 그의 학설의 진보적인 성격을 볼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실학자들은 리 성호를 제외하고는 모두 상공업을 발전시키는 것을 나라의 부강화를 위한 하나의 중요한 조건으로 간주하고 있다。 특히 박 초정에게 있어서는 『홍상론(興商論)』에까지 도달하고 있다。 정 다산에게 있어서는 『홍상론』을 따로 볼 수는 없으나 그도 역시 분업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상 공업자에게는 토지를 주지 않고 각각 자기의 직업에 의하여 농민과 교역하여 살게 하며 교통을 발전시켜 상 공업의 발전을 촉진시킬 것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만한 것은 정 다산의 공업、기술에 대한 견해이다。 그는 『농기가 편하면 힘이 적게 들고 곡물을 많이 얻으며 짓기가 편하면 힘이 적게 들고 포백(布帛)이 족하며 주차의(舟車)의 시설이 편하면 힘이 적게 들고 먼곳에 있는 물건이 정체하지 않으며 기중(起重)의 시설이 편리하면 힘이 적게 들고 루각과 제방이 견고하게 된다。 이것이 소위 백공(百工)이 구비하면 재용(財用)이 족하게 된다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수리(數理)가 그 기본』이라 하면서 박 연암、박 초정 등과 함께 이 방면에서 특히 『북학(北學)』을 강조하고 있다(『경세 유표』참조)。 그가 八자 기중기를 발명하여 수원성 구축에서 四만량의 경비를 절약하였다는 이야기는 유명하다。

다음으로 자연 과학자로서의 정 다산에 관하여 몇마디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정 다산은 그 시대에 조선에 류입한 서구라파 자연 과학에 큰 관심을 돌려 이를 섭취하고 연구하기에 노력하였다。 그것은 산업을 위하여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우선 천문학、자연 지리학에서 탁월한 견해를 진술하였는 데 특히 주목할만 한 것은 그의 『해조론(海潮論)』이다。 그의 리론에 의하면 조수의 간만은 달과 해의 작용에 의하여 일어나며 또 그 경우에 달의 운행에 수반하여 지구상의 바다에는 항상 두 대렬의 조류가 흐른다。 이것은 탁견이다。 다만 유감인 것은 정 다산이 조수의 간만의 원인을 아직 달과 해의 인력으로써 설명하지 못하고 달과 해의 빛에 대한 조수의 감만으로써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수의 간만을 천체의 인력에 의하여 설명하는 것은 서양에서도 갈릴레이같은 사람에게 있어서조차 아직 볼 수 없었던 만큼 당시의 조선의 자연 과학의 수준하에서 정 다산의 리론이 가지는 의의는 실로 큰 것이다。

다음으로 정 다산도 다른 실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지원설(地圓說)』을 주장하였다。 그는 이 리론을 상세히 기하학적으로 론증하고 있는 점에서 다른 학자들보다 훨씬 앞서 있다。

정 다산은 또 광학(光學)도 각 방면으로 연구하고 있다。 렌즈에 관한 연구도 그중의 하나이어니와 특히 흥미있는 것은 그가 소위 『암상(暗箱)』의 리론에 주목하였다는 사실이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어두운 방의 창문에다 작은 구멍을 내여 광선을 도입하고 그 광선이 닫는 데에다 흰 종이를 놓고 관찰하면 그 광선이 형성하는 상(像)이 그 구멍의 형태 여하를 불구하고 모두 원형을 이루며 또 어떤 물건을 그 구멍을 통하여 비치면 그 물건의 상이 종이 우에 거꾸로 나타난다。 정 다산은 물론 이 현상을 리론적으로 설명하지는 못하였다。 이 현상의 리론적 설명은 광선의 직선 진행에 관한 리론이 확립된 이후에야 가능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정 다산이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주목을 돌렸다는 사실 하나만으로서도 우리는 그가 자연 과학에 대하여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으며 또 이 점에서 우리는 그를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또 정 다산은 력학에 관해서 깊은 조회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활차(滑車)、기중기 등의 리론을 상세히 연구하고 있다。

이상에서 간단히 본 정 다산의 자연 과학적 지식은 그 당시의 조선으로서는 주목할만한 것이나 그러나 그것은 아직 단편적인 재료 수집의 첫 걸음에 불과한 것이였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 과학적 지식、그것에 대한 열정은 정 다산으로 하여금 합리적이며 실증적이며 과학적인 리론가로 되게 하였으며 그의 학설의 전체로서의 유물론적 성격을 조건지었다。 그리하여 그러한 지식에 기초하여 그는 종래의 미신적인 『상론(相論)』、『풍수론(風水論)』등도 비판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타방으로는 그의 자연 과학적 지식의 단편성은 그로 하여금 유학을 완전히 지양(止揚)하고 전일적인 유물론적 세계관을 형성할 수 없게 하였으며 무신론에까지 도달할 수 없게 하였다。

❋ ❋ ❋

우에서 고찰한 정 다산의 제 견해는 그의 철학 사상과 많으나 적으나 유기적으로 련관되여 있다.

철학의 기본 문제는 물질과 정신, 존재와 사유와의 관계 여하의 문제이다. 조선 철학에서는, 이 문제는 중국 철학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리(理)』, 『기(氣)』 등의 개념으로써 전개되여 왔다. 그런데 이러한 개념의 철학적 불명확성으로 말미암아 철학의 기본 문제는 완전히 명확하게는 해결되지 못하였고 궁색에 빠졌다. 이러한 개념이 포기되고 새로운 근본 개념으로써 철학이 구성되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러나 새로운 근본 개념, 즉 물질과 정신, 존재와 사유 등으로써 철학이 체계적으로 구성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조건도, 과학적 재료도 불충분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정 다산은 리, 기 등의 개념을 완전히는 포기하지 못하고 다만 그 내용을 약간 변경시켜 그냥 사용하고 있다. 즉 리에 대해서는 그것을 종래와 같이 고원(高遠)하게 해석하여 신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리해하는 대신에 그저 『맥리(脈理)』, 리치 등의 뜻으로 단순히 리해하면서 그것이 세계를 설명하는 근본 원리로 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기에 대해서는 그것을 『혈(血)』을 지휘하는 일종의 에네르기로 보면서 역시 『성리학(性理學)』에서 보통 사용되고 있는 그것과 구별하고 있다.

이리하여 리와 기로써는 철학의 기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게 되였다. 그러나 그러한 개념, 특히 기는 아직 그의 철학적 론의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그러한 개념으로써 론의를 전개하는 경우에는 그도 역시 흔히 부조리한 사변에 빠지고 있다.

어떠한 철학이든지 철학의 기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한 반드시 유물론과 관념론의 어느 하나에 속하지 않을 수 없다. 적어도 그중의 어느 편으로 기울어지기라도 하지 않을 수 없다. 완전한 중간은 없는 것이다. 리와 기로써 철학이 구성되는 경우에는 유리론(唯理論)과 유기론(唯氣論)의 두 진영으로 나누워 지며 그 밖에 리, 기 二원론이 있을수 있으나 이것은 궁극에 있어서는 전 량자의 어느 하나에 속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유리론과 유기론에 있어서 리 기 등의 개념의 불명확성으로 말미암아 유리론은 언제나 곧 관념론으로 되지만 유기론은 유리론에 비해서는 유물론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 다산은 유기론을 지지하였고 또 기의 개념을 사용하는 론의에서는 자신도 유기론의 립장에 섰던 것이다.

그러나 정 다산에게 있어서는 우에서 말한 바와 같이 리, 기의 개념으로써는 철학의 기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였기 때문에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새로운 시도가 나타났다.

그리하여 그는 『주역(周易)』의 사상에 근거하여 그것을 일층 발전시켜 『주역』의 『四상(象)』을 『태양 태음 소양 소음』으로 보지 않고 『천지수화(天地水火)』로

보면서 『주역』의 『四상』이란 실은 이 『천지수화』라는 네 가지 물질적 원소의 모상(模像)이라고 인정하였다. 이와 같이 네 가지의 물질적인 원소로써 세계를 설명하는 것은 명백히 유물론적인 자연 철학이다. 정 다산은 또 『주역』에 내포되여 있는 변증법적 사상도 일층 구체화하여 발전시켰다. 그는 말하기를: 『대체로 천지간의 주야의 교체, 한서(寒暑)의 변천, 초목 백곡의 번성과 조락, 금수 곤충의 운동과 번식 등은 모두 주역의 변화의 원리에 복종하고 있는 현상이다』(『주역 四전』). 그리고 나아가서 모든 사물이 『두 측면의 합일』로써 구성되여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지상에 있는 사물은 각종 곡물과 각종 과실이 모두 두 판(瓣)이 합쳐져 있으며 인간의 신체도 역시 머리로부터 시작하여 모두 둘씩 합쳐져 있으니 물질적인 사물은 모두 그 형태가 대립적인 두 측면의 합일이다』(동 상서). 전자의 『만물은 변한다』는 명제와 이 후자의 『만물은 대립물의 합일이다』라는 명제는 만일 이 량자가 정 다산에게 있어서 통일되여 있었더라면 더 훌륭하였을 것이나 그 하나 하나가 개별적으로도 변증법에 대한 심오한 통찰이다.

이와 같이 하여 정 다산은 전일적인 변증법적 유물론적 세계관을 형성하기에 까지는 거리가 멀었으나 어쨋던 변증법적이며 유물론적인 요소를 내포한 세계관을 향하여 나아갔다.

다음으로 철학의 또 하나의 기본 문제인 세계의 가인식성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정 다산은 세계의 가인식성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으나 주자학자들의 소박한 경험론에 대하여 반성을 가하면서 탁월한 견해를 진술하고 있다. 정 다산은 보통 주자학자들이, 사물이 인간의 의식에 반영되는 것을 단순히 자명한 것으로서 전제로 하는 것을 반대하여 인간측으로부터의 일정한 『노력』이 없이는 사물이 의식에 반영할 수 없지 않겠는가고 회의하고 있다. 이리하여 인식론에 인간의 『노력』이 도입되고 있는데 이것은 극히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물론 이 소위 『노력』은 아직 우리가 말하는 『실천』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로 나마 인식에 있어서의 실천의 역할을 예감한 것은 정 다산의 큰 공적의 하나가 아닐 수 없다.

다음으로 『성설』에서 정 다산은 자기의 리론을 가장 날카롭고 가장 풍부하게 전개함으로써 그의 철학의 전체로서의 유물론적 성격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정 다산에 의하면 인간 및 만물의 『성』은 주자학자들이 생각하는 바와 같이 『리』, 『태극(太極)』 등등과 같은 고원하고 신비로운 어떤 것이 아니다. 성은 단적으로 말해서 『기호(嗜好)』이다. 즉 인간 및 만물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내적 경향이다. 그런데 인간의 성—기호는 무엇인가?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이러한 성과 함께 『선을 하기는 어렵고 악을 하기가 쉬운』경향과 『선을 할 수도 있고 악을 할 수도 있는 자주권』이 부여되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간이 선을 하느냐 악을 하느냐 하는 것은 주자학자들이 생각하는 바와 같이 그의 기질(氣質)、즉 육체적 구조가 맑으냐 흐리느냐 하는 데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성에 기초하여 『선을 하기는 어렵고 악을 하기는 쉬운』 경향을 『선을 할 수도 있고 악을 할 수도 있는 자주권』이 극복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데 달려 있는 것이다。 인간의 성은 본래 선하다는 것이 전제로 되고 있는 조건하에서 기질이 맑으면 선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 경우에 선은 체질의 자연적인 결과인 것으로 하등 찬양할 바가 못되며 또 반대로 기질이 흐려서 악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도 역시 자연적인 결과로서 전혀 비난할 바가 못된다。

선을 하며 악을 하는 데 대하여 혹은 찬양하며 혹은 비난하는 것은 바로 인간에게 『선을 할 수도 있고 악을 할 수도 있는 자주권』이 있기 때문인 것이다。

정 다산에 의하면 이러한 『자주권』은 인간에게만 있고 동물 및 기타 사물에는 없다。 때문에 인간은 이러한 점에서 모두 동등한 것이다。 그런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을 할 수도 있고 악을 할 수도 있는 자주권』은 그가 교제하는 주위의 사람들、즉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왜냐 하면 환경의 선 악은 그의 『선을 하기는 어렵고 악을 하기가 쉬운』 경향에 작용하여 혹은 이를 강화하며 혹은 이를 약화함으로써 『자주권』으로 하여금 그것을 극복하는 것을 돕기도 하고 방해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력하면 인간은 누구나 다 성인으로 될 수 있다。 이것이 정 다산의 견해이다。

이와 같은 견지에 립각하여 정 다산은 인간을 선천적으로 상、중、하의 三등급으로 나누는 유학자들의 사상을 반대하고 인간이 그 본성 및 권리에 있어서 동등하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정 다산은 인간을 『사회적』 동물로 보려 하였다。 그는 『원래 인간은 이 세상에 떨어지는 애당초부터 관속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과 더불어 생활한다』고 말하고 『나와 다른 사람과의 두 사람 사이에는 교제가 발생하는 데 잘 되면 효(孝)、제(悌)、충(忠)、신(信) 등이 나타나고 잘 못되면 패(悖)、역(逆) 등이 나타난다』고 하였다(『론어 고금주』권七 참조)。 여기서 인간 관계가 생산 관계로서 리해되고 있지 않는 것은 사실이며 또 당시로서는 그럴 수도 없었으나 도덕적 규범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 귀착시킨 것은 탁월한 견해이다。

그리하여 유학자들이 인(仁)、의(義)、례(禮)、지(智) 등의 도덕적 범주를 인간의 본성에 내재하는 선천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반대하여 정 다산은 그러한 것이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잘 된 결과에 대한 명칭이라고 언명하였던 것이다。 그는 인(仁)을 해석하여 『인이란 인(人)이다。 二인을 인이라 한다。 아비와 아들은 二인이다。 형과 동생은 二인이다。 임금과 신하는 二인이다。 통치자와 인민은 二인이다。 무릇

二인 사이에서 그 본분을 다하는 것을 인이라 한다』고 말하고 나아가서 『인、의、례、지의 이름은 행동이 있은 이후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사람을 사랑한 이후에야 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는 인이란 이름은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어찌 인、의、례、지의 四개의 알이 복숭아 씨나 살구씨처럼 사람의 마음 가운데 내재하여 있겠는가?』(『맹자 요의』)。

이와 같이 도덕을 인간의 내재적 본성에서 도출하는 것을 반대하여 그것을 인간의 사회적 관계에 귀착시킨 것은 유물론적 도덕론을 향하여 힘찬 일보를 내디딘 것이다。

이 밖에도 유물론적인 요소를 내포한 많은 탁월한 견해가 있는 데 요컨대 이러한 유물론적인 제 견해가 그의 정치적、경제적 및 기타 제 견해와 유기적으로 련관되여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례컨대 그의 『자주권』에 관한 사상、『인간 평등』에 관한 사상의 요소 등등이 그의 『민권 옹호』사상、『밭갈이하는 자만이 토지를 얻는다』는 사상 등등과 련관되여 있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정 다산의 철학 사상에는 유학이 극복되고 새로운 세계관이 형성되려는 기맥이 보인다。 그러나 당시의 사회 경제적 제 조건과 자연 과학 발전의 낮은 수준과 또 정 다산 자신의 계급적 제한성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새로운 세계관은 형성되지 못하였다。

이상에서 우리는 정 다산의 여러가지 견해를 간단히 고찰하였는 데 그의 학설은 결코 이에 그치지 않으며 그 밖에도 많은 진보적인 요소을 내포한 사상이 있다。

* * *

정 다산은 근세 조선이 낳은 선진적 사상가의 한 사람이다。

그는 조선 사상사가 달성한 합리적인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섭취하여 풍부하고 심오한 사상 체계를 수립하여 그 이후의 사상사 발전을 위한 훌륭한 토대를 구축하였다。 그리하여 그의 사상은 그후의 진보적 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정 다산의 탁월한 그 리상은 오래 동안 실현될 수 없었으며 그가 남긴 사상적 유산도 오래 동안 계승 발전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조선 인민은 정 다산과 같은 사상가들이 품고 있던 그러한 리상을 계승 발전시키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전개하여 왔다。

해방후 비로소 우리의 선조들이 남겨 놓은 진보적 문화 유산들은 우리 당의 지도하에 처음으로 계승 발전되게 되였으며 그에 대한 심오한 연구가 전개되게 되였다。 정 다산도 포함하는 근세 조선의 진보적 사상가들의 탁월한 사상은 오늘 조선 인민의 크나한 민족적 자랑으로 되고 있다。

정 다산 서거 一二〇주년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민족 문화에 대한 심오한 연구와 그의 계승 발전을 위하여 더욱 정심할 결의를 다져야 할 것이다。

통일 농업 협동 조합의 가일층의 장성과 공고화를 위한 체코슬로바키야 공산당의 투쟁 (주一)

울라지미르 미하일로브

一〇차 당 대회는 총로선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서 종국적인 사회주의 승리를 위하여 계속 투쟁한다』. 인민 경제는 그것이 두 개의 각이한 기초인 대규모적인 사회주의적 공업 생산과 소규모의 농업 생산에 의거하고 있는 한 충분히 발전 공고화될 수 없다. 산업과 농촌 경리간의 불균형은 다만 소규모의 농업 생산으로부터 대규모의 사회주의적 농업 생산에로의 이행에 의해서만 제거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행은 사회주의 건설의 객관적인 합법칙성으로 되며 체코슬로바키야에서는 통일 농업 협동 조합의 창설에 의하여 그것이 실현된다.

생산 협동 조합들은 단기간내에 농촌에서 깊은 뿌리를 박았다. 현재 농촌의 四七%에 제二、제三 및 제四 형태(주二)의 통일 농업 협동 조합들이 존재하고 있는바 그 협동 조합들은 二一七、六四七개의 농민 경리를 통합하고 있다. 『협동 조합 운동의 급격한 장성은—하고 브·쉬로끼 동지는 말하였다—우리는 력사적 의의를 가지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의 빛나는 성과로 간주한다. 왜냐 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농촌에 상시적인 공고한 사회주의의 기초가 축성되였기 때문이다. 수천명의 협동 조합원들—어제까지의 개인 농민들—은 사회주의적 농업 생산 조직의 열성자들로 되였다』.

통일 농업 협동 조합들은 우리 인민이 당과 정부의 령도 밑에 농업 생산을 제고하며 전체 인민 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면서 더욱 더 의거하고 있는 그러한 력량으로 되였다. 一九五四년에 총상품 생산에서 협동 조합들의 몫은 우유에서는 三一·四%、곡물에서는 三二·七%、돼지 고기에서는 三八·五%、사탕무에서는 四四·七%、채종(菜種)에서는 五八·九%를 차지하였다. 농산물의 의무 납부를 수행한 후에 협동 조합들은 작년에 一五五、四四六 쩬뜨네르의 돼지 고기、八四、八一八 쩬뜨네르의 소 고기、七四、〇五一、二六九 리터의 우유、二七、六五〇、二九一개의 계란 및 기타 농산물을 국가에 더 제공하였다.

통일 농업 협동 조합들은 개인농 경리보다 훨씬 더 적은 비용

으로써 빛나는 성과들을 달성하였다. 협동 조합들에서는 일로력 당 경지 면적은 개인농들 보다 거의 두 배 이상이나 차려진다. 통일 농업 협동 조합들은 많은 면적의 황무지와 휴한지들을 개간할 수 있었다. 협동 조합 토지의 三四·八%는 여러가지 토지 폰드로부터 그들에게 양여된 토지이다. 이것은 황폐지였다. 그것들은 역축도 없이 또 불량한 상태로써 통일 농업 협동 조합들에 이전되였다. 이와 같은 토지를 개간하는 사업은 여러가지로 곤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협동 조합들은 생산 계획을 완수 및 초과 완수하였으며 로동 생산 능률과 조합원들의 수입을 제고하고 국가에 대한 농산물의 납부를 보장함으로써 공동 로력의 거대한 우월성을 증시하였다.

당과 정부는 협동 조합들의 조직과 그에 대한 지도에서의 결함들을 극복하면서 협동 조합들에서의 생산의 증대와 통일 농업 협동 조합원들의 생활 수준의 제고를 달성하였다. 一九五四년에 토지 한 헥터 당 현금 수입은 一九五一년에 비하여 두 배 이상으로 장성하였는바 이것은 二、二四九 크론이였다. 一九五四년에 로력일에 의한 수입 분배 부분은 一九五三년에 비하여 四〇%나 증대되였다. 또한 현물 배당도 증가되였다.

그러나 통일 농업 협동 조합들은 비단 농산물의 상시적 증대를 위한 수단으로만 되지 않는다. 통일 농업 협동 조합—이것은 농촌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구체적인 방도이며 근로 농민들을 사회주의적으로 재 교양하는 무기이다. 협동 조합들은 농촌에서 사회주의의 거점들이다. 그것은 우리 인민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적 위력을 공고히 하며 체코슬로바키야 공산당을 위수로 로동 계급이 령도하는 로동 계급과 농민과의 동맹、그리고 근로 인민들의 정치—정신적 통일을 강화한다.

현행 통일 농업 협동 조합들의 장성과 공고화는 농촌에서의 협동화를 파탄시키려는 계급적 원쑤들의 시도들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을 립증해 준다. 그러나 역시 최근 二년간과 금년초의 협동 조합 운동의 성과는 불충분한 것이였다.

체코슬로바키야 공산당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一九五五년 六월 二九—三〇일)는 협동 조합 운동의 성과들에도 불구하고 최근 년간에 기대하였던 통일 농업 협동 조합의 량적 장성과 조합원 수의 장성 및 그 토지 면적의 확장을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확인하였다. 체코슬로바키야 공산당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는 농촌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위하여 계속 투쟁할 것을 당과 근로자들에게 호소하였으며 결정적인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들을 명확히 내세웠다. 체코슬로바키야 공산당 중앙 위원회 결정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중앙 위원회는 더욱 대담하게 또 진지하게 사회주의의 길을 농민들에게 해설해 주어야 한다는 데 대하여 전 당과 전체 국가 기관 및 경제 기관、그리고 전체 대중 단체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바 그와 같은 사회주의의 길은 농민들에게 경리를 보다 훌륭하게、보다 유익하게 운영하며 생활 수준을 제고하며 사회에 대한 그들의 의무들을 보다 훌륭하게 수행할 가능성을 제공해 줄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전 당과 민족 위원회들、엠·떼·에쓰、그리고 직맹과 체코슬로바키야 청년 동맹은 꾸준한 조직 정치 사업을 전개하여야 한다. 오직 이렇게 함으로써만 一〇차 당 대회의 결정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 ❊ ❊

최근 二년간에 통일 농업 협동 조합들의 불충분한 장성의 주

요 원인은 농촌에서의 조직 정치 사업의 미약성과 통일 농업 협동 조합들을 계속 발전시키는 사업에서의 일부 당 단체들의 소극성 및 우유부단성이며 협동 조합에 근로 농민들을 가입시킴에 있어서 범한 오유들에 대한 비판의 그릇된 리해이다. 협동화 시기의 오유들은 농촌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로동자、농민의 동맹에 커다란 해독을 끼쳤다。 이 모든 결함들과 실책들은 일찌기 一九五三년 一二월 체코슬로바키야 공산당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에서 정당하게 날카로운 비판을 받았다。 동시에 농업 생산을 증대하기 위하여 통일 농업 협동 조합들과 개인농들에게 방조를 주었다。 비판과 강구된 조치들은 농촌에서 광범한 지지를 받았으며 당과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임을 공고히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비판이 주 및 구역의 많은 지도 일꾼들에 의하여 그릇되게 접수되였다。 통일 농업 협동 조합에 농민들을 인입함에 있어서 범한 그릇되고도 유해한 방법은 종식되였다고는 하나 그러나 당 기관들과 민족 위원회들의 일부 일꾼들은 새로운 힘을 가지고 농촌 경리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중요한 과업 수행에 나서지 못하였으며 통일 농업 협동 조합에 농민들을 계속 인입하는 것을 포기하였으며 일반적으로는 새로운 협동 조합의 창설을 포기하였다。 마치도 농업 생산을 부단히 장성시키는 유일한 길인 통일 농업 협동 조합의 가일층의 발전을 거부해야 하며 꿀라크에 대한 제한 구축의 정책을 거부해야 한다는 듯한 경향들이 나타났다。 자원적 원칙이 외곡되였다。 즉 농민들 속에서는 통일 농업 협동 조합의 발전을 위한 조직 정치 사업을 진행하지 말아야 하며 통일 농업 협동 조합이 자연 발생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기다려야 한다는 견해가 존재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견해들에 대한 당 단체들로부터의 불충분한 반박은 농촌에서의 정치 사업의 약화와 통일 농업 협동 조합의 계속적인 창설과 공고화를 위한 투쟁의 약화를 초래하였다。

통일 농업 협동 조합의 발전이 락후한 다른 원인은 지방 일꾼들이 통일 농업 협동 조합이 가일층 장성할 전제 조건으로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기존 협동 조합들의 성과들이라는 것을 망각한 데 있었다。 아직도 모든 협동 조합이 다 개인농들에게 대규모적인 사회주의적 농업 생산의 모범으로 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우수한 또 대단히 우수한 협동 조합들과 함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다른데 비하여 현저히 락후되고 있는 협동 조합들이 존재한다。 락후한 협동 조합들에서의 기본 생산 부문들은 불충분하게 발전되고 있다。 이러한 협동 조합들에서의 상품、농산물은 많지 못하며 현금 수입과 로력일 당 분배량이 적다。 많은 이런 협동 조합들에서는 축산업의 발전이 미약하며 필요한 공동 시설이 결핍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협동 조합들의 락후성은 공동 생산의 불량한 조직과 규준 규약 조항들의 란포한 위반으로써 설명된다。 일부 협동 조합들에서는 사회주의적 로동 조직의 원칙들이 위반되고 있다。 즉 위임된 작업 부문에 대한 개인 책임제가 실시되지 않고 로력 보수의 절차가 확립되지 않고 장부가 정리되지 않고 있으며 재산이 옳게 등록되지 못하고 절취와의 투쟁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협동 조합들의 지도 간부들은 가장 유능하고도 우수한 일꾼들 속에서 선발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증산과 자체 예비들의 완전한 리용을 위하여 불충분하게 투쟁하고 있으며 선진적인 로동 방법의 적용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고 있다。

일부 조합내에 꿀라크들이 잠입하고 당 단체들과 민족 위원회들이 협동 조합원들과 합력하여 꿀라크들을 폭로、추방하지 않는다면 그 협동 조합들이 달성한 성과들과 심지어는 그 존립 자체에 대한 위협이 조성된다。 꿀라크들은 협동 조합에 잠입하여 집단 생활에 불화를 조성하며 자기의 전문 지식과 경험들을 악용해서는 협동 조합 경리에 손실을 끼치며 또 그들은 로동 규률을 문란케 하며 사료의 수매를 파탄시키고 가축들을 리병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공동 재산의 탐오를 조장시킨다。 꿀라크들은 폭로 당하지 않기 위하여 또 마치도 『선량한 꿀라크』들이 있다는 듯한 환상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심스럽게 행동한다。 어떤데서는 우리 동지들이 통일 농업 협동 조합 밖에서 행동하는 꿀라크들의 영향도 역시 과소 평가하고 있다。 협동 조합들을 파괴하는 것은 모든 꿀라크들의 목적이다。 만일 당 단체들이 꿀라크들과의 비타협적인 투쟁에로 협동 조합원들과 또한 중 소 농민들을 궐기시키지 않는다면 협동 조합들을 공고화할 수 없다。

정치 사업과 밀접히 관련되여야 하는 민족 위원회들의 조직—경제 사업이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협동화의 사상을 선전함에 있어서 못지 않는 중요한 역할을 노는 것은 또한 국영 경리이다。 『국영 경리는 고도로 기계화 되고 훌륭히 조직된 사회주의 경리의 모든 유익성을 중 소 농민들에게 실천을 통하여 증명해 줄 우리 나라 농촌에서의 뚜렷한 모범으로 또 구감으로 되여야 한다』라고 아·노보뜨느이 동지는 一九五五년 六월 二九일 체코슬로바키야 공산당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에서 말하였다。

협동 조합 발전에서의 불만족한 형편은 또한 통일 농업 협동 조합의 창설과 공고화를 흔히 서로 관련되지 않은 두 개의 독립적인 과업으로 간주하여 왔다는 것으로써도 설명된다。 이로부터 흔히 다만 통일 농업 협동 조합의 창설에만 집중되였거나 그렇지 않으면 기존 통일 농업 협동 조합의 공고화에만 집중되였던 당 단체들과 민족 위원회들의 조직 정치 사업의 지극히 깜빠니야적인 성격이 흘러 나온다。

一九五二년에 통일 농업 협동 조합들을 대중적으로 창설하는 행정에서 이미 창설된 통일 농업 협동 조합들의 정치적 및 조직 경제적 공고화에 응당한 주의가 돌려지지 않았는바 그것은 일부 협동 조합들이 해산되게 된 원인으로 되였다。 방금 창설되였거나 또 이미 존재하는 협동 조합들에서의 성과적인 경리 운영에 대해서는 망각하면서 통일 농업 협동 조합의 수를 무제한으로 증대시킬 수 있다는 그릇된 견해가 존재하였다。

최근 시기에는 많은 동지들이 자기들의 과업을 기존 협동 조합의 공고화에만 국한하고 통일 농업 협동 조합의 계속적인 량적 장성은 전연 등한히 하였다。 최근 二년간의 사실은 농촌에서 협동 조합의 확대와 새로운 통일 농업 협동 조합들의 동시적인 창설이 없이는、통일 농업 협동 조합들의 량적 증가와 동시에 그 성원 대중의 증대 및 그 토지 폰드의 확장이 없이는 통일 농업 협동 조합들을 공고화할 수 없다는 것을 뵈여 주었다。

통일 농업 협동 조합의 창설과 공고화의 호상 련관에 대한 부정확한 리해는 또한 이 문제의 성격을 부정확하게 평가하는 데서도 표현되였다。 통일 농업 협동 조합에로의 농민들의 인입과 협동 조합들의 창설이 정치적인 과업(대중 정치 사업이라는 의미에서)으로 리해되였다면 통일 농업 협동 조합의 공고화는 순기술적인 과업(통일 농업 협동 조합들에 전문적인 기술적 방조를 준다는 의미에서)으로 리해되였다。 강력한 대중 정치 사업은 많은 경우에 다만 협동 조합이 창설될 때까지만 진행되였다。

협동 조합이 창설된 후에는 당 단체들은 흔히 농민들과 협동 조합원들 속에서의 계속적인 정치 사업을 멀리 하였다。통일 농업 협동 조합 창설시에 정치 사업의 전개를 방조하였던 지방 열성자들도 농촌에서 떠나가는 일이 드물지 않았다。바로 이 때문에 일부 지방에서는 활력이 없는 협동 조합들이 출현하였는바 그런 협동 조합들은 인차 해산되여 농민들에게 좋지 못한 실례로 되였다。상시적이며 실질적인 정치 조직 사업이 없이는 협동 조합들을 공고히 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일이다。협동 조합의 창설과 함께 그에 대한 배려는 종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성장하며 협동 조합에 주는 정치적 및 조직적 방조의 질에 대한 요구성이 높아진다。

모든 협동 조합들을 동시적으로 공고히함에 있서어 통일 농업 협동 조합의 계속적인 량적 장성을 보장한다는 것은 一九五五년 六월 二九—三〇일에 진행된 체코슬로바키야 공산당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가 지적한 바와 같이 현 시기의 주요 과업의 하나이다。이 과업을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전체 인민과 함께 전 당이 투쟁하여야 한다。당과 정부는 농촌 경리의 발전을 주의 깊게 살피고 있으며 인민에게 다음과 같이 명백히 교시하고 있다: 오직 대규모적인 사회주의적 협동 조합 생산에 기초해서야만 농촌 경리 전반의 부단한 발전을 보장할 수 있으며 전체 토지의 경작 문제와 로동 생산성 제고 문제 및 기타 농업 생산의 제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결정적인 산업 부문들에서의 제一차 五개년 계획 과제의 완수는 농촌 경리에서의 강력한 생산력의 발전、그 생산물의 계속적인 증대、로동 계급과 근로 농민과의 동맹의 공고화와 강화를 위한 확고한 물질—기술적 토대를 창설하였다。농업 생산의 부단한 앙양은 전반적인 복리를 증진시키는 조건으로서 전체 우리 나라 근로 인민의 공통된 목적이다。

로동 계급은 통일 농업 협동 조합들에 중 소 농민들이 련합되는 것을 방조해 주는바 그것은 농민들의 리익에 부합되며 전체 우리 사회의 번영을 촉진시킨다。로동 계급은 기계、농기구、화학 비료、건설 자재 및 기타 공업 제품과 시설을 농촌 경리에 제공해 준다。로동 계급은 힘이 드는 농산 작업의 기계화에 배려를 돌리고 있으며 또 이와 같은 기계들은 협동 조합 전야의 통합된 토지에서와 공동 농장들에서 보다 훌륭하게 또 가장 유익하게 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엠·떼·에쓰의 도움으로 중 소 농민들에게 명확히 증명해 주고 있다。

해마다 엠·떼·에쓰망은 장성되고 농기계의 량은 증가하며 그 질은 개선되고 있다。一九五四년에는 一九四九년에 비하여 엠·떼·에쓰의 뜨락또르 수는 四배 이상으로 증가되였고 단묶기 기계는 六배 이상으로、꼼바인은 一四배 이상으로 증가되였다。가령 一九四六년에 한 뜨락또르 당 五二六헥타의 토지가 해당되였다면 一九五三년에는 한 뜨락또르 당 二五七헥타가 해당되였다。이와 동시에 一九五三년에는 一九五一년에 비하여 엠·떼·에쓰가 통일 농업 협동 조합을 위하여 수행한 작업량은 九三%나 증대되였고 一九五四년에는 六분의 一이 더 증가되였다。현재 엠·떼·에쓰는 많은 새로운 농기계들로써 보충되고 있다。一〇차 당 대회 결정에 적응하여 사탕무、감자、옥수수 및 야채 재배에서와 축산업에서 협동 조합들에 대한 엠·떼·에쓰의 방조가 강화되였다。

엠·떼·에쓰는 현재 능력있는 유능한 일꾼들로써 강화되고 있다。통일 농업 협동 조합들과 또한 중소 농민들에게 방조를 주

는 엠·떼·에쓰의 조직 정치 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조건들은 조성되였다。로동 계급은 사회주의적 공업 기업소 조직에서 얻은 자기의 풍부한 경험을 농촌 경리에 제공해 주며 엠·떼·에쓰와 농촌 후원 사업의 도움으로 협동 조합들과 중소 개인 농민들에게 물질적인 방조와 함께 또한 조직 정치적 방조를 주며 그들에게 높은 로동 문화를 도입하고 있다。

지금까지 당과 정부에 의하여 취하여진 모든 조치들은 통일 농업 협동 조합에로의 농민들의 인입을 촉진하고 있으며 통일 농업 협동 조합들의 계속적인 량적 장성과 그의 확대를 위한 유리한 전제 조건들을 조성하고 있다。수확을 증대하며 가축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조치들에 많은 자금이 투하되고 있다。공공 건물 건설시와 기경 및 토지 개량시에 협동 조합들은 재정적 방조를 받으며 또한 엠·떼·에쓰의 임대료와 종자 및 비료 값의 인하에 의한 방조도 받는다。자기 경리를 훌륭히 운영하는 협동 조합들에 대해서는 장기 대부에 의한 채무를 매년 五%씩 삭감해 주며 락후한 협동 조합들에는 잔액과 리자의 지불 기한을 연기해 준다。생산 조직을 위하여 국가는 일꾼들을 파견하는 데 그들의 로동 임금은 국가 자체가 부담한다。농업 생산에 대한 계획은 간소화되였다。국가는 협동 조합원들과 개인 농민들에게 자기의 농산물을 유리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을 보장해 주며 농산 및 축산상 무보수의 방조를 주며 광범히 농업 학교와 과학 연구소망을 창설하였다。

四차에 걸친 소매 가격과 봉사료의 인하는 농촌 주민들에게 많은 리득을 가져다 주었다。농촌 경리의 발전에 대한 당과 정부의 백방으로 되는 배려의 결과로 되는 것은 중소 개인 농민들의 애국적 운동이였는바 그들은 통일 농업 협동 조합의 규약에 의하여 농산물을 증산하며 국가에 대한 납부를 초과 완수할 많은 책임을 담당하였다。

생산을 제고함에 있어서 협동 조합들과 개인 중소 농민들에게 주는 방조는 새로운 통일 농업 협동 조합들을 창설하며 기존 협동 조합들의 성원 수와 토지를 확장함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왜냐 하면 개인 중소 농민들에게 대규모적인 사회주의적 협동 조합적 생산 운영의 우월성과 유익성을 명백히 증명해 주기 때문이다。훌륭하게 운영되는 통일 농업 협동 조합들의 존재와 함께 이와 같은 방조는 대규모적인 협동 조합 생산에로 근로 농민들을 이행시키는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다。그러나 통일 농업 협동 조합의 가일층의 발전에서 결정적인 전진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전제 조건들 이외에도 또한 일상적인 강력한 정치 사업과 조직 경제 사업이 요구된다。

❋ ❋ ❋

농촌 경리의 사회주의적 개조는 대단히 복잡하고도 어려운 과업이다。왜냐 하면 깊이 뿌리박힌 소상품 생산 방식을 변경하고 수십만 중 소 농민들을 협동 조합에서의 집단적 로동에로 인도해야 하기 때문이다。생산 방식의 변혁은 농민들의 의식에서의 혁명적 개변과 관련된다。소생산과 자본주의는 여러 세기에 걸쳐 농민들의 의식 속에 개인의 리해 관계를 사회의 리해 관계보다 더 높이 내세우는 개인주의를 배양하고 공고히 하였다。

새로운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와의 소생산의 체대는 부단히 공고화되는 로동 계급과 중 소 농민과의 동맹에 기초해서만、또 농촌의 자본주의적 요소를 반대하는 비타협적 투쟁 행정에서만 있을 수 있다。협동 조합의 건설은 중 소 농민들의 리해 관계와

모순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가장 절실한 리해 관계와 일치한다。그 리유는 그것이 농업 생산을 부단히 증대시키며 도시와 농촌 주민의 생활 수준을 높이는 유일한 담보이기 때문이다。증산을 위한 농민들의 노력을 지지하지 않고서는 로 농 동맹을 공고히 할 수도 없고 중 소 농민들을 통일 농업 협동 조합에 인입할 수도 없다。생산에서의 중 소 개인 농민들에 대한 특수한 조직적, 기술적 및 물질적 방조는 그들의 신임을 획득하는 직접적인 방도이다。그들에 대한 방조는 무엇보다도 기계, 우량 종자, 화학 비료, 건재 및 신용 대부의 제공에서 또 농산 및 축산상 방조에서 표현된다。이와 함께 우리는 개인 농민에게 오직 통일 농업 협동 조합만이 생산의 부단한 장성과 생활 개선의 광범한 전망을 열어 주며 오직 통일 농업 협동 조합만이 엠·떼·에쓰의 최신 기술과 과학의 모든 성과와 또 국가가 농촌에 제공하는 광범한 방조를 완전히 리용할 수 있다는 것을 해설해 주어야 할 것이다。

통일 농업 협동 조합 자체도 중 소 농민들에 대한 원조에 리해 관계를 가진다。왜냐 하면 이러한 농민들을 협동 조합에 인입하기 위한 조건들이 조성되기 때문이다。이것은 중 소 개인 농민들에 대한 통일 농업 협동 조합의 태도는 반드시 우의적이여야 하며 또 협동 조합들은 엠·떼·에쓰와 함께 근로 농민들에게 증산을 위한 방조를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통일 농업 협동 조합에로의 근로 농민들의 가입을 방조하기 위하여서는 그들의 정치 교양과 전문 교육에 대하여 그들의 시야를 넓힐 데 대한 배려를 돌려야 한다。연극, 영화, 강연, 담화 및 국제 국내의 원칙적 문제들에 대한 토론——이것은 농촌 정치 사업에서 충분히 리용하여야 하는 수단들이다。선진적인 경리 방법과 과학의 성과에 대한 선전은 중소 농민들을 농촌 공동 생활에로 인입하는 것을 도와 준다。지방 민족 위원회들이 대중 단체들과 협동하여 훌륭하게 운영되는 린근 통일 농업 협동 조합들에 대한 중소 농민들의 견학 사업을 조직하는 것은 특히 중요하다。대규모적인 사회주의적 농업 생산의 생산 방법들과 그 방법들의 경제적 성과들에 대한 해설에 기초하여서만 통일 농업 협동 조합의 우월성들을 중소 농민들에게 확신시킬 수 있다。

로동 계급과 농민과의 동맹을 공고히 하는 실질적인 방법으로 되는 것은 농촌에 대한 공장, 제조소들의 후원 사업이다。로동자들과 근로 농민들을 위하여 공장, 제조소들의 후원 사업과 농촌에 대한 조직 정치적 방조를 개선하고 확대해야 하며 농촌에서 대중 정치 사업과 교양 사업을 전개하고 협동 조합 운동의 사상을 전파하여야 한다。

로동 계급의 방조와 지도가 없이 중소 농민들이 자연 생장적으로 대규모적인 협동 조합적 생산의 길로 이행하리라고는 기대할수 없다。협동 조합 운동을 계획적으로 또 조직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이것은 경험이 확증해 주고 있다。

빠르두비쯔끼 주(州)에서는 동무들의 지난 해의 경험으로부터 출발하여 통일 농업 협동 조합을 창설함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준비된 사람들이 열성과 완강성을 가지고 이 과업 해결에 착수하는 경우라야만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였다。그들은 협동화되지 않은 부락들에서 당 단체가 이 과업 수행을 여하히 보장하고 있으며 지방 민족 위원회와 그의 농업 및 기타 부서들이 여하히 사업하고 있으며 녀맹과 체코슬로바키야 청년 동맹 및 기타 단체들이 여하히 사업하고 있는가

를 알게 되였으며 지방 민족 위원회 위원들과 지도 일꾼들, 그리고 대중 단체들과 무엇보다도 중 소 개인 농민들이 협동 조합적 경리 운영 방법과 전야 작업의 공동적 수행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를 알게 되였다。또 직종에 따르는 농촌 주민의 구성과 그들의 사회 성분을 료해하며 꿀라크들의 립장과 중 소 개인 농민들에게 미치는 그들의 영향을 정확히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또한 명백하게 되였다。

빠르두비쯔끼주 동무들은 농촌 형편을 분석하면서 지금까지도 통일 농업 협동 조합들과 개인농 경리들에서 리용되지 않은 생산적 및 조직적 예비들을 발견하려고 노력하였다。그들은 개별적인 농촌들에서의 농업 생산에 대한 지도가 여하히 조직되고 있는가를 알아내였고 민족 위원회들과 과학 연구소들과 엠·떼·에쓰 및 기타 경제 기관들과 기업소들이 통일 농업 협동 조합들과 중소 개인 농민들의 생산적 노력에 제공한 방조의 범위를 료해하게 되였다。그 동무들은 개별적인 농촌들의 전망과 통일 농업 협동 조합들에 중 소 농민들을 인입하는 조건하에서 농업 생산이 가일층 발전할 가능성들을 연구하였으며 어떠한 조직 기술적 방조가 필요한가를 구명하였다。이와 같은 지식들은 빠르두비쯔끼주 동무들이 통일 농업 협동 조합에 농민들을 인입하며 새로운 협동 조합들을 조직하기 위한 필요한 조건들을 조성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개별적인 농촌들의 발전 계획과 이로부터 나오는 요구와 조치들에 기초하여 주 기관 일꾼들의 직접적인 참가와 협조 밑에 모든 통일 농업 협동 조합들의 경제적 성과들을 동시적으로 보장하면서 새로운 협동 조합들을 창설할 전 구역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이것은 가까운 년간에 전국적인 통일 농업 협동 조합 발전 계획을 작성할 가능성을 농업성에 주게 될 것이다。이에 있어서 一〇차 당 대회의 결정들에 적응하여 농업 생산의 계통적인 장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통일 농업 협동 조합들과 개인 농민들에 대한 확고한 물질 기술적 방조가 제때에 또 필요한 정도에서 제공되고 그러한 방조가 통일 농업 협동 조합의 장성 속도를 릉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통일 농업 협동 조합에로의 농민들의 인입과 새로운 협동 조합들의 창설을 일시적인 깜빠니야 사업으로 간주해서는 안된다。이것은 몇해를 계속하여 진행될 항시적인 완강한 조직 정치 사업이다。경험이 뵈여 준 바와 같이 공동 로력의 우월성을 중 소 농민들에게 명확히 확신시키기 위하여서는 협동화되지 않은 농촌들에서 계절에 따르는 공동적인 전야 작업들을 광범히 조직하여야 하며 이웃 간의 협조와 호상 방조의 가장 단순한 형태들을 발전시켜야 한다。

통일 농업 협동 조합들의 가일층의 발전을 위하여서는 농촌의 주민 구성을 잘 료해하여야 한다。농촌 주민의 많은 부분이 농사에 종사하지 않고 산업 기업소들과 기타의 인민 경제 부문에서 사업하고 있다。농촌에 거주하는 로동자들은 농촌에서 가장 의식적인 주민으로서 그들이 통일 농업 협동 조합의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가함이 없이는 현재에 있어서나 장래에 있어서 우리는 곤난을 받게 될 것이다。로동자들과 그의 가족들은 통일 농업 협동 조합을 자각적인 일꾼들로써 공고화하기 위한 간부들을 얻어내는 훌륭한 원천이다。이리하여 우리는 장차 통일 농업 협동 조합의 조합원수를 증가하며 새로운 협동 조합들을 창설합에 있어서 그들을 인입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때문에 체코슬로바키야 공산당 중앙 위원회는 一九五五년 六월 二九——

三〇일에 진행된 전원 회의에서 농촌에 거주하는 一만명 이상의 로동자들을 통일 농업 협동 조합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가시키기 위하여 농촌 경리의 일정한 사업에 인입할 것을 결정하였다.

농촌에 거주하는 많은 로동자들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소농민들과 함께 농촌 주민의 수가 많은 층을 이루고 있다. 당은 과거에 이와 같은 근로자들에게 의거하였으며 또 당은 장차 농촌에서 자기의 정책을 실시함에 있어서도 그들에게 의거할 것이다. 이와 같은 끈로자들 중 많은 사람들은 통일 농업 협동 조합 창설의 발기자들로 되였으며 또 현재 그들은 많은 협동 조합들의 핵심적 부분을 이루고 있다. 때문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일부 로동자들과 소농민들에게 보존된 편견으로 말미암아 농촌의 사회주의 건설에서 이 층이 방해물로 된다고 간주하는 그러한 당 단체들은 그들에 대한 견해를 변경하여야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과거의 어려운 생활은 이러한 로동자들과 소농민들의 의식 속에 많은 편견을 남겨 놓았는바 이러한 편견들은 그들이 통일 농업 협동 조합 건설에 적극 참가하는 것을 아직도 방해하고 있다. 농촌 및 공장 당 단체들의 과업은 이러한 로동자들과 소농민들에 대한 교양 사업을 개선하며 꾸준한 해설 사업과 설복의 방법으로 그들과 그들의 안해들을 협동 조합에 인입하는 데 있다. 토지를 소유하는 로동자들과 소농민들은 농촌에서 중농과의 동맹을 공고화함에 있어서 우리의 가장 커다란 지주로 된다.

중농은 농촌 주민중 수가 많은 층이며 그들은 많은 토지를 경작하며 풍부한 생산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농산물의 현저한 부분을 생산하고 있다. 중농은 농촌에서의 중심 인물이다. 통일 농업 협동 조합에로의 중농의 인입은 주요한 과업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중농민의 七〇%가 아직도 통일 농업 협동 조합에 망라되지 않고 있다. 그들을 통일 농업 협동 조합에 인입할데 대하여 주의를 집중하며 그들의 증산 의욕을 지지해 주어야 한다. 그러면서 뚜렷한 실례들을 통하여 대규모적인 협동 조합적 생산의 우월성을 참을성있게 꾸준히 그들에게 해설하여야 한다. 중농을 전취하기 위하여 우리는 완강한 투쟁을 진행하고 있으나 어떠한 계교나 행정적 방법으로써는 그 투쟁을 계속할 수 없다. 중농에 대한 성실하고도 호의적인 태도만이 또 그들의 신임의 획득과 뚜렷한 실례를 통한 그들에 대한 일상적인 설복만이 성과를 가져 올 것이다.

협동 조합에 중농을 인입함에 있어서는 통일 농업 협동 조합에로의 그들의 가입을 용이케 하는 모든 것을 다 리용하여야 한다. 통일 농업 협동 조합 성원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들어 온 토지 몫에 대한 보상금을 지불하는 의의도 이런 관점에서 고찰되여야 한다. 많은 협동 조합들에서 이와 같은 보상금이 지불되지 않고 있으며 협동 조합 및 민족 위원회 지도 일꾼들은 이것을 소용없는 유해한 또는 이미 지나간 단계라고 간주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견해들은 옳지 못하다. 조합원 총회가 해당한 결정을 채택할 때까지는 조합원들의 토지를 리용하는 데 대한 보상금을 그들에게 지불하는 것을 폐지할 수 없다. 많은 경우에 보게 되는 바와 같이 농민들이 협동 조합에 가지고 들어 온 재산의 댓가 지불을 그렇게 근거없이 무시해서는 안된다. 토지와 재산에 대한 보상금 지불은 통일 농업 협동 조합의 성원 토대를 확장함에 있어서, 특히 협동 조합에 중농을 인입함에 있어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근로 농민은 실제적인 인간이다. 그들은 무엇이 자기들에게 커다란 리익을 가져 올 것인가를 치밀하게 타산한다. 때문에 통일 농업 협동 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경리를 운영하

는 것보다 그들에게 더 유리하다는 것을 실례들을 통하여 명확히 증명해 주어야 한다. 협동 조합이 중 소 농민들에게 예상된 리익을 가져다 주기 위하여서는 이미 그 초창기에 협동 조합 사업이 잘 되고 개인 경리 때의 수입에 비해 협동 조합원들의 수입이 더 높아질 전제 조건들을 보장하여야 한다. 경험있는 경영주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되는 것은 협동 조합의 실질적인 경제적 성과들이다. 협동 조합을 창설하기 전에 미리 중 소 농민들과 함께 공동 경리의 가능성들과 우월성들을 심의, 고찰해 보고서 농민들을 협동 조합에 인입하는 것은 새로운 협동 조합이 번영할 실질적인 전제 조건들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실질적인 전망들이 존재한다면 협동 조합 창설을 결의한 중 소 농민들의 선진 부분을 련합한 준비 위원회들이 중요한 역할을 놀아야 한다. 준비 위원회 위원들로서는 농사를 훌륭히 짓고 있으며 인간적으로 농촌에서 존경과 신임을 받는 선진 농민들을 선출하여야 하며 위원회 성원에 꿀라크의 침투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위원회의 기본 과업은 청원서의 제출을 조직하며 지도 간부들을 준비하고 재 협동 조합의 급속한 창설과 관리 위원회 및 검사 위원회의 선출을 위하여 노력하는 데 있다. 많은 경우에 당 단체들과 민족 위원회들은 자기 사명을 수행하게끔 준비 위원회에 방조를 주지 않았다. 올로모우쯔끼주에서 일부 준비 위원회들은 하등의 방조도 받지 못한채 수년간이나 존재하고 있다. 슈쩨빠노브촌에서는 준비 위원회가 이미 五년 동안, 크르츠마니촌에서는 三년 동안이나 사업하고 있는 등이다. 준비 위원회는 몇달 동안에 제一형태의 협동 조합을 조직하게 되는 때에만 자기 과업을 완수하는 것으로 될 것이다.

통일 농업 협동 조합을 창설함에 있어서는 그의 사업 조건들을 주의깊게 연구하고 조직상 애로와 결함들을 사전에 극복할 수 있게끔 준비하기 위하여 협동 조합에 기계와 우량 종자, 그리고 건재 및 기타 공업 자재들을 보장해 두어야 한다. 가장 우수하고 가장 유능한 일꾼들의 면밀한 선발과 협동 조합내 지도적 직위에의 그들의 정확한 배치가 원칙적으로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우선 협동 조합의 발전 계획을 작성하고 그 계획에서는 경제적 목적을 규정하고 공공 건물의 건설, 생산 및 로동 조직, 일꾼들의 교육과 교양, 부기의 실시 등을 예견하여야 한다. 이 계획은 그 시초부터 전체 협동 조합원들과 함께 토의하여야 하며 계획 완수에로 조합원들을 동원하여야 한다.

새로운 협동 조합을 창설하기 위하여서는 언제나 부락내 중 소 농민들의 다수가 협동 조합 가입을 찬성하는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만일 성과적인 경리 조직을 위한 전제 조건들이 존재한다면 소수 인원에 기초하여 협동 조합을 창설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규모가 적은 협동 조합들의 경리는 부락내 다른 중 소 농민들에게 매력있는 모범으로 될 수 있게끔 조직되여야 하며 그리하여 부락의 완전한 협동화를 달성하여야 한다.

협동 조합의 창설과 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은 꿀라크들의 폭로와 그들을 반대하는 계통적인 투쟁이다. 사회주의에로의 도상에서의 농촌 발전은 계급적 평화의 환경에서가 아니라 완강하고도 부단히 첨예화되는 계급 투쟁의 조건하에서 진행된다. 인민 민주 제도의 공고화, 협동 조합의 장성 및 공고화와 함께 꿀라크들의 반항은 강화되며 그들의 적대적 활동의 형태들은 변동된다. 지금 꿀라크들은 근로자로 분식하며 고립당하는 것을 피하려고 애쓴다. 만일 그들이

협동 조합의 창설을 방해하는 데 성공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전력을 다하여 내부로부터 협동 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하여 그 속에 잠입하려고 애쓰고 있다。 브란드이쓰—나—라베 구역에서 『호라쓰트』 통일 농업 협동 조합을 창설할 때 꿀라크들을 포함하여 전 부락이 협동 조합에 가입하였다。 꿀라크들은 공동 축사의 건설을 방해하고 목축업을 파탄시켰다。 그것은 가축이 그들의 축사에 분배되였기 때문이다。 이 결과에 생산 및 재정 계획은 완수되지 못하여 예산했던 로력일 당 보수는 지불되지 못하였다。 꿀라크들의 해독적 활동의 결과로 중 소 농민들은 경리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꿀라크를 반대하는 투쟁은 농촌에서의 경제적 및, 특히 정치적 위치로부터 그들을 구축하며 중 소 농민들로부터 고립시키며 전 부락 앞에 그들의 착취자적 본성을 폭로하며 꿀라크들의 활동에 대하여 경각성있게 감시하며 그들의 해독 행위 또는 국가 앞에 지닌 의무들의 불수행에 대하여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꿀라크들을 반대하여 취하여진 조치들의 정확성을 중 소 농민들에게 확신시키기 위하여 그 조치들을 공개적으로 론증하여야 한다。 꿀라크를 제한 구축하는 우리 정책의 성과는 중 소 농민들이 그 정책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지지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일상적으로 해설하여야 한다。

제한 구축의 정책은 꿀라크에게 적용되나 결코 중농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만일 꿀라크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과거에 지방들에 있은 바와 같이 우리의 동맹자인 중농에게까지 확장된다면 유해로울 것이다。 흔히 이것은 一五헥타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는 모든 농민들을 기계적으로 꿀라크로 규정하는 결과였다。 론쟁할 여지 없이 그들중 많은 부분은 꿀라크들이다。 그러나 많은 중농들도 있다。 그리고 반대로 특히 집약적인 농업 경리를 하는 지대들에서는 많은 꿀라크들이 一五헥타보다 훨씬 적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농지의 규모는 다만 개략적인 지표가 될 수 있을 뿐이고 꿀라크를 규정하는 결정적인 것은 착취에 토대한 그들의 경리의 본성이다。 이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현재 대부분의 경우에 꿀라크들은 일상적으로 로동력을 고용하여 착취할 가능성을 상실하였다는 그것이다。 물론 이것은 그들의 본성을 결코 변경시키지는 않는다。

통일 농업 협동 조합의 건설은 모든 토지에 대한 합리적인 경작 조직의 훌륭한 방법이다。 협동 조합이 경작하는 토지 면적의 규모는 농업 협동 조합 발전의 기본 지표로 된다。 이와 같은 견지로 보아 휴한지 또는 덜리용된 예비 토지 및 누구에게도 소속되지 않는 토지를 새로 창설된 협동 조합들에 분여해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하다。 그러나 해당 협동 조합이 경작할 수 있는 면적의 범위내에서 분여하여야 한다。 일찌기 일부 지방들에서는 다만 예비 토지, 휴한지 또는 꿀라크들의 토지에만 토대하고 중 소 농민들의 참가 없이 통일 농업 협동 조합들을 창설하는 오유들을 범하였다。 그러한 협동 조합들을 조직하는 것은 부당하고 유해하다。 베로운 구역 『로케니쩨』 통일 농업 협동 조합에는 가정 부인들만이 참가하였다。 협동 조합에 중 소 농민들을 인입할 수 없었으며 몇해 동안 성과없는 경영을 하던 끝에 협동 조합의 토지와 재산은 학교 경리로 양도되였다。

협동 조합원들은 처음에 집단 로동의 가장 단순한 형태들을 알게 된다。 이에 있어서 통일 농업 협동 조합이 협동 경리의 고급 형태로 점차 이행하기 위하여서는 제二형태의 협동 조합들이 중요한 역할을 논다。 제二형태의 협동 조합의 의의는 무엇보다도 그것이 공동 로동의 초급 학교라는 데 있다。

공동 전야 작업 조직의 경험은 축산업의 조직으로 이행되며 협동 조합원들은 집단 경리의 유리성을 보다 훌륭히 더욱 급속히 확신하게 된다。 점차적인 이행은 제三형태 또는 제四형태에로의 즉시적 이행보다도 많은 사람들에게 더 용납되기 쉬운 것이다。 그러나 이에 있어서 一九五五년 六월 二九—三〇일에 진행된 체코슬로바키야 공산당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가 교시한 바와 같이 현재까지 존재하는 체계를 단순화하여 준비 위원회로부터 직접 제二형태로、즉 집단적인 토지 경영에로 이행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고급 형태에로의 통일 농업 협동 조합의 이행은 협동 조합과 그 매개 성원들의 생활에 있어서 사변으로 된다。 고급 형태에로의 통일 농업 협동 조합의 시기 상조한 이행은 옳지 않으며 또 유해하다。 이와 꼭 같이 집단 경리의 저급 형태의 계단에 오래 머므는 것도 전진치 못하며 또 협동 조합의 공고화를 촉진시키지도 못한다。 보통 이런 협동 조합들의 제三형태에로의 이행은 一년 동안에 실현되여야 한다。

※ ※ ※

농촌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며 농업 생산을 증대시키는 커다란 과업 해결에로 중 소 농민들을 인입하는 것은 농촌 당 단체들의 가장 직접적인 의무이다。 농촌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를 위하여 자체의 로력과 모범으로써 투쟁하는 우수한 근로 농민의 대표들을 당 단체가 단결시키고 있는 그러한 곳에서는 당 단체의 사업이 보다 성과적으로 진행된다。 당 단체가 중 소 농민들을 자기 대렬내에 계통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곳에서는 농촌에서의 정치 사업을 위한 훌륭한 조건들이 조성되고 있으며 농민들에 대한 영향력이 강화되고 당과 비당원 농민들과의 련계가 공고화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지방들에서는 근로 농민들의 선진적 부분들에 의한 당 단체의 장성이 갖는 의의가 과소평가되고 있다。 오쓰뜨라브쓰끼、쁘라즈쓰끼、고뜨왈돕쓰끼 및 기타 주들의 당 단체 당원들 중에서의 일반적으로 낮은 농민 비률은 이것으로써 설명된다。 많은 주들에서는 一〇차 당 대회 이후에도 우수한 농민 일꾼들을 후보 당원으로 입당시키기 위하여 훈련하는 사업에 주의를 돌리지 않았다。 어떤 곳에서는 심지어 중 소 개인 농민들은 당원으로 될 수 없다고 간주하였으며 또 후보 당원으로서 입당하자면 기계적으로 통일 농업 협동 조합원으로 되여야 하였다。 당은 농촌 주민의 가장 자각적인 부분을 단결시키고 있으며 매개 당원들은 농촌에서의 사회주의 승리를 위한 적극적 투사가 되여야 하되 모범적인 협동 조합원들과 함께 무엇보다도 자기 경리를 잘 운영하고 있으며 협동 조합이 창설되게 되면 거기에 가입할 각오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중 소 농민들을 당에 인입하여야 한다。

통일 농업 협동 조합과 중 소 개인 농민들의 대렬내의 모범 일꾼들을 후보 당원으로 입당시키며 지금까지 당 단체가 없던 그러한 곳에 당 단체를 창설하는 것은 농촌에서의 당의 영향력의 강화 및 사회주의의 종국적 승리를 위하여 제一차적 의의를 가진다。

지금까지 당과 정부에 의하여 실시된 모든 조치들은 통일 농업 협동 조합의 사업을 개선하며 중 소 농민들을 협동 조합에 인입하기 위한 유리한 전제 조건들을 조성하고 있다。 문제는 지금 다만 우리 당 단체들을 즉 모든 당원들을 이 과업 수행에로 고무 추동하며 인도할 당 단체들의 능력에 달려 있다。

당 단체들의 사업과 당 대중의 활동을 직접 지도하는 구역당 위원회들은 특히 중요한 역할을 논다。주 당 위원회들의 과업은 농촌에서의 정치 사업의 본질적인 향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역 당 위원회들에 능숙한 방조를 보장해 주는데 있다。주 당 위원회들은 구역 당 위원회들이 개별적 농촌의 형편을 연구하며 계획을 수립하며 당 단체들의 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고 열성 간부、선동원、선전원 및 지도원들을 교양 훈련함에 있어서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방조를 줄 의무가 있다。주 당 위원회들은 구역 당 위원회들이 농촌에서의 개별적인 대책들과 깜빠니야 사업의 실시를 검토하고 검열함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방조하여야 하며 자체의 경험과 권고로써 오유들을 급속히 또 제때에 시정하고 결함들을 제거하여야 한다。

一九五二년에 진행된 통일 농업 협동 조합에 새 조합원을 인입하는 깜빠니야에서는 다른 결함들 이외에도 그것이 무계획적으로 자연 생장적으로 또 흔히는 지방 조건들을 료해하지 못하거나 피상적으로 료해한 형편에서 진행된 것이 특징이였다。이로부터 해당한 결론들이 나온다。정치 일군들과 전문가들은 서로 손을 잡고 일하여야 한다。협동 조합의 창설이 다만 정치 일꾼들의 사업으로만 되고 전문가들이 이 사업에서 제외되여서는 안된다。

이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서는 당 단체가 옳게 사업하여야 한다。때문에 농촌 당 단체에 대한 방조는 구역 당 위원회들의 제一차적인 과업이다。구역 열성자들은 자기의 농촌 정치 사업에 모든 경험있고 유능한 구역 및 농촌 리 일꾼들과 통일 농업 협동 조합 위원장들과 열성 조합원들을 인입하여야 하며 공장、제조소에서 경험있는 유능한 일꾼들을 인입하여야 한다。정기적으로 열성자들을 소집하며 개별적인 농촌들에서의 열성 분자들의 사업을 지도하고 향도하여야 하며 그들에게 조언을 주며 애로들을 극복하게끔 그들을 도와 주어야 한다。구역 열성자들과 선동원들이 지방 기관들을 대행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농촌 대중 정치 사업의 주요하고도 가장 실질적 형태는 개별 선동과 농민들과의 개인적 접촉 및 담화이다。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농촌 사람들은 변화되고 있으며 그들의 정치 문화 수준은 제고되며 그들의 시야는 부단히 넓어지고 있다는 것이다。그들은 많은 것을 알려고 한다。농촌 당 단체는 그들의 요구에 정확히 수응하여야 한다。당 단체는 그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어야 한다。첨예화되는 계급 투쟁 속에서 꿀라크들은 외국 원쑤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우리 통일 농업 협동 조합에 대한 허위 날조를 류포하며 중 소 농민들의 면전에서 협동 조합 사상을 비방하려고 백방으로 애쓰고 있다。농촌 당 단체는 통일 농업 협동 조합에 대한 중상을 결정적으로 폭로하여야 하며 적대적인 론거들을 론박하고 중상적 선전의 류포자들을 폭로하여야 한다。공장내 공산당원들과 마찬가지로 농촌내 공산당원들도 그들이 살고 있는 계층에 대한 책임이 있다。그들의 높은 당적 의무는 농민들의 정치 수준을 제고시키는데 있으며 농민들을 적극적인 정치 사업과 통일 농업 협동 조합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가시키며 인입하는데 있으며 그들을 사회주의적 의식으로 교양하는데 있다。

우리 앞에 나선 과업들의 중요성은 당이 자기의 우수한 간부들을 농촌 공작으로 파견할 것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때문에

체코슬로바키야 공산당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는 一、〇〇〇명 이상의 자각적인 당원들을 농촌에 파견하며 당 일꾼들을 통일 농업 협동 조합、엠•떼•에쓰 및 국영 경리의 지도적 지위에 파견할 것을 당 단체들에 제의하고 있다。

만일 모든 공산당원들이 농업 생산의 증대와 로동자、농민의 동맹의 공고화 및 통일 농업 협동 조합의 발전을 위하여 완강하게 또 견결히 투쟁한다면 우리는 농촌에서의 결정적인 전환을 달성하게 될 것이며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의 종국적 승리를 향하여 급속히 전진하게 될 것이다。

(주一) 체코슬로바키야 잡지 『노바 미쓸리』 一九五五년 八호에 게재된 『통일 농업 협동 조합의 가일층의 장성과 공고화를 위하여』라는 론문을 축소하여 번역함。

(주二) 체코슬로바키야에는 四개 형태의 통일 농업 협동 조합이 존재한다。제一 형태의 통일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는 농토가 통합되지 않으나 농민들은 농사를 협동하여 진행하며 기계와 견인력을 공동으로 리용하고 공동적인 파종 계획을 수행한다。제二 형태의 통일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는 농토가 통합되고 경계(境界)들은 기경되고 작업은 공동적인 계획에 의하여 협동적으로 진행되나 가축은 통합되지 않으며 모든 수확은 제一 형태의 통일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와 같이 완전히 통일 농업 협동 조합 매개 성원들의 소유인 농토 면적에 따라 분배된다。제三 형태의 통일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는 토지와 농기구를 통합하는 외에도 집단적인 축산업을 경영하며 수입의 대부분은 로력일에 의하여 분배되고 나머지 부분은 투입된 토지의 몫에 따라 분배된다。제四 형태의 통일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는 모든 수입이 로력일에 의하여 분배된다。

— 편집부 —

(『꼼무니쓰뜨』 一九五五년 제一六호에서)

서적해제

칼·맑스의 『자본론』에 대하여

리 명 서

최근에 조선 로동당 출판사에서는 과학적 공산주의의 위대한 창시자 칼·맑스의 불멸의 대작 『자본론』 전 三권을 五개 분책(一권 및 三권은 각각 二분책)으로 번역 출판하는 첫 사업으로서 제一권 제一분책을 발행하였다。

『자본론』은 세계 각국 공산당과 로동당들이 전체 근로 대중을 백전백승의 맑스—레닌주의 혁명 리론과 사상으로 무장시킴에 있어서 가장 기본으로 삼고 있는 문헌이다。

맑스의 『자본론』은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을 심오하게 분석 연구하고 과학적 사회주의를 서술한 천재적 로작인 동시에 위대한 철학적 저서이기도 하다。

『자본론』에서 맑스는 유물 변증법적 방법을 적용하면서 거대한 력사적 자료들을 분석 일반화하고 자본주의의 운동 발전 법칙들을 밝히였으며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에 고유한 제반 모순들을 폭로하였다。

『자본론』에서 맑스는 과학적 정확성을 가지고 자본주의 사회의 불가피적 멸망을 론증하였으며 미래 사회의 주인공은 로동 계급이라는 것을 선언하였다。

『자본론』에서 맑스는 공산주의 사회가 공상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도래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였다。

『자본론』은 맑스주의 학설의 집대성이다

『자본론』에는 맑스가 그의 가장 친근한 전우인 엥겔스와 더불어 창시한 맑스주의 학설이 총체적으로 서술되여 있다。

『자본론』에서 맑스는 기본적으로 정치 경제학을 취급하고 있으며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의 발생 발전 및 그의 멸망의 법칙들을 밝혀 주고 있다。

『자본론』은 커다란 철학적 의의를 가지고 있는바 그것은 자연、사회 및 인간의 사유의 운동 법칙에 관한 학설인 유물 변증법의 탐구와 그의 적용의 가장 훌륭한 모범으로 된다。

맑스 이전의 모든 부르죠아 경제학자들이 자본주의의 본질을 천명할 수 없었던 주요 원인은 그들이 부르죠아 계급의 출신이였으며 또한 부르죠아 사회의 옹호자인 데 있었다。 이와 함께 또 그들이 출발하고 있는 철학적 견지、즉 형이상학적 인식론、결국에 가서 사회에 대한 관념론적 견해가 그들로 하여금 자본주의의 본질을 규명하지 못하게 함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도 물론이다。 그러므로 부르죠아 정치 경제학에 대한 비판은 또한 동시에 그의 형이상학적 방법、론리、인식론에 대한 비판으로 되여야 한다。

맑스는 우선 자본주의 제도의 영구성 및 불변성에 관한 리론에 기초하고 있는 부르죠아 경제학자들의 형이상학적 방법의 비과학성에 대하여 결정적인 비판을 가하고 이에 사물과 현상을 고찰함에 있어서 유일한 과학적 방법인 변증법을 대치시켰다。

『자본론』에서 맑스가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을 분석함에 있어서 적용하고 있는 변증법은 결코 헤겔의 관념론적 변증법이 아니며 이와는 근본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다。 맑스는 헤겔의 변증법의 『합리적 알맹이』만을 취하면서 헤겔의 관념론적 껍질을 벗겨 버리고 변증법을 앞으로 더 발전시키였으며 헤겔의 변증법에 대립되는 유물 변증법을 수립하였다。 이에 대하여 맑스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나의 변증법적 방법은 헤겔의 그것과 비단 근본적으로 다를 뿐만 아니라 그것과는 정반대의 것이다。 헤겔에게 있어서는 그가 리념이라는 명칭 밑에 독립적인 주체에로 전화시키기까지 한 사유 과정은 현실의 데미우르그(조물주)이고 현실은 리념의 외부적 발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나에게 있어서는 반대로 관념적인 것은 인간의 두뇌 속에 이식되여 그 속에서 변형된 물질적인 것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다』(칼·맑스 『자본론』 조선 로동당 출판사판 제一권 一분책 一九페지)。 맑스의 이 혁명적인 유물 변증법적 방법은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을 과학적으로 천명한 『자본론』에서 가장 완전하게 그리고 전면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또 발전되고 있다。 레닌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썼다: 『맑스는 「론리학」(대문자로 쓴)을 남겨 놓지는 않았으나 그는 「자본론」이라는 론리학을 남기였다』(브·이·레닌 『철학 노트』 로문판 二一五페지)。

이와 같이 맑스는 자기가 수립한 혁명적인 유물 변증법적 방법을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 연구에 전면적

으로 그리고 철저히 적용함으로써 자본주의의 본질을 과학적으로 천명할 수 있었다。

맑스 이전의 많은 부르죠아 경제학자들도 자본주의 제도를 연구하였으며 그의 본질을 규명하려고 기도하였다。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계급적 제한성과 사회 현상에 대한 관념론적 견해로 말미암아 자본주의의 본질을 도저히 규명할 수는 없었다。결국에 가서 그들은 자본주의의 제도를 영원한 것으로 묘사하였으며 또한 인류 사회에 있어서 가장 리상적인 것으로 인정하였다。

『자본론』에서 맑스는 이전의 부르죠아 정치 경제학의 비과학성에 대하여 신랄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즉 부르죠아 정치 경제학이 자본주의 사회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자본주의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현상들을 옳게 분석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리여 현실을 외곡하며 기만하고 있음을 폭로 비판하였으며 부르죠아 경제학자들이 착취 계급의 립장에 서 있느니만큼 사회 발전의 객관적 합법칙성을 볼 수 없으며 따라서 부르죠아 정치 경제학은 자본주의 사회의 내막과 그의 본질을 해명할 수 없으며 자본주의 사회에 고유한 객관적 법칙들을 밝힐 수 없다는 것을 폭로하였다。

이와 같이 맑스는 『자본론』에서 부르죠아 정치 경제학의 비과학성에 대하여 결정적인 비판을 가하고 그를 근본적으로 전복시키였다。

오로지 사회 발전 행정의 최선두에 서 있으며 사회의 앞으로의 발전이 자체의 리해 관계와 일치되여 있는 로동 계급의 립장에 튼튼히 서서 사회 발전 과정을 고찰할 때만이 사회 발전의 객관적 합법칙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전 세계 로동 계급의 스승이며 불굴의 혁명 투사인 맑스는 『자본론』에서 로동 계급의 립장에 서서 자본주의 사회를 분석하였다。그리하여 자본주의의 사회에 고유한 객관적 경제 법칙들을 과학적으로 해명하고 그를 정연하게 체계화하여 진정한 과학으로서의 맑스주의 정치 경제학을 창시하였다。

맑스의 경제학설은 정치 경제학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혁이였으며 그야말로 위대한 혁명이였다。

『자본론』에서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의 발생 발전 및 그의 멸망의 법칙들을 밝히고 맑스는、자본주의는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와 반대로 인류 사회 발전의 일정한 과도적 단계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였다。

이상과 같이 『자본론』에서 맑스는 진정한 과학의 불빛으로 자본주의의 발생 발전 및 그의 멸망의 길을 뚜렷이 밝히고 있다。그리하여 『자본론』의 전 내용은 자본주의의 력사적 과도성을 천명하는 것으로 충만되여 있다。

『자본론』에는 맑스와 엥겔스에 의하여 창시된 력사적 유물론이 가장 완전하게 연구되고 있으며 더욱 더 확고하게 그리고 심오하게 기초지어져 있다。『자본론』

에서 맑스는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을 고찰함에 있어서 막대한 력사적 자료들을 취급 처리하고 있다。맑스는 풍부한 력사적 사실들을 여러 각도로 심오하게 분석하고 있으며 그를 과학적으로 일반화하고 있다。그러므로 『자본론』은 인류 사회 발전의 구체적 행정을 유물론적 립장에서 해명한 가장 훌륭한 문헌으로 된다。

『자본론』에서 맑스는、자본주의에 고유한 제반 모순들의 발전의 결과에 사회주의 혁명은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되며 이 혁명으로 인하여 자본주의는 불가피적으로 멸망하게 되는바 자본주의의 매장자로서는 프로레타리아트가 등장하게 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확증하였다。그와 함께 맑스는 로동 계급이 자기의 정치적 지배——프로레타리아트 독재를 수립하지 않고서는、생산 수단에 대한 수탈자들을 수탈하지 않고서는、자본주의적 소유를 혁명적으로 철저히 청산해 버리지 않고서는 자체가 착취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 없다는 것을 확고한 과학적 분석에 토대하여 정연하게 천명하였다。

그러므로 『자본론』은 계급 투쟁 력사에 있어서 새 시대를 열어 놓은 위대한 저서이다。첫 장으로부터 마지막장에 이르기까지 『자본론』은 착취 제도에 대한 극도의 증오와 격분으로써、또한 자기 해방을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고 있는 근로 대중에 대한 끓어 넘치는 동정으로써 일관되여 있다。

『자본론』에는 또한 맑스와 엥겔스에 의하여 창시된 과학적 사회주의가 더욱 심오하게 천명되여 있다。맑스는、사회주의는 인류 사회 발전의 필연적인 또한 합법칙적인 결과이라는 것을 뵈여 주고 있다。이는 공산주의를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로동 계급에게 최후 승리에 대한 신심을 확고히 하여 주며 그들을 혁명 투쟁에로 고무하고 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맑스의 『자본론』은 높은 당성과 혁명성을 고수하고 있다。인류 사회에 관한 과학이 마치 무계급성을 띠고 있는 것같이 설교하고 있는 부르죠아 어용학자들의 허위와 기만을 폭로하고 맑스는 매개 문제를 분석함에 있어서 과학 리론의 계급적 성격을 뚜렷히 밝히고 있으며 이와 련관되여 있는 계급적 리해 관계들을 명석하게 규정하고 있다。

『자본론』에서 맑스는 자본주의의 본질을 규명하고 그에 고유한 제반 모순들을 해명하여 자본주의가 필연코 멸망하고야 만다는 것을 뵈여 주려는 데 자기 목적을 국한시킨 것은 아니다。비록 『자본론』에서 맑스는 자본주의의 제도를 전복하기 위한 구체적 혁명 과업들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자본론』은 프로레타리아트 당이 혁명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자기의 실천적 활동에 있어서 사회 발전의 객관적 경제 법칙에 의거하여야 하며 또한 객관적 법칙들에 대한 충분한 지식에 의하여 령도되여야 한다는 것을 똑똑히 뵈여 주고 있다。

이와 같이 맑스는 『자본론』에서 로동 계급은 혁명 활동에 있어서 리론과 실천의 통일을 반드시 고수하여야 한다는 것을 뚜렷이 뵈여 주고 있다。

『자본론』의 구성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을 그의 력사적 발전 행정에서 고찰하는 유일한 과학적인 방법은 맑스주의적、변증법적 방법이며 정치 경제학 범주들의 서술 방법은 력사적 발전 행정을 총체적으로 반영하면서 추상적인 것으로부터 구체적인 것에로、단순한 것으로부터 복잡한 것에로 이행하는 론리적 방법이다。맑스의 『자본론』은 론리적인 것과 력사적인 것의 완전한 통일 가운데서 서술되고 있다。

『자본론』의 제一권은 자본의 생산 과정을 고찰하고 있다。맑스는 이미 자기의 저서 『정치 경제학 비판에 대하여』의 서문에서 생산이 경제 생활의 다른 모든 측면——분배、교환、소비——들을 결정하는 분야라는 것을 규정하였다。바로 이 규정으로부터 출발하여 맑스는 『자본론』에서 자본주의적 생산 과정의 고찰로부터 시작하고 있다。제一권에서는 잉여 가치 생산의 분석이 중심적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제二권에서는 자본의 류통 과정이 고찰되고 있다。

제三권에서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총과정이 분석되고 있다。여기에서는 자본의 류통과 함께 자본주의적 생산 과정을 총체적으로 취급하고 있다。

제一권 제一편에서는 상품과 화폐가 분석되고 있다。상품 생산은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이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였다。그러나 상품 생산은 오로지 자본주의 하에서만 일반적 성격을 가지게 되며 그는 드디여 생산의 지배적 형태로 된다。그렇기 때문에 맑스는 상품의 분석으로부터 자기 서술을 시작하고 있다。맑스는 상품、그의 가치、상품 교환 등이 물체의 본성 또는 물체 자체의 운동이 아니라 일정한 력사적 단계에 있어서 인간들이 맺고 있는 생산 관계의 필연적인 표현 형태라는 것을 똑똑히 밝히고 있다。

맑스는 계속하여 상품의 두 개 요인——상품의 사용 가치와 가치——을 분석하고 있다。맑스는 사용 가치와 가치간의 모순、구체적 로동과 추상적 로동간의 모순、가치의 본질과 그의 형태간의 모순들을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 세포、즉 상품에서 벌써 맑스는 자본주의의 제반 모순들의 맹아를 찾아내고 있다。앞으로의 고찰은 이 모순의 맹아들이 어떻게 발전하여 가는가、그리하여 어떻게 자본주의 제도의 모순들이 장성하여 가며 확대되여 가는가를 뵈여 주고 있다。

화폐에 관한 장에서 맑스는 화폐의 본질과 그의 기능들을 분석하고 있다。화폐의 발생 및 발전과 함께 상품 생산자로서의 인간들 간의 련계가 더욱 긴밀하여지며 다면적으로 된다。이와 함께 상품 생산의 모순들이 장

성한다。류통 수단으로서의 화폐의 기능으로부터 공황의 가능성이 발생하며 이 가능성은 또한 화폐가 지불 수단의 기능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더욱 발전된다는 것을 맑스는 뵈여 주고 있다。

상품—화폐 관계의 지배하에서는 인간들 간의 모든 관계가 오로지 상품과 화폐의 형태를 통하여 표현된다。이는 결국에 가서는 상품과 화폐가 인간들을 지배하고 있으며 인간들은 그 앞에서 무기력한 것같은 환상을 인간들에게 준다。이리하여 상품과 화폐에 대한 배물주의가 지배하게 된다는 것을 맑스는 폭로하고 있다。

상품과 화폐를 고찰한 후 맑스는 자본의 분석에 들어갔다。

제一권 제二편에서는 화폐가 자본에로 전화하는 과정을 고찰하고 있다。맑스는 우선 화폐가 자본에로 전화할 수 있는 그때의 조건들을 분석하였는바 특별한 종류의 상품의 존재、즉 로동력이라는 상품의 존재가 이 전화의 기본 조건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로동의 생산물만이 상품으로 될 뿐만 아니라 인간의 로동력 자체가 상품으로 등장할 때 상품 생산은 바로 자본주의적 생산으로 발전한다。력사 발전의 이 단계에 있어서 상품 세계는 임금 로동자들의 로동의 산물의 세계로 전화되며 제반 상품은 자본의 산물로 등장한다。

상품으로서의 로동력은 다른 상품들과 마찬가지로 가치와 사용 가치를 가지고 있다。맑스는 로동력의 가치는 로동력을 재생산함에 필요한 생활 자료의 가치에 의하여 규정되며 그의 사용 가치는 로동력이 새로운 가치、특히 자본가를 위하여 잉여 가치를 조성하는 데 있다는 것을 상세히 해명하였다。

맑스는 자본주의 사회의 로동력 시장에서 로동자와 자본가가 형식적으로는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등장하나 이 형식적인 평등은 임금 로동을 강제적으로 노예화함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신랄하게 폭로하였으며 임금 로동의 노예화의 특성을 상세히 분석하면서 자본주의적 착취의 모든 비밀을 밝히고 있다。

잉여 가치의 분석과 그 비밀의 해명은 맑스의 위대한 업적으로 되며 잉여 가치에 관한 맑스의 학설은 그의 경제학설의 초석으로 된다。

제一권 제三편에서 맑스는 절대적 잉여 가치의 생산을 고찰하고 있다。제五장에서 로동 과정이 가치 증식 과정 또는 잉여 가치 생산 과정과 통일되여 있는 자본주의 조건하에서 특히 로동 과정에 대하여 극히 중요한 분석을 가하고 있다。여기에서 맑스는 로동력의 가치와 로동의 지출로써 조성된 가치는 서로 상이한 크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밝히고 있다。

제六장에서는 불변 자본과 가변 자본간의 차이들을

고찰하고 있다。 여기에서 맑스는 불변 자본과 가변 자본이 잉여 가치 조성에 있어서 상이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제七장에서는 잉여 가치률을 고찰하고 있다。 제八장에서는 풍부한 구체적 자료들을 광범히 리용하면서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의 초기의 발전 단계에 로동일을 싸고 돌면서 자본가 계급과 로동 계급간에 진행된 가렬한 투쟁을 특징짓고 있다。

제四편에서 맑스는 상대적 잉여 가치 생산을 분석하고 있다。 제一〇장에서 상대적 잉여 가치의 개념을 특징짓고 맑스는 다음에 계속되는 三개 장에 걸쳐서 공업에서의 자본주의적 생산 발전의 세 가지 주요 단계——자본주의적 단순 협업、마누팍뚜라 시기、 기계 시기——들을 고찰하고 있다。 이 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계와 대규모 공업을 취급한 一三장이다。 여기에서는 기계적 생산의 토대 우에서만이 자본에 대한 로동의 실질적인 예속이 수행되며 또한 기계적 생산의 발전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에서 로동 계급에 대한 자본의 전제를 더욱 확대한다는 것을 뵈여 주고 있다。 동시에 기계적 생산의 발전은 한 줌도 못되는 착취자들의 손에는 거대한 규모에서 사회적 부가 집적되나 그와 반대로 사회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근로 대중은 기아와 빈궁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써 직접 표현되고 있는 자본주의의 제반 모순들을 극도로 첨예화시킨다는 것을 뵈여 주고 있다。

그러나 맑스는 자본주의하의 기계적 공업에 의하여 산생되는 제반 모순들이 기계 자체내에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기계의 자본주의적 적용으로 인하여 발생된다는 것을 천명하였다。

『자본론』 제一권에서 비교적으로 적은 량을 차지하고 있는 제五편에서 맑스는 절대적 잉여 가치와 상대적 잉여 가치간의 호상 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제六편에서 맑스는 자본주의 제도하에서 로임이 자본가에 의한 프로레타리아트의 착취 관계를 어떻게 엄폐하고 있는가를 밝히고 있다。 여기에서 맑스는 자본주의하에서 로임 형태는 로동력에 대하여서가 아니라 마치 로동의 결과에 대하여· 자본가들이 지불하고 있는 것같은 그런 기만적인 외견을 조성하고 있다는 것을、 폭로하고 있다。 로임의 기본 형태들을 분석한 다음 맑스는 제二〇장에서 자본주의 나라들 간에서의 로임의 차이를 취급하고 있으며 그 차이를 낳게 하는 조건들을 밝히고 있다。

제一권의 마지막 편인 제七편에서는 자본의 축적 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자본론』의 제二권 및 제三권과는 달리 제一권에서는 자본주의적 축적의 실현 과정에서 본질적인 역할을 노는 류통 과정을 아직 포괄하지 않으면서 자본의 축적 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그의 순수 형태에서 자본의 축적 과정이 고찰되고 있다。

제二一장에서는 단순 재생산이 분석되고 있다。 이 분석은 자본주의적 생산이 부단한 자기 운동에 있어서 로동자에 대한 착취 조건들을 갱신하면서 항시적으로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를 재생산하고 있음을 뵈여 주고 있다。 다른 한편 자본은 재생산 과정에서 축적된 잉여 가치로 나타난다。

자본주의적 제 관계의 재생산에 관한 일반적 법칙들을 고찰하고 맑스는 제二二장에서 자본주의적 확대 재생산의 분석에 들어갔다。 여기에서 자본주의적 점유의 법칙의 내용이 밝혀지고 있다。

제二三장에서 자본주의 사회의 한 극에 있어서는 빈궁이 격화되며 그와 반대로 다른 한 극에 있어서는 사회적 부가 거대한 규모에서 축적되게 하는 자본주의적 축적의 일반적 법칙이 심오하게 분석되고 있다。 맑스는、자본주의적 축적은 불가피적으로 로동 계급의 빈궁을 동반한다는 것을 신랄하게 폭로하였다。 계속하여 그는 자본주의하에서의 로동 계급의 상대적 및 절대적 빈궁화는 불가피하며 따라서 부르죠아지와 프로레타리아트 간의 계급적 모순의 첨예화도 불가피하게 초래된다는 것을 밝히였다。

제二四장에서 맑스는 소위 자본의 원시적 축적、즉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의 력사적 전제의 형성 과정을 고찰하고 있다。 자본주의적 생산을 위한 조건들은 인민을 기만하며 략탈하고 강제적으로 농민 대중의 토지를 수탈하는 방법으로、그리고 식민지 인민들을 악탈하게 착취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이 장의 마지막 절인 유명한 제七절 『자본주의적 축적의 력사적 경향』에서 맑스는 정연하게 자본주의의 력사적 사명과 력사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다。 자본의 축적 과정은 절대 다수의 인민 대중을 무산자로 전변시키며 그와 반대로 사회적 부의 거대한 량을 소수의 착취자에게 집중시킨다。 즉 주민의 절대 다수의 수탈이 진행된다。 그러나 그의 앞으로의 발전은 불가피적으로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의 혁명적인 파멸을 초래하게 된다。

여기에서 맑스는 과학적 정확성과 혁명적 준엄성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였다:

『생산 수단의 집중과 로동의·사회화는 그의 자본주의적 외피와 맞지 않게 되였다。 그 외피는 터진다。 자본주의적 소유는 종말을 고한다。 수탈자들을 수탈한다』(칼·맑스 『자본론』로문판 제一권 七六六페지)。 수탈자를 수탈하는 사회주의 혁명의·필연성에 관한 이 결론은 『자본론』에서 맑스가 전개한 자본주의에 대한 과학적 고찰의 필연적 귀결이다。 자기의 과학적 분석의 전 과정을 통하여 맑스는 프로레타리아트 독재를 확립하며 자본주의 제도를 철저히 소탕하며 사회주의 사회 건설의 길을 열어 놓는 프로레타리아트 혁명의 필연성을 확증하였다。

『자본론』 제二권은 三개 편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자본론』 제二권에서는 자본의 운동의 특수한 형태를 고찰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자본가에 의하여 선불된 자본 가치가 화폐 자본 형태、생산 자본 형태、상품 자본 형태로 어떻게 자기 형태를 바꾸어 가는가를 뵈여 주고 있다.

제一장에서 화폐 자본 순환의 세 단계를 고찰하고 맑스는 다음 장들에서 생산 자본 및 상품 자본의 순환 및 총순환 과정을 취급하고 있다. 다음에는 류통 기간을 특징지우면서 맑스는 류통 분야에서 자본의 운동이 어떠한 곤난성에 봉착하게 되는가를 밝히고 있다.

제一편 마지막 장에서 류통비를 취급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자본가 호상간의 경쟁、투기、리윤 추구가 수반되는 자본주의 경제에서 상품 류통이 거대한 규모의 비생산적 로력 지출과 관련되여 있다는 것을 뵈여 주고 있다.

제二편에 있어서는 한 번의 단독적인 행위로서가 아니라 부단히 갱신되며 반복되는 과정으로서의 자본의 순환、즉 자본의 회전이 고찰되고 있다.

제八、九、一〇、一一장에서는 고정 자본과 류동 자본에로의 자본의 분리를 고찰하고 있다. 여기서 맑스는 자본의 형태들과 그의 실질적 내용과를 혼돈시키고 있는 부르죠아 정치 경제학에 대하여 예리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 이 혼돈이야말로 자본의 각이한 부문들이 생산과 류통 과정에서 수행하는 본질적 역할을 엄폐하여 버리고 있다는 것을 철저히 폭로하였다. 부르죠아 정치 경제학은 고정 자본과 류동 자본으로의 자본의 구분만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는 잉여 가치 조성에 있어서 로동력의 역할을 명확히 하지 않으며 도리여 반대로 로동력 구입에 대한 자본가들의 지출과 원료、연료 기타 등등의 구입에 대한 자본가들의 지출간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엄폐하여 버린다. 그러므로 맑스는 자본의 고정 자본과 류동 자본에로의 구분은 회전의 성격에 의한 구분일뿐、자본가에 의한 로동자들의 착취 과정에서 스스로 명백히 구분되고 있는 그 불변 자본과 가변 자본이 노는 역할들을 근본적으로 엄폐하게 된다는 것을 폭로하였다.

제一三、一四장에서는 자본의 회전 기간——생산 기간과 류통 기간——의 구성 부분들이 특징지어지고 있다. 이 편에서는 또한 자본 류통 기간의 잉여 가치률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제三편에서는 총사회적 자본의 재생산과 류통이 고찰되고 있다. 여기에서 맑스는 자본주의 사회 전체에서 볼 때 생산물이 어떻게 교환되는가를 분석하였다. 맑스는 가치 형태와 현물 형태에서 자본주의 사회의 생산물이 실현되는 조건들을 밝히였다. 여기에서는 자본주의의 발전이 자본주의적 기업에 의하여 생산된 상품을 실현하기 위한 시장을 열어 놓으며 또 그를 확대한다는 것을 뵈여 주고 있다. 그와 동시에 자본주의하에

서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경제 공황에 의하여 재생산 과정이 불가피적으로 중단되며 생산력이 파괴되는 그 근원이 밝혀지고 있다.

제三편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의에 대하여 레닌과 쓰딸린은 여러번 강조하였다. 시장에 관한 맑스의 리론을 발전시키면서 레닌은 로씨야에서 자본주의의 발전의 『불가능성』에 대하여 떠들어댄 나로드니크들에 대한 그리고 자본주의적 생산의 현실적 모순들을 엄폐하려고 한 부르죠아 어용학자들에 대한 투쟁을 진행하였다. 또한 재생산에 관한 맑스의 학설에 립각하여 쓰딸린은 사회주의적 확대 재생산에 관한 학설을 완성하였다.

『자본론』 제三권에 있어서는 잉여 가치가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 현상의 표면에서 또한 일상 생활에서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 형태들이 전면적으로 고찰되고 있다. 즉 제三권에서 단순한 것으로부터 복잡한 것으로、추상적인 것으로부터 구체적인 것에로의 이행이 총괄적으로 서술되고 있다.

『자본론』 제三권 제一편에서는 잉여 가치와 잉여 가치률이 어떻게 리윤 및 리윤률의 형태를 취하게 되는가를 뵈여 주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의 표면에서는 로동 지출이 자본의 지출로서 나타나게 되며 상품의 현실적 가치가 생산비로서 가장되며 따라서 리윤은 전 선불 자본의 산물로서 나타난다. 잉여 가치률에 대한 리윤률의 실지 관계를 해명하고 맑스는 리윤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고찰하고 있다.

제二편에서 맑스는 평균 리윤 법칙을 해명하고 있다. 맑스는 각이한 자본의 유기적 구성을 가지고 있는 각이한 생산 부문들에서 상이한 잉여 가치량이 조성된다는 것을 분석하고 평균 리윤률 형성과 상품 가치의 생산 가격에로의 전화 과정을 밝히고 있다. 여기에서는 자본가 계급 전체가 어떠한 단체로써 등장하게 되며 이 단체의 매개 참가자들은 자기가 투하한 자본에 상응하게 리윤을 받는 것으로 되여 버린다. 또한 이 편에서는 경쟁의 결과에 동일한 규모의 자본은 동일한 크기의 리윤을 받는다는 것을 똑똑히 뵈여 주고 있다. 여기에서 맑스는 전 자본가 계급이 전 로동 계급을 착취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폭로하고 있다.

자본론 제三권 제三편에서는 리윤률 저하의 경향의 법칙이 고찰되고 있다. 맑스는 자본주의의 발전과 함께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빨리 장성하며 이에 따라 리윤률은 그와 반대로 저락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로동 계급에 대한 착취의 강화、고정 자본 구성 요소들의 저렴화、락후한 식민지 나라들에 대한 착취 기타 일련의 요인들이 이에 반작용을 주며 따라서 이 법칙은 경향으로서 나타난다는 것을 해명하고 있다.

또한 이 편에서 맑스는 자본주의에 고유한 생산 관

계와 생산력간의 모순을 밝히고 자본주의 사회를 주기적으로 뒤흔드는 파잉 생산 공황의 불가피성을 파학적으로 해명하고 있다。

제四편에서는 공업 자본가로부터 상업 자본가에게 양도되는 잉여 가치의 한 부분인 상업 리윤의 원천과 본질이 해명되고 있다。

제五편은 제三권에서 가장 큰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는 대부 자본의 기원과 본질、대부 리자、신용、신용 화폐의 류통、세계 시장에서의 화폐 계산 등 일련의 문제들이 취급되고 있다。

이 편에서는 우선 자본주의 발전 행정에 있어서 생산에 대한 자본 투하로부터 자본에 대한 소유의 분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분석하고 있다。 화폐 자본은 자본주의 발전과 함께 리윤을 가져다 주는 대부 자본 형태에서 분리된다。 맑스는 자본의 가격으로서 나타나고 있는 대부 리자가 바로 잉여 가치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폭로하였다。 또한 맑스는 부르죠아들이 자기의 정당한 수입이라고 기만 주장하는 그들의 기업 소득은 본질에 있어서 로동 계급에 의하여 조성된 잉여 가치라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

제二五、二六、二七장에서는 자본주의하에서의 신용의 역할을 전면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자본의 축적 및 자본의 집적과 집중 파정에서 또한 파잉 생산 공황의 발생 파정에서 신용이 가지는 의의를 밝히고 있다。

제六편에서는 지대가 연구 대상으로 되여 있다。 여기에서는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점유되는 잉여 가치의 일부로서의 지대의 발생이 분석되고 있다。 철저하게 생산 가격을 농업에 적용하고 맑스는 차액 지대의 원천을 밝히고 있다。 맑스는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의 조건하에서 공업에 비하여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낮은 농업에서 토지 소유자들이 절대 지대를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형성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자본주의적 지대를 분석한 토대 우에서 맑스는 토지 가격 문제를 명확히 해결하고 있다。

제六편 마지막 장에서는 자본주의적 지대의 발생을 취급하고 있으며 자본주의 이전 사회에서의 농민들에 대한 착취 형태 발전의 광범한 력사적인 개관이 서술되고 있다。 이 마지막 장에서 맑스는 노예 소유자적 및 봉건적 사회 생산 관계의 본질을 분석 해명하고있다。

제七편에서는 제一권으로부터 제三권에 걸쳐 진행된 파학적 분석이 한 곳에 종합되여 있다。 여기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착취 계급의 소득이 결국 로동 계급에 의하여 조성된 잉여 가치의 전화된 형태이라는 것을 결론지였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자본론』의 처음으로부터 마지막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부문에서 맑스는 한 력사적인 사회 제도인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의 제반 모순들을 날날이 폭로하고 있다。 자본주의에 고유한 제반 모순

으로 인하여 생산력의 대대적인 파괴를 동반하는 경제 공황이 불가피적으로 초래된다。 또한 주기적으로 발생되는 경제 공황은 자본주의 내부에서 장성한 생산력이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의 좁은 테두리로부터 벗어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실증으로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공황을 없애려거든 자본주의를 소탕해야 한다。 이상이 『자본론』 전체의 기본 구성이며 기본 내용이다。

『자본론』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자본론』 연구에 들어서면서 우선 직접 맑스주의의 기본 문제들을 취급한 레닌과 쓰딸린의 일련의 로작들을 볼 필요가 있다。

우선 레닌의 『칼·맑스』、『맑스주의의 세 원천과 세 구성 부분』、『칼·맑스 학설의 력사적 운명』、『인민의 벗이란 무엇이며 그들은 사회 민주주의자들과 어떻게 싸웠는가?』、『맑스주의와 수정주의』、『프리드리호 엥겔스』、『소위 시장 문제에 관하여』、『로씨야에 있어서의 자본주의 발전』들이 『자본론』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것들이다。 다음으로 쓰딸린의 로작 『쏘련 공산당 력사 간략 독본』、『변증법적 유물론과 력사적 유물론에 관하여』、『무정부주의냐 사회주의냐』 등이 『자본론』 연구에 많은 도움을 준다。

『자본론』을 연구함에 있어서는 이와 직접 관계를 가지고 있는 맑스、엥겔스의 일련의 로작들을 연구하여야 한다。 그중에서도 『공산당 선언』을 비롯하여 맑스의 로작 『임금 로동과 자본』、『임금 가격 및 리윤』、『정치 경제학 비판에 대하여』、엥겔스의 『반듀링론』、『맑스의 「자본론」에 관하여』、『가족 사유 재산 및 국가의 기원』 등을 동시에 연구하여야 한다。

어떠한 순서에 의하여 『자본론』을 읽을 것인가?

맑스는 초학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읽을 것을 권고하였다。 처음에는 로동일에 관하여(八장)、그리고 협업、분업、기계에 관하여(一一、一二、一三장)、그 다음 자본의 원시적 축적에 관하여(二四장)을 읽고 그 후 다시 제一장으로부터 시작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일정한 준비를 갖춘 사람이라면 열마든지 첫 장으로부터 읽을 수 있다。

『자본론』에 서술되여 있는 맑스의 경제학설과 리론은 그후 레닌과 쓰딸린의 제 로작에서 창조적으로 발전 풍부화되였다。 고전적 로작들——칼·맑스의 『자본론』、브·이·레닌의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로서의 제국주의』、이·브·쓰딸린의 『쏘련에서의 사회주의 경제 제 문제』——이것들은 각이한 력사적 시기、즉 독점 이전 자본주의 시기、제국주의 시기、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승리의 시기들을 각각 대표하는 맑스—레닌주의 경제학설의 위대한 저서들이다。

근로자 제二호 (루계 제一二三호)
一九五六년 二월 二〇일 인쇄
一九五六년 二월 二五일 발행

편집위원회

발행소 근로자사
인쇄소 로동신문 출판 인쇄소
(값 四五원)

ㄱ—40048호